

| 2008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집필인 | 제정본, 최봉호, 김대호, 정희길, 안태현, 김기훈, 정윤심, 이관영,
신명철, 서신주, 홍훈식, 최 숙, 류종준, 김언성, 윤민희, 신명은

발행처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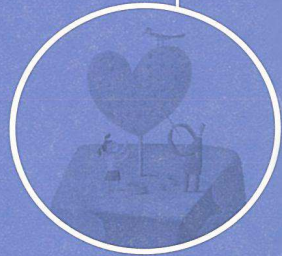
발행인 | 통계청장 김대기

기획 | 조사관리국

편집 | 조사관리국

발행일 | 2008년 12월 29일

디자인 · 인쇄 | 강문인쇄기획 Tel 042) 226-47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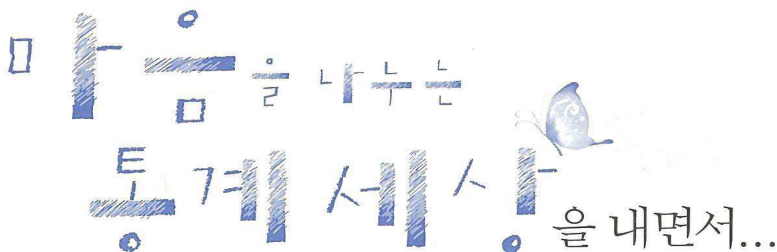
통계청을 나누는

|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통계조사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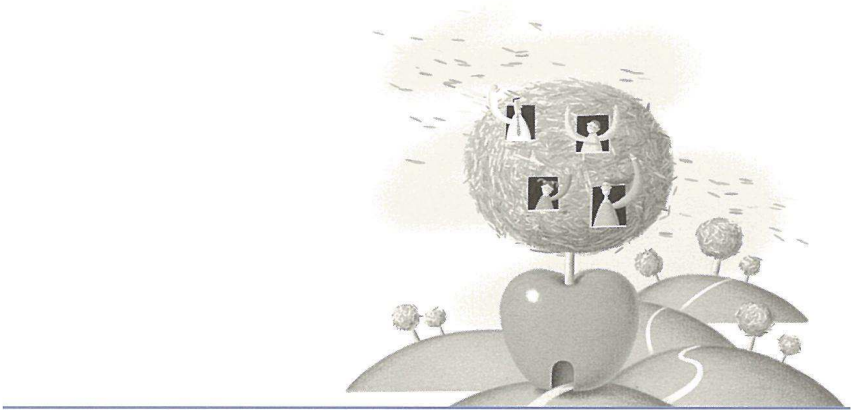
현장조사 체험 사례집



통계는 복잡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통계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진솔한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업의 정보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응답을 기피하거나 불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현장에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통계조사원들의 애환이 있습니다.

응답을 거부하는 응답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문전 박대를 받으면서도 설득을 위해 열 번 스무 번 문을 두드리는 우리 조사원들의 애환을 이해해주시고, 이 책이 응답자와 통계조사원간 공감대를 확산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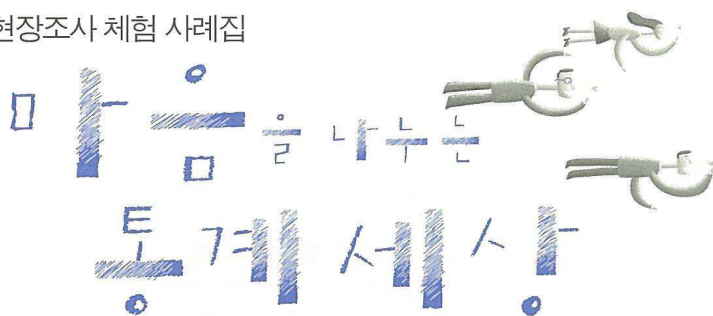
옛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통계를 아무리 멋진 분석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기초 자료가 부실하다면 통계로서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통계의 기초 자료는 응답자의 진솔한 응답과 통계조사원의 열정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특히 응답자의 성의 있는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통계조사원이 여러분의 사업체나 가구를 방문할 때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통계생산이 현대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글을 남겨 주신 응답자와 통계조사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통계조사 환경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2008년 12월

통계청장 김 대 기



조 사 관

백복남	알곡과 쪽정이	10
이경숙	가계부 회수율 100%가 되기까지...	16
정순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23
박상미	어머니~ 국화꽃이 활짝 피었네요	28
조정희	어둠내린 주전 고갯길	33
정우영	표본농가를 내편으로 만들어야 산다. 정확한 통계조사 표본농가 내편만들기	38
조현정	천사의 나팔	45
김인전	통계영업사원 파이팅	51
이명철	동초꽃의 유채꽃으로의 화려한 변신	59
김경숙	어느 비오던 날의 특별한 인연	64
김의수	응답자는 왕이다	72
송영섭	응답안하면 실사나올 수있나요?	77
양현정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	81
이현숙	아직도 현재진행형!	87
최소연	못말리는 가족들	93



장선일	양치기 소년을 만나다	104
문미진	통계인으로 살아가는 길	109
정현희	단감 두봉지에 담긴 서툰 화해의 손길	116
강명호	가을을 마시고 사랑을 마시고	123
김금녀	잊을 수 없는 숫자 98.2%	130
이소영	최고의 응답자간담회	135
김미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다	150
김목식	통계님께 (부제: 일계부작성을 해야하는 100가지 이유)	158
김용민	처음 접한 농업통계조사 중심으로	164
장영향	기업활동 실태조사 현장조사 정도제고 사례	171
김경숙	뽕뽕이 김순경	178
김미정	행복한 이야기 넷	184
조세형	노력하는 만큼 대가는 돌아오더라	189
김진경	마법사가 살고 있는 오즈의 세계로	217
방대홍	아~ 「chicken hip- jam house」	224

마음을 나누는 통계세상!



응답자

이승석	농·축산업인을 위한 조사항목이 신설되기를	230
박정미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	234
이규완	나는 남자전업주부다.	238
이상자	우리 집 행복의 발판	241
서연미	가계부를 통해 느낀 부모님의 사랑 ^^	245
고태원	통계청 일을 하면서...	248
정희봉	농가경제와의 동거	250
정미옥	추억이 되는 가계부	253
백은희	또 다른 책임감	256
박말수	알뜰한 생활의 시작은 가계부	260



통계를 나누는

|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통계조사

조사관

알곡과 쭉정이



대구경북지방통계청 / 농수산조사과 / 백복남

유난히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쬘던 지난여름 초록빛 들판을 헤매고 다녔는데, 그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걸 보니 이젠 가을을 말하는 것 같다. 내가 통계와 인연을 맺은 것도 3년 전 이맘때쯤…….

통계가 뭔지 통계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아파트관리실 앞 게시판에 붙은 2005인구주택총조사에 조사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처음 보게 되었다.

30대 후반으로 막 들어선 아줌마가 직장생활을 한 지가 13여년이 흐르고 사회가 어떻게 바뀐 지도 모른 채 집안 살림만 하던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을 찾고 싶은 마음에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반, 두려움 반으로 동사무소에 지원서를 내게 되었다. 합격통지를 받고 어느 시험합격보다 더 기쁜 마음과 잘 해낼 거라는 자신감백배로

나 자신을 위로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나의 생각과 달리 쉽고 수월하지 못했다. 한 가구 한 가구 방문하여 눈물범벅이 된 조사표를 완성해 가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밤길을 동행해 주며 위로해주는 남편의 도움과 우리 아이들에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마칠 수 있는 꾀꿀한 엄마로서 본보기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을 끝냈다. 그 일을 계기로 뭐든 부딪치면 할 수 있다는 조금의 자신감과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경제적인 재미(?)를 느끼며 여러 가지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임시조사원으로만 일하던 내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008년 2월 기간제조사원에 합격한 것이다. 올해 설날이 지나고 첫 출근하여 농가경제조사를 맡게 되었다. 처음이라는 말은 항상 설레듯 첫 출근, 처음 만나는 사람들, 처음 맡게 되는 일들, 모두 다 기대감 그 자체였다. 조사구의 위치와 각 가구의 특징, 가족관계 등을 전해 들으며 전임직원과 함께 처음으로 조사구를 방문하던 날, 대구에서 한 시간여 달려 간 표본조사구는 새 하얀 비닐하우스만이 짝 펼쳐진 참외주산지 성주였다. 인사드리러간 각 가구는 이웃아저씨, 이준마 같은 푸근한 인상을 지니신 그다지 연세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었다. 요즘 농촌은 고령화로 연세가 70~80대 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는데 성주는 참외 농사로 인한 고수입으로 다른 농촌보다는 대체로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다. 첫 방문은 기분이 참 좋았다. 젊은 분들이 많아서 일계부 기입은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농촌이라 농촌에 가면 왠지 마음이 푸근

하고 편안해지며 시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 부모님 같은 마음에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상대도 그 마음을 받아 줄 거라
 믿었기에 각 가구를 방문할 때면 자식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 대하듯 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마음의 벽이 없어짐을 느끼는데, 유독 한 가구만은
 그렇지가 못했다. 가구를 방문할 때면 눈길조차 주지 않고 경영주인 아저
 씨는 아예 방에서 나와 보지도 않는 것이었다. 전임직원으로부터 그 가구는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표본이 교체되고 짧은 기간에
 전임자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다.

이웃에서는 일명 왕따(?)에 의처증이 있는 사람이라며 항상 부부가
 함께 다니고, 마을의 경조사는 물론 주민들과 이야기조차 나누지 않는
 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이 조사에서 빼 달라며 자기 집에 누가
 오는 것도 싫고, 조사해 가면 세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자기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 더 싫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난후 방문할 때
 마다 그 집문 앞에서 망설이다 어렵게 들어가 이것저것 설명해드리며
 세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사에서 빼달라는 말씀만은 말아 달라고
 부탁해 보았지만 조사경험이 부족한 나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아빨싸!!!!!!

‘나에게도 올 것이 드디어 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 갈수록
 걱정이 쌓여만 가고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만 했다. 이제 와서 표본을 교체
 해야 하나? 이 일을 어쩌나? 하며 걱정하던 찰나에 2008년 여름 어느 날,
 응답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니, 꼭 나오셔서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시라는
 말과 함께 초대장을 나눠드리면서 저렇게 쌀쌀한 분이 당연히 간담회는

참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고맙게도 부부가 나란히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다. 미리 팀장님께 그 가구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설득을 부탁드렸다. 다음 날 팀장님께서 그분들은 신앙심이 돈독한 기독교가정인 것 같으니 주제를 그쪽으로 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셨다. 며칠 뒤 가구를 방문하여 아주머니와 이야기 도중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도 교회에 나가시고 큰형부도 서울에서 목회자로 계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방에 계시던 아저씨가 나오셔서 나에게 “지금은 교회에 가지 않지만 곧 구원 받아 주님께 나가게 될 것이다.”라며 이런저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두 시간정도를 하셨다. 그날 이후 가구를 방문할 때면 항상 방에서 TV만 보고 계시며 내다보시지도 않던 아저씨가 내 목소리가 들리면 TV를 끄고 다가와 앉으셔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며 쌀쌀하고 어려웠던 아저씨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우에 어긋나지 않고, 인정이 많으며 성실하고, 생활이 검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이웃에는 함께 공감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었던 것 같았다. 그 아저씨에게는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일계부를 들춰 보지도 않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여쭙보고 적었지만 이제는 영농일지에 명필이신 글 솜씨를 자랑하듯이 꼼꼼히 적어주신다. 내년부터는 일계부를 직접 적어보도록 권해 볼 생각이다. 갈 때마다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한 두 시간 들어주며 시간을 보내지만 조사만 가능하고 잘 된다면 듣기에 조금 지루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몇 시간 들어주는 것이 어떨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여름을 돌이켜 보면 작물재배현황 조사하러 다니다 논두렁에 차가 빠져 동네 분들의 도움을 받은 일, 좁은 논둑길 걷다 뱀에게 놀라 물 잠긴 눈에 빠져 허우적대며 옷 다 버린 일, 참외하우스 지나 다니다 수정용 벌통을 보지 못하고 건드려 벌떼 공격 받으며 도망 다닌 일 등등…….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왜 모두가 좋은 추억으로 남는지……. 한 시간여 가야하는 장거리라 운전이 서툰 나는 처음엔 ‘오늘도 어떻게 가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차에 올랐지만, 이젠 혼자 보내는 시간에 이것저것 할일들을 챙기고 만날 얼굴들을 생각 하며 즐겁게 다니고 있다.

농가경제조사는 일년이면 싹을 틔우고 이년이 되면 줄기가 나고 삼년이 되면 잎이 나고 사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오년이 되면 결실을 거둔다는 말을 들었다. 그만큼 농가경제조사가 힘이 들고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다. 조사를 시작한지 일년이 다 되어간다. 몰랐던 일들을 조금씩 알아 가고 익히며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며 하는 일에 재미와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통계는 역사를 숫자로 기록하는 거라 하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나 통계조사는 발로 직접 뛰어다니고 몸소 현장을 체험하며 느껴 서로를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바른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0년을 설계하고 100년을 선도한다는 말과 같이 탄탄한 밑받침으로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가을은 봄에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다. 나는 아직 결실을 맺을 시기는 아니지만 지난 몇 개월을 뒤돌아보며 잘잘못을 생각해 본다.



♣ 아직 하우스비닐 철거 중이에요.



♣ 앙상한 철골만 남은 들녘
(제가 조사하는 조사구랍니다.)

참외 시설단지 대체로 1980㎡(600평)을 하우스 한 단지라하며 한 단지에 3동의 하우스를 설치한다. 지금(10월 중순경)은 한 해 농사를 끝내며 하우스 비닐을 철거하고 내년 농사를 위해 준비 중이라 앙상한 철근만 남아 있다.

31-32

지 출 표

31-32

구분	내 용	단위	단 가 (원)	총 계 (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1-32

지 출 표

31-32

구분	내 용	단위	단 가 (원)	총 계 (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아저씨께서 직접 적어 주신 9월분 영농일지예요.
(영농일지 181호??)

가계부 회수율 100%가 되기까지...



부산울산지방통계청 / 사회조사과 / 이경 숙

통계청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어가지만 연동표본지역으로 조사 구역이 바뀔 때면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더군다나 새로운 조사구로 일하러 나가기 전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아 내내 뒤척이게 된다.

새로 시작된 조사구에 도착해보니 충무동의 새벽시장 근처에 있는 지은 지 30년이 넘는 낡은 11평 아파트였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따라 날씨도 춥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긴장감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가 있는 상태였는데, 선입견이지만 조사구가 시장과 인접해 있어 사람들이 더 바쁘고 냉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조사대상 가구들의 기본정보를 보니 노인가구가 대부분 이었고 독거노인 가구도 꽤 있었다. 또 결혼가정, 장애인 가구 등 각양각색

이라 외부인에 대해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 걱정이 되어 선뜻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지기도 했다.

실제로 조사대상 가구들을 방문해 보니 아나나 다를까, 첫 집부터 낯다 고함이 떨어졌다.

“누고?!”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찔끔 겁을 먹었지만 용기를 내서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 보았다.

“어머니~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라꼬?!!”

“통계청 직원입니다. 어머니~”

“통계청? 그기 뭐꼬?”

머릿속에서는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되고…….’로 시작하는 설명이 자동적으로 떠올랐지만, 할머니께 그런 설명을 해서 효과적인 설명이 될 리 없지 않은가. 최대한 쉽게, 통계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려니 아무래도 실생활과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었다.

“어머니 텔레비에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고 내렸고... 이런 거 말해 주지예?”

“그래.”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해서 나라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다 아닙니까.”

“어머니가 가계부를 작성해서 주시면 그게 다 자료가 되어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나!?”

처음에 나왔던 고향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드러운 목소리가 느껴졌다. 이제 조금만 더 설득하면…….

“근데 나는 글을 모르는데 우짜노.”

“그러면 어머니께서 불러 주시면 가계부는 제가 적으면 되지요.~”

이리하여 첫 집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설득을 할 수 있었다. 혹시 나머지 집도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쉽게 가계부 작성을 설득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집을 시작으로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다.

‘나는 당뇨라서 앞이 잘 안 보인다.’며 문도 열어주시지 않는 할머니, ‘늙은 할매를 조사해서 뭐할라꼬!’ 하며 고향만 치시는 할머니,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에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온다며 도저히 여자 혼자 버는 살림에 바빠서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아주머니 등 각양각색의 반응으로 거절을 해 오셨다. 설상가상으로 일이 바빠서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꽤 있었다.

특히 아무리 문 밖에서 신분을 밝히고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려도 문조차 열어주려고 하지 않는 가구가 몇몇이 있었다. 결국은 그 동네 반장

님께 협조 요청을 해서, 반장님을 대동하여 방문하고 나서야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실 정도였다. 처음부터 그런 반응들을 접하니 저절로 어깨에 힘이 빠졌지만, 이 정도에 조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부족한 게 많은 나지만, 성실함을 내세워 꼭 조사가구들을 설득하고야 말리라는 각오를 한 번 더 다져본다. 언젠가 어가 조사업무에서 어촌계장님이 ‘진드기’라는 명예(?)로운 별명까지 붙여 주셨던 내가 아닌가, 다시 심기일전하여 한 집 한 집 성심성의껏 방문하며 조사에 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설득하는 나날들이 이어졌다.

이번 조사구에는 특히 노인들이 많았다. 처음에 ‘늙은 할매를 조사해서 뭐할라꼬!’ 하시며 호통만 치셨던 할머니들께 매일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 드리는 것으로 설득을 시작했다. 딸처럼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며 매일의 안부를 챙기고, 좋아하는 음료수며 담배, 사탕도 틈틈이 챙겨드렸더니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 보이셨다. 할머니들께서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 가계조사를 하려면 매일 방문해서 오늘 무엇을 사셨는지 묻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로 조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해 주시겠다는데 그 정도 고생쯤이야.

그 밖에 불응가구들 중에서도 매우 완고하게 조사에 불응한 가구가 있었는데, 한가구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녁에 몇 번이나 세탁물을 승용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 가 맡기며 설득을 해 보았지만 좀처럼 가계부를 써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가 오늘 무엇을 사셨냐고 물어 보고 받아 적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날들이 한동안 이어지고 나서야 ‘가계부 내가 한번 적어 볼께’ 하시며 매일 오는 건 그만두라고

하신다.

한편 세탁소를 하는 가구와 마찬가지로 매우 완고하게 조사를 거부하는 가구가 하나 더 있어 애를 먹었다. 이 가구는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개(犬)로 구성된 3인(?)가족이었다. 첫 방문 때부터 가구주께서는 ‘마누라 없이 혼자 사는 사람한테 무슨 가게부를 적어 달라고 하나.’며 버럭 화를 내며 상대도 해 주지 않았었다. 다음번에 또 찾아가도 ‘나는 사먹는 것도 없고 바빠서 못하겠다.’며 문도 열어 주지 않고 강력히 불응의 의사를 표시하여 난감할 따름이었다. 그 이후로는 방문을 해도 가구주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시는지라 얼굴도 보기가 힘들었다. 가구주가 없어도 매일 방문해서 아들에게 과자를 사다주며 같이 먹고 얘기만 하다 오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몇 번이나 소득 없이 과자만 먹고 오던 끝에 하루는 드디어 가구주를 만날 수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조사원이 귀찮기도 하고 안됐기도 한지, 이전과는 달리 별 말씀이 없으셨다. 하지만 그날도 역시 설득에는 실패해 나오려고 하자 웬일인지 나를 다시 부르셨다. 15년간이나 키운 개가 많이 아파서 밥을 먹지 않는다며, 훈제 닭을 배달시켰으니 먹고 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보여준 호의적인 태도에 거절할 수도 없고, 개를 위해 시킨 훈제 닭을 개와 함께 먹으려니 기분이 좀 묘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올 수밖에……. 그리고 그 날 그 개(犬)와 함께한 식사(?)가 계기가 되었던 건지, 이후로는 가구주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져서 결국에는 가게부 작성을 설득할 수 있었다. 나중에 그 일을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하니 ‘가게부 해달라고 설득하다 안 되니까 개밥까지 먹었냐.’며 웃는

것이였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집에서는 자주 그 얘기로 나를 놀리지만, 결과적으로 조사 협조를 얻어 내는 계기가 된 사건이니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기만 하다.

그 밖의 불운 가구들에도 끈질기고 성실하게 설득해 보았지만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가구도 없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5월 15일에는 ‘응답자 초청 간담회’를 열어 식당에서 과장님, 팀장님을 모시고 조사구의 어머니님, 할머니들을 초대해 조출한 행사를 가졌다. 정성껏 대접한 한 끼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했는지 이 행사 이후에 가구들의 반응이 한결 협조적으로 바뀌었다. 이리하여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가계부 회수율 100%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 조사구에 익숙해지고 정이 들어가면서 친숙하게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는데, 특히 조사 초반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반장님과는 지나갈 때마다 반갑게 안부를 묻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하루는 반장님께서 나를 보자마자 하소연을 하셨다. 반장님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취직을 하려는 의욕이 부족한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는 것이다. 보다 못해 너무 화가 나서 “통계청 이준마 본 좀 받아라!!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하고 하며 소리를 치고 나오셨다고 하셨다. 물론 같이 걱정해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이나 성실한 모습을 보여 드렸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커다란 보람도 느꼈다.

요즘도 나는 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전화로 가계부를 받아 적고

있다. 이제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전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식사는 하셨는지, 오늘은 무엇을 하실 건지……. 특히 요즘은 할머니들께서 의료기 회사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 시기에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냐고 꼬박꼬박 여쭙어보곤 한다. 처음에는 화만 내시던 할머니들이 이제는 ‘어제 뭐 사셨어요?’ 하면 ‘감자 천원, 고등어 삼천 원 샀다.’ 고 빼먹지 않고 불러주시게 되었다.

이제 가끔씩 때를 놓치거나 집에 안 계셔서 연락을 못 드렸거나 하는 날은 ‘왜 전화 안 했노.’ 하시며 안부를 되물을 정도로 다정하게 대해 주신다. 지난번에 팀 워크숍을 갔을 때도 내장산에서 전화를 드려 ‘어머니 오늘은 사무실에서 연수를 와서 내장산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내장산까지 가서 전화를 하나면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하시며 걱정까지 해주신다.

늘 찾아 뵈 때마다 ‘우리 딸 왔냐.’ 며 음료수도 주시며 반갑게 맞아 주시는 할머니들이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는 나에게는 내심 얼마나 살갑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조사를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가끔은 힘들기도 하고 가계부 회수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조사구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이 늘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게 되는 원천이 되는 것 같다.



또 다른 조사구의 가계부 회수를
100% 성공을 위해…….

오늘도 화이팅!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인천통계사무소 / 사회조사과 / 정 순 이

일상의 눈앞에서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리면 우물 안 개구리라는 걸, 그 우물 안 을 벗어나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나니 가장 높이 나는 새만이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다가 1995년, 200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참여를 계기로 2001년부터 인천통계사무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음 일을 시작해서는 나도 남들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즐겁고 행복했지만, 조사구 응답자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드는 그 기분은 행복한 만큼 큰 슬픔과 허무함으로 나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곤 했다. 그렇게 좋은 일, 나쁜 일들을 겪으면서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 입사 이래 계속해서 경제조사과 일만 해오던 내가 올 7월부터 업무변동에 의해 사회조사과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게 되었다. 솔직히 나에게는 생소한 가구 상대의 조사업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고, 사업체의 직원들만 상대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구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마음에 큰 부담이었다. 더군다나 내가 인계받아 조사를 해야 하는 조사구가 연동지역이어서 업무인수도 다 받기 전에 당장 7월부터 가계부가 나와야 하는 지역이었다.

사실 그땐 조사구의 모든 응답자들과도 완전히 인사를 다 나누지도 못한 상태여서 눈앞이 깜깜하고 그저 걱정만이 앞설 뿐이었다. 그래서 처음엔 속도 많이 상하고 두렵고 자신감이 없었다. 가구조사에 대한 기본 사항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큰 난관을 헤쳐 나갈까? 많은 고민과 생각을 반복하다가 나름대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렸다. 결론은 이유를 불문하고 몸으로 부딪쳐 보자였다.

우선 처음으로 도전을 시도한 건 운전 이였다. 그동안 장롱면허로만 소유하고 있던 나는 어렵게 남편을 설득해서 운전연수를 시작하여 단기간에 연수를 마치고, 가계조사라는 실전에 임하게 되었다. 그 많은 답례품을 실어 나르는 동안, 한편으론 한창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남편은 버스,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 했다.

첫날, 낮 설은 첫 조사구를 방문하여 연동지역의 가계부 대상가구들에 대한 기록부를 다 작성하고 돌아서 운전대를 잡으니 덜덜 떨리는 가슴은 어찌할 수 없었고, 사무실에 돌아와 다음 조사구인 연희동에 남은 답례품을 모두 싣고 두 번째 조사를 위하여 마음을 채 기다들을 정신도 없이 향했다. 낮에 가서 없으면 방문증을 남기고, 6시 퇴근 후에 다시 방문

하여 답례품을 드리면서 한 가구, 한 가구씩 나로서는 아주 새로운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정말 고마운 일은, 어두운 밤길 초보운전 때문에 남편이 운전을 많이 도와주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 역시 피곤할 텐데, 그래도 나를 꼼짝이 생각해주는 건 남편 밖에 없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하나 가득일 뿐이다. 사무실에서 먼 거리이며 연동지역인 연희동 조사구에는 조사구 특성상 매일 두세 번씩 방문을 계속하여야했다. 지겨워서 응답한다는 어머님도 계셨고, 정성이 가뜰하다는 언니 같은 어머님도 계셨다. 올 여름은 왜 그리도 무더운지! 또한 7월 장마철, 특히 주말마다 왜 그리 비가 내리던지……. 그래도 곳곳하게 조사구 가구를 방문했다. 한 손엔 우산 들고, 옆구리에는 가구명부 끼고, 또 한 손엔 답례품만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복숭아 한 상자 들고……. 그런 나를 보며 주말까지도 쉬지 못하고 다니라며 비 오는데도 왔냐고, 어이없다는 표정들을 지으면 서도 종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 주셨다. 그렇게 7월 중순쯤 되면서 1구역 5가구 중 3가구가 가계부를 써 주셨다. 그러나 이 실적이 나에게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서운했지만, 일단 첫 수확에 대한 마음에 여유를 갖고 한결음씩 나가기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채찍질 한다.

11월이 왔다.

4개월이 벌써 훌쩍 지나버렸다. 지나간 시간만큼 나는 조사구의 응답 자들과 두터운, 친한 인연을 만들어 왔다. 이제 가계부도 90%라는 회수 실적을 얻었다.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나는 조사구의 젊은

엄마들에겐 언니가 돼 주기로, 나이 드신 어머님께는 딸이 돼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과일 하나, 빵 하나를 나누어 먹어도 나의 응답자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전혀 아깝지가 않다. 지나고 보니 그 분들도 알고 보면 나 이상의 애환과 고달픔이 있는 사람들이다. 석남동 영우 씨는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빨리 건강해져서 활기찬 젊은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고, 산곡동 여계순 할머니는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할아버지의 지극한 병간호에 빨리 병석을 훌훌 털고 일어나시면 좋겠고, 연희동에 새로 이사 온 명원씨도 장애가 좀 덜해져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항상 나를 웃음으로 맞아주는 미순씨도 아프지 않고 매일매일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빨리 되찾았으면 그 또한 고맙겠다.

이제 4개월째 가구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현명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와 생활의 지혜를 나는 이 가계조사를 통하여 얻었다. 사실 난 내 생활이 다른 사람들 보다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욕심도 많이 부리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에 배려가 적었던 거 같다.

하지만 조사구에서 많은 어머님, 아버님, 동생,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니 오히려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있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다.

오늘도 반성한다.

점손을 배운다.

그리고 나에게 일 할 수 있는 지금의 이 환경이 고맙다. 건강하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생활 할 수 있는, 식구들이 기다리는 보금자리와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함께하는 직장이 있어 행복하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 간다는 게 자칫 상처와 상처끼리 만나서 서로 부비며 살아가고, 그것이 약이 되어 행복을 찾기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작은 것부터 느끼는 것이라고,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다. 나는 조사구의 모든 분들과 앞으로도 희·노·애·락을 함께 할 것이다.

높이 나는 새는 도전하는 새다.

나 스스로가 자각 할 때가 시작이다.

새로운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래야 뜻한 바 그 꿈이 이루어진다.

제는 사회조사과에서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를 숙지하고, 가계부 부호기입을 하고…….



나에게는 천사와 다름없는 나의 조사구 응답자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국화꽃이 활짝 피었네요.



전북통계사무소 / 군산출장소 / 박상미



땡땡땡~

“어머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국화꽃이
활짝 피었네요. 어머, 따님 오셨
어요? 따님도 어머님 닮아서
미인이시네요”

요즈음 가게부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면 대문을 열어 젖히고, 들어
오라는 말도 듣기도 전에 스스럼없이 제 집 넘나들 듯 안부를 물으며 거실로
직행하여 가게부 꺼내서 요것저것 온갖 것을 물으며 적어두기가 바쁘다.

대상가구의 어머님도

“시간이 술창이 됐그만 식사는 했어? 안했으면 같이 한술 뜨고~ 돌아
댕기는 사람이 날도 찬디 감기는 안 걸렸지? 조심혀~” 등 이것저것 내 안부
를 물으시곤 과일 한 조각 건네시며 나를 반가이 맞이해주신다.

통계청에 기간제로 조사업무를 시작한 지 올해로 2년이 갓 지났다.

예전에 조사했던 모습과는 다른 현재의 내 모습이 자신을 되돌아
보면 너무나 여유롭고 예기치 못한 놀랄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처음 가구를 방문 했을 때는 너무도 떨리고 낮은 가구로부터 나오는
불친절한 모습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어 방문 자체가 여간 힘든 게 아니고,
꼭 조사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앞서서 업무를 쉬는 날조차도
심적으로 편치 않았다. 내가 맡은 조사구는 단독가구위주의 생활정도나
가능한 작은 평수의 보증부 월세 지역으로 여느 서민들의 사는 모습과
달리 어렵사리 생활을 꾸려가는 가구가 많았다.

9월에 첫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가계부를 쓰는 조사라고 해서 단순히
‘일단은 수입 지출만 써달라고만 하면 별 어려움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는데 그것도 생각과는 달리 녹록치가 않았다. 첫 번째 넘어서야할
관문은 문이 안 열린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보고 소식이
없어 혹시 벨이 고장이라도 났나 싶어 문도 조심스레 두들겨보고, 아무리
불러 봐도 문 안쪽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창문에서는 분명히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고, 저녁식사를 마치셨는지 설거지 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가 들리는데도 대답도 없다. 여러 차례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해
애가 탈 무렵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냅다 뛰어서

현관문 여는 할머니를 붙잡고, 통사정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할머니 말씀이 딸네 집인데 딸이 힘들어 할머니가 가진 현금과 패물을 다 팔아 보증금 2천만 원을 만들어 집을 얻어주셨으며, 할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서 행여나 임대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알면 안 되니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통사정을 하는 내 얼굴을 보며 마지못해 따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

딱한 사정을 알고 행여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까 조심하며 따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귀찮다며 일절 면담을 거절했다. 답례품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시도해보았지만 역시 막무가내다. 그래도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출입구 자체가 앞뒤로 있어서 어느 쪽으로 들어 오실지 몰라 아예 가구 현관문 앞에 쭈그리고 1시간 내지 2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아파트가 복도식으로 창문이 없어서 복도에서 가구가 퇴근할 무렵 기다리고 있으면 초겨울 날씨로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 떠는게 다반사로 그때마다 여지없이 가구가 늦게 퇴근하여 만나지 못해 감기를 달고 살았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들렀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저녁 9시 즈음해서 재방문을 해서 너무 늦은 시각까지 기다린 덕분에 차가운 밤바람에 독감이 들어서 몇날 며칠을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럴 땐 그 가구가 너무나 야속하여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학원 비라도 보텔 심산으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서 해내고 싶었던 맘이 커서 이 악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 나도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구가 밉기도 미웠지만, 사정이 안 좋아 피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구를 지나는데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전자가계부로 설득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벨을 눌렀는데 아저씨가 미안했는지 문을 열어주셨다. 아저씨께 나는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가계부 쓰는 표본지역이라 부탁 좀 드릴게요~. 전자가계부에 수입지출 내용만 기입해주시면 얼마간의 사례금도 드려요.”

궁한 생활형편에 아저씨는 얼마간의 사례금 얘기를 듣고 마음이 동했는지 자신은 없지만 써보겠다며 반 승낙하셨다. 정말이지 이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제 겨우 가계부 한 권을 설득한 것이지만, 내가 뭔가를 이뤄냈다는 성취감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조금 생겨서 행복했다.

그 일을 계기로 새로 전입한 가구나 불용가구가 생기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자신감 갖고 꾸준히 설득하여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 통계조사원으로써 지내오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결과가 다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기면서 불친절한 불용가구를 대할 때도 처음 일을 맡았을 때에 비해 급하기만 했던 맘에 여유가 생겼다.

새로 전입한 가구의 경우 가계부 얘기를 꺼내면 고개를 흔드신다. 그러면 나는 현재 완성된 어느 가구의 가계부를 펴 보인다. 할머니가 쓰신 뽀뽀뽀뽀한 글씨가 큼지막하게 가득히 적혀있는 가계부를 내보이면 처음 본 사람도 그 글씨에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모양인지 설득

하기가 조금 수월해 지곤 한다.

밤낮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기름값, 환율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먹을 거리인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수입원가의 상승으로 물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서민들의 생활은 건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요즘 현장에서 직접 면담하는 조사 특성상 조사자체가 힘들어 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체감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민들의 경우 방문 자체가 부담스러운 정도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해주겠다고 나서시는 할머니님 같은 분들도 계신다. 그런 분들을 뵈 때마다 내가 맡은 조사를 성실히 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통계조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오늘도 나는 또다시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선 조사가구 마당 한편에 활짝 핀 국화꽃을 보며 다짐해 본다. 나도 저 환한 국화꽃처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통계마당 한편에 작은 힘을 보태는 일이라는 자부심에 가슴을 활짝 펴본다.



어둠내린 주전 고갯길



부산울산지방통계청 / 울산출장소 / **조정희**



어둠이 내린 주전 고갯길을 넘는
나의 입가엔 웃음이 번지며 작년 이맘
때를 떠올려본다.

어가 표본개편으로 새로이 선정된
조사구 정자와 어물동.

8월의 한낮의 기온이 30~40도를 넘나들 때 요도와 명부를 들고 집집
마다 어가를 파악하고 10월부터 어가로 선정된 집을 설득하여 일계부를
부탁 아닌 사정에 사정을 하며 다니던 몇날며칠, 외판원 취급을 받으며
밀려나 보기도 여러 번 욕도 심하게 얻어먹었다.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특별이 애착이 가는 어물동 조사구.

주전 바닷가를 끼고 어업과 농업을 겸하는 조사구로 어로 어업보다 양식미역을 많이 하는데 1가구가 완강히 불응하여 대체를 받는데 ‘제발 반발이 없기를…….’ 고대하며 대체할 집을 방문하니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과 지하 창고에 빨간 고추로 가득 차 있었다. 고추를 손질하고 계시던 부부는 참으로 인자해 보여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어가 일계부에 대해 설명하니 처음엔 머뭇거리시더니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함 써보지.” 하며 OK를 해주셨다. 처음에 너무 순순히 승낙해 주신 탓일까!

1주일에 한번씩 방문하여 기입지도를 하는데 배우자께서 우리가 사정이 있으니 올해까지만 써주고 내년에는 다른 데 알아보라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인즉 아저씨 몰래 쓰는 돈이 다 들통 난다며 완강하게 거부하시는데 취업자인 아들의 지출내역 기재는 설득도 못했는데 아~ 어쩔 종단 말인가! 머리가 갑자기 아파왔다.

첫 기입 지도를 할 때는 웃으며 “아이구~, 어머니 와 이러십니까, 좀 봐 주이소~” 하며 애교 아닌 애교를 떨고 더욱 심한 불응이 뿔까봐 바로 나왔다. 그래서 어머니만 계실 때만 방문을 해야지! 생각하고 있을 때 쯤 기회가 왔다. 어수룩한 저녁 무렵이었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마루에서 이불것을 잡고 계셨다.

옹커니 나의 장점을 발휘할 때가 왔다 싶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과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라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냉큼 바늘을 쥐고 한 땀 한 땀씩 정성들여 바느질을 시작하니 내가 봐도 야무지고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다.

아저씨가 승낙할 때도 옆에서 약간 언짢은 얼굴이셨던 아주머니였는데 마무리가 되자 저녁 때 됐으니 저녁 먹고 가라시며 “저녁에 일 있는 거 아이가?” 하시는데 실은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지만 그게 문제라~ “없습니더. 진짜 저녁 먹고 가도 됩니까?” 밥 먹는 게 뭔지 한 끼를 같이 먹고 나니 갑자기 정이 솟는 게...

밥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 중 기다리던 아들이 퇴근해 들어오는 게 야닌가! 어찌나 반갑던지. 같이 식사를 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제가 농어촌 일손 돕기로 이 집을 선정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하며 아들에게 운을 띄워 봤다. 부모님의 일을 덜어 준다는데 싫다할 자식이 어디 있나. “그래주면 고맙지요.” 하기에 바로 추진했다. 느긋하게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이번 일은 당장 추진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출근하여 나의 이런 상황을 설명하니 바쁜 업무를 뒤로하고 직원들도 모두 나의 일처럼 도와준다니 너무 고마웠다. 그 고마운 마음이 전달 되어서 인지 주변의 조사구 주민들도 예전에 비해 더 친밀도가 높아진 듯 마음이 따뜻해졌다. 물론 직접적인 그 가구는 말할 나위없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미역말리기를 해보는데 마른 미역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우리 신체의 허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비로소 알았다. 그날 저녁 일손을 도왔던 직원들 모두의 꾸꾸 소리가 조금 과장해 울산을 울린 것 같았다.



얼마 후 방문하니 아들이 야간근무라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나는 소리에 깬는지 “아지메 왔는교?” 하며 일부러 이는 척을 하고 “내 저번 때 큰 돈 썼심테이.” 하며 노트북 산거와 자질구레한 지출내역까지 얘기해주는 게 아닌가.

야호~~~!

이때다 싶어 보험이나 적금, 담배 값, 차 기름 값 등등 다 물어보고 나니 그때서야 머리 아픈 게 가시면서 일하고픈 의욕이 드는 게 아닌가!!

아들과 대화하면서 담배를 살 땐 목캔디를 산다기에 아들을 위해선 방문 때 목캔디를 사서 방문하고 아저씨에게는 물일이 많다보니 장갑이 많이 필요해 목장갑을 준비해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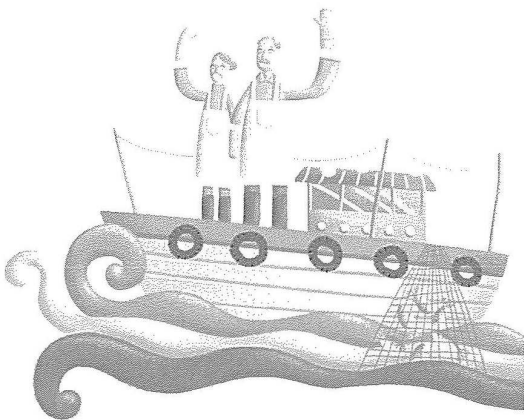
자주 방문을 하다보니 이렇게 내가 방문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오는 날이면 고구마, 감자, 고추, 참쌀, 고추장, 된장, 간장...정말 친정집에 다녀온 듯...



내가 한해 농사를 지은 듯 곡간이 푸짐해졌다. 이렇게 순조로운 일계부의 기입과 훈훈한 인심까지 얻을 수 있었던 건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을 텐데 직원 여러분이 도와준 밑바탕이 큰 힘이 되었고 무엇보다 농어촌 주민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따뜻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인 것 같다.

구름에 가리어진 요즘 날씨, 바람까지 차가운 어두운 날. 나의 조사구
어물통은 검푸른 바다 빛에 약간 비릿한 내음을 풍기며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소풍가는 날처럼 신이난다.

조사구 주민과 유대관계와 일계부만 잘 나오면 훌쩍언 날씨는 나의
마음의 날씨와 상관없다.



표본농가를 내편으로 만들어야 산다

정확한 통계조사,
표본농가 내편 만들기로부터



전북통계사무소/남원출장소/ 정우영

지인의 소개로 처음 경지총조사 일용인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순창출장소에서 6개월간 근무를 한 것이 인연이 되어 현재 통계청에서 농업경영체경영실태통계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지총조사 때 통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보니 매일같이 출장을 하고 무척 바쁘게 하루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시조사원으로 채용되어 조사를 하다보니 그때 왜 통계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냈는지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원출장소에서는 논벼 9호, 고추 2호, 시설채소 8호, 사과 2호, 배 1호, 한우 2호, 돼지 1호로 총 25호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경영실태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 표본농가수의 13%(25/184)에 해당됩니다. 2004년까지는 기간제 조사원이 없어 여러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2005년부터 기간제 조사원이 채용되어 기간제 조사원인 제가 남원시 18호와 순창군 3호를 맡고, 농업경영체 담당공무원이 순창군 4호를 맡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21호 중 8농가가 시설채소 농가입니다. 처음 인수인계를 받고 시설 농가를 방문하였는데 만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웃집에 물어 물어 하우스작업장으로 찾아갔는데 누가 왔는가 보기만 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농가를 내편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1년 동안 조사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표본농가 내 편 만들기 작전을 짜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조사항목이 있는 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 시설채소농가 농가별 하우스 지도 만들기

제가 담당한 시설채소 농가는 그 지역이 하우스 단지라 어떤 것이 어떤 사람 것인지 알 수가 없었으며, 농가별로 하우스가 10동 넘게 가지고 있어 재배작물은 물론이며 하우스 위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농가별 하우스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꼬박 2주일이 걸려 하우스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하우스 입구 하단에 락카 칠을 해서 더욱 찾기 쉽게 했습니다. 그 결과 경영주 만나기가 쉬워졌고 시간도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둘째 : 무조건 농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자

제가 담당한 시설채소 농가들은 대부분이 딸기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간혹 2~3개동에 감자를 재배하기도 하였습니다. 딸기 재배는 제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조사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아주머니 딸기 따는데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묻자 아주머니께서 “물론 손이 많이 가지……. 점심 먹으로 갈 시간도 없어……. 아침에 나올 때 밥을 싸가지고 와 작업장에서 먹고 있어.”라고 대답하면서부터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머니와 하우스 고랑에 마주 앉아 딸기를 하나씩 따면서 작업하는 일부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꼬박 1시간을 쪼그리면서 딸기를 따더니 다리에 쥐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획득한 정보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농가를 방문했을 때 그 집 에서 하우스 감자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경영주로 아주머니 세 분과 경영주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바를 벗고 박스포장을 시작했고 포장된 박스를 경운기에 실어 판매장까지 함께 가서 내려주고 돌아왔습니다. 농가에서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한두 번 하다 그만 두겠지.’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겨 더 열심히 이것 저것 도와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노력한 끝에 시설채소 농가들이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고, 귀찮다는 말이 속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되었구나 생각하고 영농일지를 내밀면서 기장내용을 알려주고 기장하면 좋은 점들을 많이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한번 적어봄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뿌듯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셋째 : 영농과 관련된 참고자료 제공하기

농가를 방문할 때마다 수박가격도 떨어지고 감자가격도, 딸기가격도 너무 떨어져서 농사일을 하기가 힘들고 거기다가 비료 비, 농약 비, 비닐 등의 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고 불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농가를 방문하기 전에 농사정보나 농산물 가격 정보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인터넷이나 관측 자료에서 찾아 농가에 제공하였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농가 중에서도 무 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면 먹을거리 걱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곳의 농가를 방문할 때도 그분들이 짓는 농사기술을 알려드렸더니 참고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고마워 하셨습니다.

넷째 : 농가에 지적도를 만들어 주자

경영체조사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표본농가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해 본인이 경작한 경지의 지번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할 때마다 지번이 달라지고 면적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표본농가의 협조를 얻어 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복사하였고, 사무실에 있는 지적도를 활용하여 농가별 지적도와 농지원부를 만들어 표본농가에 제공해주었습니다. 처음 접해본 농가들이 많아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반을 표시하여 표본농가에 제공한 지적도]

다섯째 : 농촌체험 및 일손 돕기를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자

요즘 혁신이라 사무실 직원들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고 농촌체험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계팀장님에게 부탁하여 농촌체험 및 일손 돕기를 추진할 때 경영체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농가별로 도와드릴 일들을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출장을 나가서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서로 도와달라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배 농가 봉지 씨우기와 고추농가 고추이식작업을 하기로 하고 2개조로 편성하여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1조당 8명씩 편성해서 갔는데 농가 경영주가 본인 생각보다 많이 왔다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절약하면서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잘해요.” 라고 하면서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섯째 : 농가에서 하는 말 무조건 들어주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자

표본농가와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바로 농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농가에서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30분 동안 정부, 농협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나면 쌓였던 것이 해소된 느낌인지 조사내용을 물어봐도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많은 불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농가를 방문했을 때 농가 경영주께서 몸이 아파서 약을 사러 가야 하는데 도저히 약국에 갈 시간이 없어서 약을 못 지어 드셨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약국에 가서 증상을 얘기하고 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갖다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방문하였을 때 경영주께서 지난번엔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대로 작은 보람도 느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제 수매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수매 일자와 담당 검사원, 수매품종 등을 알아내어 농민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표본농가가 수매장에 벼를 싣고 나오면 저는 수매장소에서 표본 농가를 도와 벼를 내려주기도 하고 좋은 등급을 맞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저의 이런 노력에 처음에는 잘 안 써주시던 분들도 다음에 방문할 때 영농일지 기장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 기록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채용되어 조사를 나갔을 때 막막했던 걱정들은 없어졌고 오히려 표본농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21호 농가 중 처음에는 1농가만 영농일지를 기장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12농가가 영농일지를 기장해주며, 나머지 9농가는 70세가 넘어 도저히 기장을 못하고 조사원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6월 19일에 출장소에서 표본농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차량이 없는 농가는 직원들과 제가 직접 모시러 갔으며, 간담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저희 업무가 무엇인지, 왜 조사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영농일지에 기록해야 하는지? 등 평소에 궁금하던 사항들을 질문하시곤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농가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간담회가 농가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해주는 가교제 역할을 해주고 직원들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점은 처음부터 조사 자료를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씩 조사내용을 물어보면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경영실태통계조사 결과가 책자로 만들어져 출장소에 내려온 것을 보고 마음 한 곳에 뿌듯함이 가득하였고, 좀더 열심히 노력하여 생산된 통계자료가 우리 농산물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의 나팔



부산울산지방통계청 / 사회조사과 / 조현정

천사의 나팔(엔젤 트럼펫)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
새롭게 시작될 조사구를 예비
조사차 방문하게 되었다.
언덕배기를 올라서서 쪽
이어진 거처들을 보며 빼질
빼질 나오는 땀과 함께 막막

함이 먼저 나를 막아선다. 아득하다! 요도를 보며 한 집 한 집 큰 숨 한번
들이쉬고 벨을 눌러보기도 하고 손으로 두들겨보기도 하지만 묵묵부답.
‘역시, 낮 시간엔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시금 깨닫고
뒤돌아서 나온다.

한참을 동네 어귀를 맴돌며 요도확인. 낡았지만 자그마한 연립이

예쁘게 들어앉은 마당에 들어섰다. 설레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첫 집을 방문했다. 다행히 어르신들이 계셨다. 현관문에 붙은 ‘○○교회’ 교패를 보고 내심 쾌재를 부르며 통계청에서 인구조사차 방문하였노라 설명하고 혹시나 거부당할까봐 단숨에 인구조사를 하였다. 느낌이 좋았다. 통장님택을 안내받아 주스 한 박스를 사들고 방문하여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나니 옛날 철도공무원이 많이 살던 연립이라고 설명하신다.

그래서 노년층에 무직이 많다고... 눈앞이 깜깜했다. 다행히 나동과 다동은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좀 살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조사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친절한 조언을 듣고 걱정이 앞섰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다. 연동이 쉬운 조사구가 어디 있던가? 젊은 사람, 경제활동이 많은 쪽을 찾아 가다보니 낮엔 도무지 사람구경을 할 수가 없었다. 낮엔 더위와 땀, 퇴약별에 시달리고, 밤엔 모기와 함께 잠복근무(?)를 하며 대상 가구원을 만나야만 했다.

어딜 가나 늘 듣는 소리, ‘왜, 우리 집이 조사를 해줘야하느냐?’, ‘나라에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귀찮게 하느냐’, ‘우리 집은 빼고 다른 집에 가서 해라’, ‘불경기에 힘들어죽겠는데, 약 올리느냐’ 등등. 마음을 가다듬고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활짝 웃으며, 그 힘든 마음에 공감한다는 뜻을 비쳐주며 설득작전을 하고 9월에 다시 뵙겠다고 각뚝한 인사를 드리며 나온다. 연동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매번 전쟁을 치르는 듯한 마음으로 완전군장을 해야만 한다. 어디서 날아올 비난과 욕설에도 꺾끗할 수 있는 마음의 무장! 아마도 세상이 너무도 살기 힘들어지고, 이웃간에도 불신이 팽배해져서 더욱 통계조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조사구심사를 받고 확정이 된 후 9월이 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해 다시 연동1구역을 방문하게 되었다. 연립 입구에 있는 게시판에 통장님 허락을 받아 통계청 포스터를 크게 붙였다. 처음의 낯설음은 사라졌지만, 무거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가게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답례품을 들고 첫 집 앞에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다. 두 번째 집, 미리 통장님께 정보를 알아둔, 부녀회장님 댁이다. ‘인상이 그다지 좋으신 어른은 아니시네.’ 긴 시간 설득에 반쯤 승낙을 얻고 뒤돌아섰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다음 집을 방문할 땐 앞집에서의 감정은 저 멀리 던져두고 다시 새 마음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다섯 집을 방문했지만, 만난 사람은 겨우 두 가구. 방문스티커를 여러 차례 붙이고 오면, 전화가 오는 가구도 있지만, 대부분 무시당하기 일쑤다.

며칠이 지난 오전시간, 방문스티커의 위력으로 면접을 약속한 가구에 충충히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갑자기 1층 부녀회장님 댁의 현관문이 확! 열리더니 “여봐요! 통계청!! 선물 준 것 가져가요. 너무 바쁘고 골머리 아프니까 가게부 같은 것 못 쓰겠어요.” 하신다. 불길했던 내 예감이 딱 들어맞았다.

순간, “네, 그러세요, 요즘 따님 결혼준비 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것 같았어요. 가게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가 조사구역이니까, 경제활동조사만 해주세요. 그리고 답례품은 제 것이 아니라, 어머님 드리라고 나라에서 주신 것이니까, 어머님 두고 쓰세요.”라고 웃으며 간이라도 내 줄 듯한 목소리로 인사드리고 줄행랑을 쳐버렸다. ‘이제 어떡하지? 벌써 하나가 실패네.’ 어깨에 힘이 빠진다. 하지만, 꾹꾹한 통계인이 아니

던가! ‘한 템포만 늦추자’ 하는 심정으로 약속한 다음가구를 설득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위층으로 옮겼다. 처음 7월에 방문했을 때 분명히 아저씨는 외항선타고 나가서 집에 없다고 하시던 아주머니, 경제활동인구조사차 다시 방문하여 조사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사생활노출은 전혀 없으시다는 설명과 전자가계부를 쓰시면 생활이 도움도 되고, 계획성 있게 생활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니, 동생 같고 친근해서 참 좋다고 웃으시며, 솔직히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고백하신다. 나도 언니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분이 생겨 참 좋다고 맞장구를 쳤다. 고맙게도 속내를 드러내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새 힘을 얻게 된다.

맞은편 201호는 만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처음 인구조사 할 때 딸에게 받은 전화번호로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 보았다. 어쩐 일인지, 전화를 받는다. 대뜸 “당신이 통계청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서 집에 있어도 문을 안 열어주고 없는 척 했어요.”라고 하신다. 아무리 전화를 붙들고 설명을 해보아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급기야 “좀 전에도 국민은행이라며 이상한 전화가 왔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통계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 거니까, 잠시 후 다시 전화를 하든지!”하고 전화를 끊어 버린다.

어떡하겠는가? 이렇게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세상이 웬수지……. 20여분이 지난 후 다시 전화를 드렸다. “선생님, 죄송해요, 아까는 기분 상하셨죠?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는 걸까? 앞집 언니 말대로 변덕이 많은 사람인가? 하지만 조사구에서 알았던 사실들은 모두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꺾꺾 감추기! 현관을 들어서니 거실 벽면 한 가운데 범복이 눈에 확 들어온다. “무슨 가운데예요?” 하고 물으니, “법원에 근무하던 애들 아빠 거예요.” 하신다. 딸과의 처음 조사 때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다. 울산에 직장 때문에 따로 거주한다던 남편과는 10년 전 이혼하고 딸 둘과 함께 살고 있고, 아이들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걸어두고 계신다고 하셨다.

요즘은 이혼이 부끄러운 건 아니라고, 어려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며 다시 내편 만들기 작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보면 참으로 순수한 사람들이다. 처음 냉랭하고 차가웠던 모습은 간 곳 없고, 사는 게 힘이 들어 모든 걸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니 괜히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통계조사하면서 편하게 잘 지내자고 인사드리고 나오니, 또 하나의 고민이 해결된 것에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예쁘장하게 생긴 새댁이 사는 가구에도 가계부이야기를 꺼내 둔 후라 다시 들렸다.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이 가계부 써서 규모 있게 살 수 있어 좋은데, 돈까지 주는 그런 좋은 것을 왜 안하겠냐고 적극적으로 쓰라며 매일 남편이 체크하겠다고 했단다. 너무나 감사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지만,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때로는 나의 인내심을 쪼개버릴 듯한 기세로 덤벼드는 무서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사는 정을 느끼게 해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도 내일은 있기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지금, 나지막한 연립의 화단에는 곳곳에 천사의 나팔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의 연동조사를 성공적으로 기원해 주려는 듯
 탐스럽고 환한 모습으로 주렁주렁 매달린 채 은은한 향기로 조사구 연립의
 현관 앞을 지키며 반겨주고 있다. 아직은 그다지 나를 반기는 이가 많이
 없지만, 내년 이맘때쯤엔 천사의 나팔과 함께 나도 활짝 핀 웃음으로 조사
 구를 방문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연동조사구 가족들을 모시고 전자가계부 작성요령 설명 중

통계영업사원 파이팅!



경남지방통계청 / 밀양출장소 / 김 인 전



“안녕하세요? 아버지님
통계청입니다. 잘 계시죠?
별 일 없으시구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네~ 다름이
아니라 내일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디 안 가실 거죠?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통계청 밥을 먹게 된지 2년차... 저의 이름은 ‘통계청’ 조사를 하면서
방문을 할 때나 전화할 때마다 “통계청입니다” 라고 인사하다 보니 어느새
제 이름은 ‘통계청’ 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힘들어 한다는 농가경제조사를 업무를 맡게 되면서, 한번도

그랬습니다. 마감날짜를 맞추느라 진전공공하고, 구표본에, 신표본에, 내검에 쫓기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버리고 ‘이걸 다 어떻게 하지?’ 했던 업무들도 끝나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저는 밀양출장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밀양이라는 낯선 곳에 출근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창녕’이라는 곳의 조사구를 맡게 되었지요.

기존 조사구도 조사원이 바뀌면 불응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는데 표본으로 설정 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조사원이 바뀌었고, 아파트 지역이라 농가도 많지 않은데다가,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출이 자주 일어나 대체가구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조사구였기 때문입니다.

$\frac{1}{2} \times \frac{1}{2} = \frac{1}{4}$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득대상자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경남지방통계청 밀양출장소 김인전입니다. 농가경제 조사 표본으로 선정되셔서 만나 뵙고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하우스에 계시죠? 하우스에 찾아가서 뵈려고 하는데... 위치를 말씀 해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뭘 조사? 농가경제? 와서 뭐할라고? 됐소.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바쁘니까 다른데 알아보소”

“그러지 마시구요... 일단 만나서...”

딸깍!... 뚜뚜뚜...

1차시도 실패.

“여보세요. 방금 전화 드렸던 사람인데요.”

“일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귀찮게 하네... 나는 통계청인지 나발인지 모르겠고, 시간도 없고 만사가 귀찮은 사람이니까 만날 필요 없습니다. 알겠소? 여기 오지 마이소. 안 와도 되니까.”

딸깍! 2차시도 실패.

여기서 물러 날수는 없는 상황... 어떻게든 찾아내서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이 넓은 하우스 지역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장님과 조사구 응답자 중 알만한 사람을 수소문하고 주변의 하우스를 찾아다니며 물어 물어서 결국 하우스가 수없이 펼쳐진 곳에서 응답자가 있는 하우스를 찾아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드렸던 통계청 조사원입니다. 찾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성의를 봐서라도 잠시 시간 내주세요.”

“아이구, 내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어요? 허참...”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힘들게 찾아왔는데 성의를 봐서라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참~내... 무슨 이야긴데 한번 해보기나 하이소. 도대체 통계청이 뭐하는 텐데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요?”

“네. 인구조사 아시지요? 인구조사 하는 곳이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인구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농가의 경제사정을 파악하여 우리 농업정책에 자료로 쓰이는 농가경제조사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 정부가 우리 농민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농업정책이요. 정책은... 농산물 가격은 떨어뜨리고, 농약 값이니 비료값이니 전부 올리지만 하면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세금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요? 통계인가 뭔가 그것도 하나도 안 맞드만... 됐소! 다른 집에

가보소. 나는 이런 거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현실을 자세히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네?”

“아이구, 이 아가씨 참~끈질기네. 그러면 빨리 하고 가소. 뭐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오늘 조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주 찾아뵙습니다.”

“뭐? 계속 온다꼬? 참 미치겠네... 안하면 안돼요?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 없구만... 여기까지 온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고...”

“아버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모르겠소. 일단 두고 가소.”

일단 성공!

저는 옳다구나 싶어 농가경제조사 안내문, 통계청 홍보자료와 함께 미리 준비해 왔던 답례품과 일계부등을 잘 보이는 곳에 넣어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물론, 신표본을 선정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건 아니지만, 이미 선정되어 있던 가구를 대체한다는 건 오히려 처음부터 선정하는 것 보다 부담감은 더욱 컸고, 그래서 매번 조사구를 가는 길은 멀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람들의 훈훈한 정이 남아있는 농가의 어머니, 아버님은 그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이 계속 되는 동안, 처음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우두커니 세워놓기도 하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하시고 속을 태우시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의 물음에 천천히 대답을 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그래, 왔나? 점심은 먹었나? 우리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와서 같이 묵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와? 우리랑 먹기 싫나? 같이 밥을 먹어야 정이 들제. 와? 부끄러워서 그러나? 우리 집에 오면 밥을 묵어야 한다. 안 먹으면 대답 안 해 줄 거다. 빨리 와서 묵어라”

“네~, 그러면 먹어야죠. . .”

그날 그 점심은 정말 감개무량(?)한 점심이었습니다. 우리말에 ‘한술밥 먹는다.’는 표현이 있지요. 그렇게 한술밥을 먹은 이후로, 비록 직접 일제부를 적어주시지는 않지만 어머니는 한결 부드러워 지셨고, 완강히 거부하시며 오지 말라고 하시던 아버님은 가는 곳 마다 영수증을 챙겨서 일제부에 꽂아두십니다.

통계조사원...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조사나 하고 다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고 막 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불신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 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 판매하러 온 사람들 대하듯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회의에 빠져들기도 하지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통계조사원은 쓸데없는 조사나 하는, 정부불신의 화풀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통계영업사원”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듯이, 통계조사원들도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 쓸데없는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 많은 응답자들의 응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춰 가면서 자료를 받아오는 것은 영업사원들과 방법 면에서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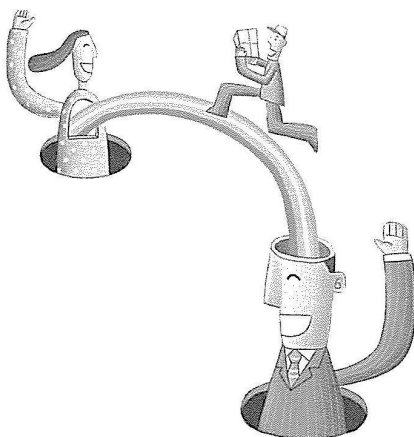
오늘도 저는 콩나물시루에 물을 분듯이 그렇게 ‘통계영업사원’이 되어서, 조사구의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소리에 병문안을 가고, 더운 여름날 험내시라고 문자를 보내고, 어려운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때론 농사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때론 ‘딸’ 같이, 때론 ‘며느리’ 같이, 때론 ‘동생’ 같이 열정과 정성을 응답자들의 마음에 분습니다.

어느새 6개월 남짓한 시간이 지나, 벚꽃이 흐트러지게 피어있던 그림 같은 꽃길은 푸른 잎이었다가 단풍잎으로 변하고, 이제 쓸쓸한 길이 되어가고 있지만 저의 마음은 처음보다 오히려 작은 기쁨으로 가볍습니다. 비록 한번의 대체가 더 있었고, 결국 5가구 중 3가구를 대체하였지만, 안부 전화 한 통 할 때마다, 한 번 더 찾아 뵈는 때마다, 저의 ‘통계’라는 시루에서

자라고 있는 일계부의 빈칸들이 채워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또 다시 벚꽃 길로 아름다워지는 봄이 되면 더욱 알차게 채워져 있을 일계부를 그려 봅니다. 오늘도 조사구의 여기저기를 누비고 있을 통계 조사원들의 건투를 빌며...

“통계영업사원 파이팅!”



동초 꽃의 유채 꽃으로의 화려한 변신



부산울산지방통계청 / 농수산조사과 / 이명철

내가 공직에 발을 내딛은 이후로 가끔씩 옛날을 회상하면서 자주 떠오르는 재미난 추억이 하나 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담을 얘기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그건 그다지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었던 내가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은 곳은 머나먼 농촌지역인 합천이다. 그 당시까지 합천이라는 곳은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하고 관광을 다녀오신 부모님께서 기념으로 목판이나 기념페넌트를 가져오실 만큼 아주 머나먼 이웃나라쯤으로 여겨지고 오로지 기억나는 지식이라곤 해인사가 있고 전두환 전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곳 정도로만 알고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발령지로 합천이라는 곳을 통보받고 현지로 인사차 마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의령을 지나

고개를 넘어갈 땐 눈물까지 날 정도로 오지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까지 여유가 없었던 관계로 그 날 이후로 그냥 눌러 앉아 버렸다. 지내면서 맑은 공기와 푸른 산천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감싸주고 포근히 안아주었고 요양은 것처럼 편안했다.



어쨌든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당시까지 농작물에 대한 지식이 많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첫 임무가 논벼생산량조사였고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히 낫질하고 벼단을 둘러메고 킁킁거리면서 들고 와선 오토바이에 싣고(그 당시에는 차도 귀하던 터라 오토바이로 2명씩 조를 이루어 조사를 하였다.) 귀청하여 타작하고 정선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실수확량 조사가 끝난 후 맹벌에 까맣게 탄 얼굴로 고향을 방문하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왜 흑인이 하나 왔다고 놀려댔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덧 경지 및 작물조사기간이 돌아왔고, 한 고참이 하루 짬을 내어 작물에 대한 교육실습을 해 주었다. 그럭저럭 알고 있는 작물 - 마늘, 양파, 상추, 시금치 등 - 들의 재확인과 면적산정 요령에 대해 간단히 배운 후 혼자서 실전에 돌입했다. 나름 알고 있는 작물들을 자신 있게 기록해 가면서 알팍한 지식을 동원한 조사를 훌륭히(?) 소화해 냈다.

요즘이야 지천에 널린 게 유채꽃이고 지역별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서 남녀노소 다 구분을 할 정도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주도의 특산물

이었고 TV에 아름다운 광경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동초의 노란 꽃은 유채꽃과 흡사했고 어쭙잖은 지식이라고 그것을 유채꽃이라고 단정한 나는 작물조사표에 당연히 유채꽃으로 정리하고 입력도 했다. 그런데 고참들은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전송도 완료된 이후 농림부에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외에 유채라는 특이한 작물이 있는 우리 출장소를 주목하였고, 급기야 확인전화가 걸려왔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고참들은 현지 확인을 실시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동초라는 작물로 판명이 나자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농림부 관계자도 내가 신입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 주었다. 고참들은 모두 파안대소하고 가끔씩 장난삼아 놀리곤 했다.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고 해서 각종 자료와 사진들을 통해 작물구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시절이야 어디 그런 장비나 기술뿐만 아니라 고참들의 친절(?)한 배려도 많지 않았던 터라 그런 해프닝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후로 난 신규직원이 오면 나의 쓰라린 과거와 경험 때문에 혹독하리만큼 힘들게 교육을 시킨다.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실수 외에도 가축통계 조사를 하면서 소만한 개하고 싸움 아닌 싸움을 했었던지 조사에 응해주지 않아 3일을 연속으로 매일 찾아 가서 조르고 싸우고 해서 결국은 조사를 마친 적도 있었으며, 어느 가축 표본농가는 나를



동생처럼 잘 대해주었는데 소 값이 크게 비싸지도 않았지만 오를 기미가 보였던 터라 나에게 모아 놓은 돈이 있으면 소를 구입 해서 자기에게 맡겨 놓으면 관리해 줄 테니 부업으로 해보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만일 그때 부업으로 했었다면 큰 돈을 벌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또한 비계통생산량전수조사를 하면서 많이 싸운 사람도 있었다. 우리 조사로 인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당해 울화통이 터진다면서, 우리 자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다. 그런 반면에 비계통표 본어가에서는 그 날 어획물 중 정말 귀한 것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 보라고 하고 노모가 계신다고 하니 갔다 드리라고 그냥 주시기도 하고 너무나 잘 응답해 주어서 정말 세상은 아직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내가 처음 담당했고 지금도 담당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나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지금의 나의 건강한 모습이 지나온 세월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이다. 자연에서 나는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 영양이 나에게 전달되면서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 근원인 것이다. 비밀이지만 공직에 입문하기 전에는 50kg이 겨우 넘을 정도로 약골이었다. 나이 살도 있지만 자연약재(조사하면서 생으로 먹던 각종 농산물)들의 효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센병집단 취락지에 가축조사를 하러 가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음식을 나눠먹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행동이었다고 좋아하던 모습들도 떠오른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 그동안 겪은 경험담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짧은 지면에 다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가장 먼저 겪으면서 기억에 남는 얘기만을 전하고자 한다.

끝으로 여러분도 신규직원이 오면 자기의 어려운 시절을 되새기면서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어느 비 오던 날의 특별한 인연



경기도지방통계청 / 사회조사과 / 김경숙

처음으로 통계청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7년 1월이었다. 전업주부 15년 생활을 하다가 뛰어난 사회생활……,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운데다 인력실태조사니, 농업기본통계조사니,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 등 각종 조사의 생소한 코드와 쉽게 이해되지 않던 통계 용어들…….

나는 내 자신이 잘 적응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고 더군다나 자동차도 없이 발로 뛰어야하는 처지이기에 원거리에 있는 담당 조사구를 오가는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업무에 익숙해졌다고 느끼고 있을 때 컴퓨터 입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데이터가 엉망이 되는 실수를 하고 쥐구멍이라도 찾아들고 싶은 심정이었던 적도 있었다. 나에게는 정말 세월이 빠른 것만 같다.

통계와 씨움을 한 시간이 벌써 22개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된다. 통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조사되는지 몰랐던 내가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조사를 마감하고, 이런 자료들이 모여 국민들에게 제공되어 살아가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는 업무에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물론 그 중간에 어려운 고비도 많이 있었다. 가구를 방문 할 때 냉랭한 응답자의 반응은 나의 의지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했었고 열악한 생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조사구를 방문했을 때 가슴을 타고 오던 연민, 그리고 내가 제대로 도와줄 수 없음에서 오는 안타까움, 이러저러한 복잡한 감정을 되새기며 생활 하던 중 나는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맡은 조사구 중 의왕 조사구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방문 할 때마다 마음이 찢한 동네였다. 10가구 중 그나마 보통 평범하다고 생각 되는 가구는 3가구뿐 이었고 나머지 일곱 가구는 신용불량자, 가정불화로 집 난간 남편을 둔 모자가구, 이혼하고 혼자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나이 많은 아저씨, 그리고 독고 노인 등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어느 날, 한 가구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가구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전출한 가구는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랫동안 안면을 트고 지낸 터라 생활이 어려워도 조사에 대한 협조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었다. 그 당시 생활이 어렵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사는 조사구 인지라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 하는 등 조사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나는 또 다른 전입가구와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첫 번째 방문.

나는 부담감을 안고 전입한 가구를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신경질적인 젊은 이쭈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계청 직원입니다. 잠깐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나의 신분을 밝히고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상대의 반응은 의외였다. 문조차 열지 않고 아주 귀찮다는 듯이

“됐어요. 가세요!”

그게 전부였다. 나는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다음에 방문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내 발길을 돌렸다. 안에서 들려왔던 목소리는 짜증과 분노 그리고 피곤함이 묻어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말을 건네는 것은 상대방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가구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두 번째 방문.

첫 방문 이틀 후 나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그 집을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몇 번 초인종을 누른 후에 힘없이 대문이 열리면서 아주 조그마한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 없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대답을 하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가셨니?”

“일하러 갔어요.”

“아빠는?”

“아빠 없어요.”

나는 불현듯 평범한 가구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는 언제 오시니?”

“밤에 와요.”

“너 혼자 있니?”

“언니하고 오빠는 조금 있으면 학교 마치고 올 거예요.”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계속 질문을 하는 내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유치원 다닐만한 나이, 나는 순간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름을 물어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메모를 남겨놓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두 번째 방문에서 이름이 단비인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세 번째 방문.

아이 엄마를 만나려고 일부러 퇴근 후 오후 9시 쯤 그 집을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아주 반가운 듯 활기찬 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엄마가 온줄 알았던 모양이다.

“통계청 이준만데 엄마 집에 계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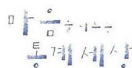
“엄마,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늦는다고 하셨는데.”

아이의 목소리는 바로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통계청 이준마가 다녀갔다고 꼭 뵈고 싶다고 전해줄래?”

“예”

나는 집 앞에서 혹시나 금방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30분이나 기다렸으나 결국 엄마는 만날 수가 없었다. 세 번째 방문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네 번째 방문.

좀처럼 평일에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토요일 오후 그 집을 방문하려고 나섰는데 집을 나서자마자 세차게 비가 퍼붓고 있었다. 속으로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라는 생각을 하며, 얼마 전에 구입한 승용차를 타고 초보 운전으로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빗속을 뚫고 간신히 의왕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문이 열려있어 문안을 들여다보니 아이 하나가 마당에 흥건한 빗물에 종이배를 띄우고 있었고 아줌마가 마당에 넘치는 물을 퍼서 집안으로 넘치는 것을 막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하고 바로 물 퍼는 것을 도우며 통계청에서 왔노라고 몇 번 방문했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서야 아줌마는 빗물을 씻어내며 눈동자에 초점을 맞추며 내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인사를 하였다.

“무슨 일로?”

통명스러운 목소리였다.

“통계청에서 가계조사를 하는데 이 집이 표본가구인데 전에 살던 분이 이사를 해서 전입 오신 분이 표본가구가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몇 번 왔었는데 뵈지 못해 다시 방문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줌마는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넘치는 물을 밖으로 퍼내면서 아줌마와 같이 1시간가량 막힌 하수구를 뚫었다. 아줌마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하수구를 뚫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당에 고인 물은 다 빠졌다. 나는 비에 옷이 젖고 신발까지 젖어서 물결이 딸이 아니었다. 그런 모습이 측은했는지 이줌마는 집에 들어가서 좀 씻고 가라고 하였다. 나는 발과 젖은 옷을 닦고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찻잔을 앞에 두고 이줌마랑 미주앉았고 이내 이줌마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빚쟁이를 피해 도피중이고 11살, 8살, 7살 된 아이 3명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으며, 월 60만원을 받고 도서관에서 사서도우미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통계청에서 하는 일을 설명했고 가계조사에 응하면 조금이라도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으나 나중에는 전자 가계부를 써보겠다고 가계조사에 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네 번째 방문에서 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단비 엄마를 만났고 어렵 살이 가계조사에 대한 허락을 얻어낼 수 있었다.

처음에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한권의 가계부를 비 오던 날의 인연으로 그렇게 얻게 되었다. 그 이후 단비엄마는 가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나는 측은한 마음에 방문 할 때마다 아이들 과자도 사다주고 옷가지들도 챙겨주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단비 엄마에게서 나에게로 장문의 문자가 하나 날아왔다.

“둘째 아이 태빈이가 부반장이 되었어요. 마침 통계청에서 나온 사례금으로 어제 아이들이랑 같이 정말 오래간만에 외식을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더군요.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외식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통계청에도 감사해요.”

나는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답장을 보냈다. 가슴 한편에서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었음에 뿌듯함이 밀려올라 왔다. 지금도 단비 엄마는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처음처럼 자주는 못가지만 가끔씩 찾아가서 막내 단비와 놀아 주곤 한다.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 주위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도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날마다 되새기며 오늘도 한편의 가게부를 회수하러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다.



응답자는 왕이다



경남지방통계청 / 김해출장소 / 김 의 수

통계조사관에게 현장조사 체험이라면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이 있을 것이고 그 아픔을 딛고 당당한 현장조사관으로 현재에 이르렀을 줄 압니다.

저도 그 한사람으로서 수많은 현장조사 기억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 가장 최근에 새로 맡은 농가경제조사 현장조사 체험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될지 모르지만…….

제가 새로이 맡은 농가경제 조사지구는 김해시 대동면 조눌과 초정 부락입니다. 현장업무 인수 차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2호 농가 이주머니께서 “안 할 까다. 가지고 가라.”를 연발 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표본이 한번 정해지면 저희 마음대로 못합니다. 박사님

들이 기술적인 표본이론에 따라 정해진 농가를 택에서 농사를 짓는 한 변경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제하는 직원도 난감 하였을 테고 저는 더 더욱 난감 하였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사정하고, 땀띠 갑장임을 내세워 영수증을 모아주고 1주일에 한번씩 출장 나와서 조사하여 기장해 주기로 하고, 억지로 일제부를 맡기고 나왔지만 답답한 마음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3호 농가에 인사하러 갔을 때 경영주 왕

“저기 누구 집에는 돈 한다 카이 바뀌 주데, 나도 안 할란다.”

“아이고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2호 농가는 신표본설계후 시험조사 농가가 죽어도 못하겠다하여 한번 변경된 농가였던 겁니다. 이러면 더 더욱 변경하면 안 되겠지요?

그 후부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동을 해서라도 가지고 가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음료수라도 사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그만 선물도 준비하고 열심히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낮에 일하는 시간에는 작업에 방해된다고 하여 점심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시간을 못 맞춘 주에는 토요일에 방문을 하였지요. 2호 농가 이주머니는 사오지 말고 그냥오라고 좋은 말도 해 주었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시골바람도 쐬 겸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그 집 앞 좁은 티자 농로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순간 “꽁” 하는 굉음과 함께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

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을 하시던지, 쉬는 날 나와서 일하고 사고까지 냈으니.

그래도 씩씩하게 농가경제 현장조사에 모든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토요일에는 가지 않고 점심시간에 못 맞추어 방문 했을 때는 하우스로 바로 찾아 갔습니다. 상추하우스에 들어가서 상추를 따면서 물어보고 조사하였습니다.

5월 일계부 회수 할 때가 되었습니다. 2호 농가 이주머니는 전화연락 후에 방문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할 때마다 바쁘다고 다음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몇날 며칠을 애를 태우더니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 커다란 수박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주머니도 어디서 오는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박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거 말라고 사오노? 사오지마라 안 카 더나.”

일계부집과 수박을 같이 문 밖으로 내어놓고는

“가지고 가라. 못한다. 인자 오지마라.”

고함을 지르고는 자전거를 타고 조르르 어디론가 달아났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그 사이에 얼른 일계부는 집안에 넣어놓고 나왔습니다. 수박은 미처 넣어놓지 못했는데 잠긴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물러나와 차에 앉아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중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호 농가 이주머니가 일계부 표지에 있는 사무실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더랍니다. 문이 잠겼는데 일계부를 어떻게 집안에 넣어 놓고... 일계부 안하면 안되느냐고.....

2호집에 다시 일반전화를 했습니다. 폰으로 하면 발신자가 떠서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옥신각신 좀 했습니다.

“문을 잠 귀 놓았는데 우찌 일계부를 집안에 넣어 놓았노?”

“내가 투명인간인가? 문을 잠 귀 놓았는데 들어가게. 갑장 있을 때 얼른 넣어 놓고 나왔지.”

“사무실에 전화 했더나?”

“했다 와? 하면 안되나?”

“내 지금 다시 갈게. 만나서 이야기 하자.”

전화를 끊고 만나서 무슨 말부터 할까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중에 2호 이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옆을 횡 하니 지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갑장! 갑장!” 불렀습니다. 이주머니는 “바쁘다.” 하고는 달아났습니다. 이주머니 대답을 보니 영 가능성 없는 것은 아니구나하고 실낱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일단 물러났습니다.

그 후 표본설정 당시에 같이 설득을 담당했다는 직원의 협조를 요청하여 같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고 열심히

둘이서 설명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한 얼굴로 한참 듣더니
“못 바꾼다면서?” 하고는 다시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그랬다.” 면서…….

경영주가 중고 하우스자재를 구입하여 자재 실은 차를 먼저 보내며
아주머니에게 받으라고 하였는데 화가 난 사연은 아저씨가 발만 갈아주면
일은 자기가 다 하는데 환갑 밑자리 갈아놓은 나이에 하우스를 놀리려니
짜증이 났다고.

땀투성이 흙투성이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나마 농산물 가격이나
좋으면 보람이라도 있으련만 아들은 대학까지 공부시켜놓으니 취업시험
공부한다고 독서실에 들어앉아 있고, 딸은 시댁장은 직장에 쥐 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남편은 돈 된다고 하우스 일거리만 만들고, 나이는 들고 힘은
없어지고, 2호 아주머니의 뉘두리가 답답하게 가슴을 짓눌러 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현장조사는 물질공세도 눈치껏 해야
하고 무조건 정성을 보이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응답자의 가정 사정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기분을 살펴보고 눈치껏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잘 지내
다가 어느 순간에 돌변할지 몰라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라는 속담
처럼 오늘도 조심조심 응답자의 기색을 살펴며 조사를 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하고 간, 쓸개 다 빼어놓고 장사하는 사람처럼 ‘응답자는 왕
이다.’ 하고.

응답 안 하면 실사 나올 수 있나요?



충북통계사무소 / 사회조사과 / 송영섭

연말이 되니 이것저것 정리할 일도 많고, 조사업무도 바쁜데 금년에도 어김없이 현장체험수기를 하나씩 내라고 한다. 왜 매년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형식적인 일이 빨리 없어지기를 기대하며, 기왕에 수기를 받으려면 현재 조사업무 담당자만이 아닌 과장, 출장소장 등 중간관리자를 포함 조사업무를 경험한 모든 직원에게서 받아서 그중에서 좋은 글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보다 더 질 좋은 글이 발굴될 것이라 생각 한다.

즐거운 기억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아픈 기억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마치 지금도 그 시절로 빠져가는 듯 한 착각도 생긴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시절 발간되었던 현장조사 체험사례집을 뒤적여 본다.

사례집에 실린 사연 하나 하나의 글들이 모두 우리가 겪어온 일이기

에 공감도 되지만 한편으로 씁쓸한 기분마저 든다.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애환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까 하는 의아심도 들게 되며 점점 더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 막막함이 앞선다.

몇 년 전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가 있어 전화로 약속을 하고 사업체를 방문 하게 되었다. 그 회사에서 나를 맞아 준 사람은 경리부장이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조사취지 등을 설명하려 하는데 경리부장은 자기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통계조사에 응답해 보았다고 하였다. 의외로 말이 잘 통할 것 같아 내심 반가웠다. 그러나 그런 나의 생각은 바로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차를 한잔하며 경리부장이 했던 말이 지금까지 느꼈던 그 어떤 절망감보다도 더 크게 내게 다가 왔다.

“내가 알기로는 통계조사는 협조사항이라 내가 응답을 안 해 줘도 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꼭 이 조사에 응답을 해야 합니까? 만약 내가 응답을 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실사를 나올 수 있나요?” 그 말은 세무서같이 실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뜻이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당황스런 대답 때문이었을까 나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서울에서 조사를 했었다고 하기에 어려운 설명과 설득은 필요 없겠구나 하고 안심을 했는데, 이 어찌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물론 통계법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통계법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 말이 통할리가 만무 했다.

순간 울컥한 나도

“아니 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회사가 당신 것이요? 당신도 월급쟁이고 나도 월급쟁이인데 말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부장님은 세무서 같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검찰이나 경찰같이 권력이 기관에서 나와야만 조사에 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조절이 잘 안되며 말을 하자 부장도 자기의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 되었던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획 나가버렸다. 맘 같아서는 더 심하게 욕도 하고 화풀이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말아야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머리 끝 까지 차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정중하게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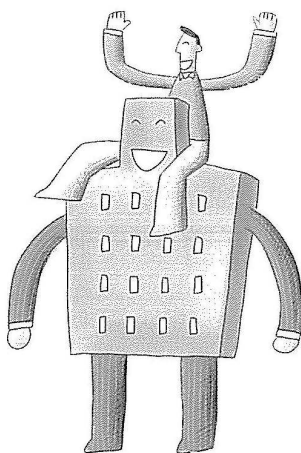
그리고는 더 이상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다음에 다시 찾아 뵈 것을 통보하고 늘 하던 대로 인사장과 리플릿, 기타 관련 서류들을 놓고 사무실로 돌아와야만 했다.

다음 달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사업체를 방문한 나는 다시 그 부장을 찾았다. 그러나 부장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불응으로 이번엔 경리과장이 대신 응답자로 나왔고 부장에게 지시를 받은 듯 경리과장은 친절하게 조사에 응해주며 “당신들의 끈기와 희생정신은 서울에서나 여기서나 알아주어야겠다.”고 말하였다

조사의 질과 정확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그와의 친밀함을 돈독히 하고자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어쨌 국가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이 과태료도 부과 못 할 만큼 힘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측은한 생각이 들어 조사에 응답해 주어야겠다는 맘이 생겼다 했다. 그 회사가 망해 조사에서 빠져 나가기까지 나는 그와 그렇게 한 팀이 되어 자료를 주고 받았다.

동정어린 국가에 봉사하는 맘으로 조사에 응답을 해 주었던 우리는 자료를 준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우리 통계청도 열악한 환경에서 협조를 구걸하고 협박하는 조사가 아닌 “법적으로 정당화된 실사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진하여 국민이 조사에 응해주고 정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



경남지방통계청 / 하동출장소 / 양현정

연동... 가게조사를 하는 직원은 아마도 제일 싫어하는 단어일 것이다. 조사구를 구표본에서 신표본으로 옮겨가는 작업이다. 즉 새로운 응답자에게 통계조사(가계부기입)를 설득하는 작업이다. 가게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각 조사구별로 조사구번호 순으로 연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연동시기가 다르다. 한 조사구 연동을 끝나는 기간은 명부조사부터 시작하면 5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 무시무시한 연동조사구가 연이어 붙어 있으면 근 1년 정도를 응답자들과 씨름하고 기득권싸움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우리들만의 전투인 셈이다.

출장소로 발령 받으면서 처음으로 가게조사를 하게 되었다. 두개의 가게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두개 조사구 모두 연동을

해야 하는 조사구였다. 처음 조사구를 받았을 때는 1개조사구 1구역(5가구)까지 연동을 마친 상태였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일은 나머지 2구역 ~ 4구역 연동과, 연이은 조사구 연동조사였다.

무식이 용감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부딪혀 보지 않고 지레 겁을 먹고 의기소침했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나마 출장소 군 지역으로 대도시의 응답자들보다는 호응도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시작하였다. 다른 대都市는 아파트입구에서 못 들어가는 곳도 많다는 위안을 삼은 채...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대교, 해수욕장, 벚꽃, 삼천포대교... 경남 사람이라면 하나쯤의 추억을 담고 있는 곳이다. 나 또한 남해바다를 좋아하고, 해안도로를 질주하면서 바닷바람을 만끽하는 것을 즐긴다. 그 곳에 내 조사구가 있다니... 조사구 가는 길을 너무 행복했다.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보고, 바다 내음을 언제라도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물 앞에서는 사람이 유연해 진다고 했던가. 바다만 보고 있으면 모든 근심을 털어 버릴 수 있는 내 조사구...

하지만...

남해군 중에서도 외지사람이 많고, 뜨내기들이 많다는 곳이 내 조사구다. 바다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외에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은둔하는 사람, 사업실패로 멀리 도피중인 사람, 유흥업소에 나가는 분들, 각양각색이었다. 뜨내기로 유명한 마을이다 보니까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 매서웠다.

첫 집의 벨을 눌렀다. 벨 고장... 그냥 문을 살짝 두드렸다.

“계세요... 아무도 안계세요??” 침묵... 살짝 귀를 문에 대고 안에서
의 소리를 들어본다. 설거지 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로 안에 사람 인기척
소리가 들린다. 다시 한번 두드린다. “아무도 안계세요?? 통계청에서 나왔
습니다...” 조용. “통계조사로 잠깐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조용. 휴~
계단식 4층 빌라다. 다시 옆집으로 살짝 옮겨본다. 여기도 역시 벨 고장.
다시 두드린다. 내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전 라인을 올린다. 아마도 빌라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다 들었을 것이다. 그 집 역
시 조용. 두세 번을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두드리다가 다시 위층으로 올랐
다. 위층역시 마찬가지. 약속이나 한 듯이 벨 고장. 무응답.

뭐, 이정도 쯤이야 스스로를 위로하고 일단 후퇴. 옆 라인으로 이동.

다행히 옆 라인 1층은 아이들로 부쩍 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엄마 있니?”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다행히 엄마가 있었다.
조사구에 온지 한 여시간만에 처음으로 대면하는 응답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비쩍 마른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온~” “아~ 네. 일단 들어오세요.”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안방으로 불쑥 들어갔다. 아
무런 사심 없이 순순히 응답해 주는 그 언니. 정말 천사였다. 커피도 한잔
주시면서. 대충 소개를 마치고 가구관리명부 작성 중 가구주 생년월일과
취업상태를 묻는 항목에서 순간 움찔 했다. 배우자와는 16살 정도 차이. 게
다가 장애자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 자녀만 4명에 조카2명을 거두고 있었

다. 그 언니 나이 방년 38세.

“아저씨랑 나이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다 그쵸?”

“나이차이 많이 나나요? 난 모르겠는데. 다들 그러네요.”

순간 호기심이 발동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분, 그것도 장애인과의 결혼을 했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언제부터 아프신 건지?”

“물론 결혼 전부터요. 결혼 전에는 걷지도 못 했는걸요”

지금은 벽을 짚고 조금씩 걸어 다니신단다.

“결혼 전에? 걷지도 못했는데 결혼을 했다구요?”

“장애는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어요. 우리 아저씨 그때 얼마나 멋지고 잘생겼었는데요.”

그 언니는 장애가 전혀 없는 예쁘디예쁜 여자였다. 그런데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하는, 그것도 나이차이가 띠 동갑도 넘는 분이란 사실을 했단 말인가??

“집에서 결혼반대가 심했겠네요?”

“물론 심했죠. 내가 그때 다방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와서 만났죠. 장애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결혼 후에 친정도움 많이 받았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니는 형님네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밤10시까지. 집에 와서 애들 뒤통다꺼리 하고 집안정리 하면 밤12시가 훌쩍 넘는다고. 게다가 애들도 4명이다. 그 뿐이 아니다. 돌아가신 아주머니 애들 2명을 어릴 때부터 친자식처럼 키워 자녀가 총 6명. 그 중 큰애(조카)는 대학공부 중으로 학비며 생활비를 대고 있었다. 그야말로 상상불가였다. 그 모든 생활비를 정부보조금 약간과 언니의 식당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피곤해 보일 뿐이지 세상을 탓하거나, 인생을 탓하는 불평은 전혀 없었다. 그런 언니한테 난 가게부를 내밀어야 했다. 미안했다. 내가 가진걸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당장 줄 것이 라곤 들고 온 답례품과 가게부뿐이었다. 언니는 기꺼이 가게부를 적어 준 댄다. 일마치고 집에 와서 빨래하고, 집안일 조금 하면 12시가 넘지만, 싫다는 내색 없이 적어 준 댄다. 할말이 없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미안하지만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오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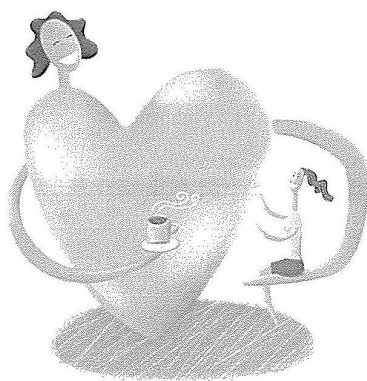
“난 처음에 외판원인줄 알고 사지는 못해도 차라도 한잔 줄려고 했는데...” 했다. 외판원에게 차 한 잔 대접하려고 했던 그 언니 마음.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맙다고 다시 올 거라고 전화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집을 나왔다.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졌다. 언니를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보였다. 나는 고작 연동에 힘들어하고,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불평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런 환경에서 감사히 살며 이웃에게 따뜻한 그 언니 앞에서 말이다. 그 후로 나도 많이 변하려고

노력한다. 연동. 전혀 힘들지 않다. 또 다른 가구를 만나서 인연을 맺고, 서로의 세상살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모든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였다. 힘들다고 투정하며, 불평하면 끝이 없었다. 그러나 정말 한순간만 다르게 생각을 하고나니 모든 것이 달랐다.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존재했고, 나의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새로운 가구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언니를 생각한다. 생각만으로 안 되면 전화해서 웃고 떠들고 얘기하며 언니를 위로하기도 하고,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한다.

그 언니를 만나게 해주고, 내 인생관을 바꿔놓은 연동이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



광주전남지방통계청 / 순천출장소 / 이 현 숙

지금까지 일제부 현지 기입지도를 다니면서, 많은 불응 사례를 겪었지만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르신은 조금 특이한 경우이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입니다. 작년 표본 대체 후 지금까지 만1년 농가 일제부를 쓰시는 한 어르신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고 선배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농가 경제 조사 업무이고, A씨로 지칭되는 어르신이 사시는 조사구는 농가라기보다는 도시가게 조사구 성격에 가까운 광양 시내 터미널 근처의 농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경지의 대부분이 차로 이동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이고, 표본가구의 수입은 농업수입보다 겸업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시는 대지의 평당 단가도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라 가구원들의 성향도 농부보다는 도시민에 가깝고, 지급되는 답례품도 아주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그 맥을 업무 인수 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봄부터이었습니다. 전임자가 불응이 심하니, 민감한 사항은 공공기관을 통해 알아보고 본인에게 일계부 외의 사항은 친밀해진 후로 미루라는 당부도 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농·어가 업무만 담당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일계부 기입 협조도는 불응이라기보다 귀찮아서 거부하는 경우이고, 차츰 기입지도 다니면서 친밀감이 형성되면 친 가족 이상 반겨주시고 밝히기 어려운 비밀스런 집안사정도 모두 털어놓는 관계가 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A씨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항의 질문을 자꾸 미루다보면 습관도 되고 하여, 처음 원부조사부터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던 상황은 없고, 일계부도 너무 너무 착실히 기입해 주셔서 -예를 들어 예금 인출 금액을 적어 주시면, 지출과 누계가 딱 맞고, 농업노동이나 생산비 투입내역도 소수점 이하 단위까지 세밀히 적어주심- 뛰어난 나의 능력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면전에 임하곤 하였습니다.

한번은 그 맥에서 배달시켜 먹는 요구르트의 지난 달 요금을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배달사원이 미납을 주장하자, 저에게 꾸념을 하시기에 전월 납부금액이 적혀있는 일계부를 복사해 드려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보험가입 권유 안내가 나왔는데, 연세 드신 노인께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네! 네!”하고 대답하였더니, 원치 않는 보험이 가입되었다고 울상을 지시기에, 금융 감독원 민원실 보험담당자에게 민원을 내라고 권유하여 이 또한 기 납부한 금액을 1원의 손해도 없이

고스란히 되돌려 받도록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지 한 3개월 후 7월말 출장 시 “나 다음달부터 이것 못쓰겠네. 새 일계부 우리 집에 놓지 마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쭙봤더니 “내가 이거 쓰다보니까 나한테 별 이득이 되는 것도 없고 귀찮아서 부애(전라도 사투리로 표준말은 울화)가 나니까 딴 사람보고 쓰라고 하소!!” 하십니다. 일단 그날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서, 없는 애교를 떨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주에 새 일계부 배부하는 기간인데, 난감한 기분에 전임자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물어보았습니다. 전임자말이 그분은 쓰실 때는 잘 쓰시는데 갑자기 거부하신다면, 자기는 선물 공세도 했다가, 그다음에는 눈물 공세도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물 공세도 습관이 될 수 있고, 없는 눈물을 뽑아내며 읊소하기에는 너무 구차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임자의 방법을 답습하기 보다는 내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공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장문의 편지를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A씨는 자녀를 모두 서울 일류대 졸업시키고 대기업이나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 진심으로 다가가면 더 잘 이해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 어르신께

더운 날씨 농사일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동안 허락도 받지 않고 아버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른 것도 결례가 되는듯하여, 조심하게 됩니다.

오늘 황망한 전화를 받으니,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실수가 어르신을 노엽게 하거나 앓았는지...

사소한 것까지 여쭙보던 저의 무모함이 어르신의 심정을 불편하게 하였는지... 사실 일계부를 기입한다는 것은 무척 신경 쓰고, 힘드신 일인 줄 압니다.

올 초에 농사일이 한가할 때 저희 부탁을 거절하기 곤란하여 일계부를 쓰신다고 하였는데, 막상 농사일이 바빠지다 보니, 신경 쓰이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다른 농가도 무척 힘들어 하시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르신께서는 다른 농가에 비해 엄청 꼼꼼히 적어주셔서, 저희가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다른 농가의 일계부에 비해 어르신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힘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번에는 제가 어르신 뜻을 받들어 일계부를 힘드시니까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업무 성격상 이러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며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 일계부를 받으실 때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표본 농가로 정해지면 임의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의 심정을 백번 이해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댁은 일계부 적어주신대로 믿고, 더 이상 사소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저희의 어려움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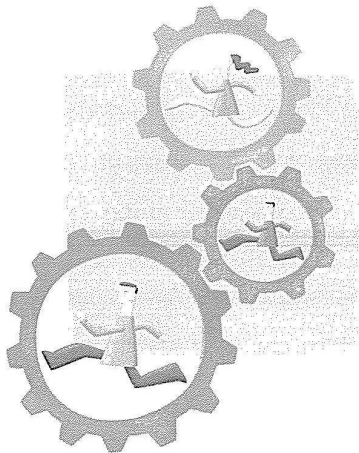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제부 배부하는 날 고운 편지지에 쓴 편지를 들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가하실 때 제 마음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차선책으로 밖으로 배웅하는 A씨 배우자에게 “아버님께서 자주 안 쓰신다고 하시는데, 어떡하죠?” 하였던니 “문딩이 아범이 공연시리 부애가 나면 저런다네. 근디 내가 그래도 쓰라고 하면 나한테 화부터 내니까 난들 어찌겠는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러시면 ‘관두시오. 그냥 내가 쓰고 말라요!! 그 간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하시고 어머니가 써주세요. 잘 모르시면 제가 자주 와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하고 말씀드렸다. 내 말에 글을 잘 모른다면서 자신 없어 하시더니, 당신이라도 써보겠다고 하시면서 나를 안심시켰다. 물론 A씨가 워낙 세밀히 잘 적어주시기 때문에 그에 못 미칠 것이고, 안 쓰시겠다는 분께 반기를 들면서 쓰시다보면, 부부 싸움이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었지만, 내 코가 석자인지라 억지로 떠밀어 놓고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띄었다.

그로부터 딱 1주일 후 A씨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이, 자네 혹시 우리 동네 들르면, 우리 집도 오소. 내가 자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일제부다 적어놓았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한걸음에 달려가 종전과 다름없이

기입지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쓰시겠다는 말씀은 안하시겠지' 하는 생각도 들어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3개월 잘 쓰시더니 지난 10월 말 일경 출장 시 “어이, 나도 저히 일계부 못쓰겠네. 오른쪽 팔이 저리고 힘이 없어서 연필 들고 글쓰기가 너무 힘드네. 다른 사람보고 쓰라고 하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관절이 안 좋아 병원비 지출도 많이 나오고, 한의원까지 다니시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연필들 힘도 없으시다는 것은 웬지 투정 같기도 하였습니다. 수저 드시고 식사는 잘 하시던데... 이번에도 어머님께 “혹시 아버님이 안 쓰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제가 바로 와서 어머님 기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고 부탁드려 놓고 왔습니다. 그 후 출장을 가보았더니, 그래도 어머님께서 종전과 다름없이 꼼꼼히 일계부를 적어 놓으셨는데, 언제 또 안 쓰시겠다는 투정이 나올지 고민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의 투정은 5년 내내 현재 진행형이 될 것 같습니다.



못 말리는 가족들



경기도지방통계청 / 사회조사과 / 최 소 연

“쿵쿵쿵……. 우당탕탕…….”

가계부 연동조사구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 발소리. 조사구
에서 들리는 내 발소리는 참말로 요란하기도 하다

“까르르르……. 호호호…….”

가계부 연동조사구 여기저기서 들리는 내 웃음소리. 조사구에서
들리는 내 웃음소리는 참으로 방정맞기도 하다. 발소리와 웃음소리로 날
알아보고 여기저기서 내가 온줄 알고 미리 문을 여신다.

401호 어머니는 쇼핑을 잔뜩하고 오셔서 나를 거실에 앉혀놓고 봐
달라 하신다. 창피하시지도 않은지 속옷만 입으시고선 그 많은 옷들로
한참이나 패션쇼를 하신다.

302호 어머니는 강아지가 몰까봐 꼭 겨안은 채 조용히 나를 불러 차를 주신다. 강아지가 나를 질투하는지 으르렁거린다. 그러고는, 당신의 아들을 내게 장가보내시고 싶단다. 근데 아들이 나보다 연하라 그냥 웃으며 사양한다.

B01호 언니는 자신의 통장을 아예 나에게 내어준다. 가구주는 이때 일로 자신의 통장이체내역을 통째로 보내준다. 자신의 가게 살림을 도맡아 달라 그린다. 그런 언니와 가구주에게 내가 더 민망해진다.

B02호 어머니는 두 딸보다 나를 더 예뻐하신다. 두 딸은 어른 되더니 말상대가 안 된다 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신다. 딸의 입장이 되어 이것저것 상담해드린다. 모두들 응답자가 아니라 나의 못 말리는 가족들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가 친구가 되던, 이웃이 되던 하는데,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진짜 가족도 친해지고 정이 들려면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나와 내 가족들은 내가 하는 업무가 조사하는 일이었기에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려야 가능 할 가족과도 같은 관계가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다.

그럼 그 못 말리는 가족들 이야기를 해볼까?

에휴 에휴~ 사무실 한쪽 내 자리에서 들리는 한숨소리! 입사하고 연동이라곤 딱 한번 해봤는데 겨우 경찰 연동이었지만 눈물 쭉~빼고 했는데 또다시 가계부 연동이 돌아왔더니 생각만 해도 무섭고 두렵기만 하다.



알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은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겁 없이 덤빌 수 있는 것도 한번 겪고 나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머릿속의 그 경험들을 다 없애버리고 시작하고 싶지만 새록새록 아주 자세히도 생각이 난다. 그래도 어깨에 힘 딱 주고 힘차게 조사구로 향했다. 차 한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좁디좁은 골목길에 딱하니 서있는 무시무시한 저 건물! 내 가게 연동 조사구! 9가구 설득에 나서다!

허억~ 무섭다! 떨린다!

가게부가 뭐 길래! 날 주눅 들게 할까!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는 파이팅을 외치며 지하1층부터 발걸음을 움직였다. 첫 번째 만나게 된 B02호 어머니님은 경찰 조사부터 하게 되었지만 탐탁스럽지 않은 표정이다. 경계를 풀지 않고 더듬더듬 서로가 대화를 한다. 생각보단 조사가 술술 되는 듯했지만 가게조사 설명을 해드렸더니 갑자기 인상이 구겨지신다. 무슨 조사가 그러냐고 말씀하시며 나가라고 하신다. 갑자기 쫓겨난 나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답이 없으시다.

지하 1층 B01호 문을 열고 나온 응답자는 젊은 새댁 언니다. 통계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고 쉽게 경찰 조사를 했다. 그러고는 가게 조사에 대해 어렵게 말을 꺼낸다. 내가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한순간에 싸~악 바뀌더니 안 된단다. 이유는 간단했다. 바쁘단다. 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하느라 너무 바빠서 가게부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단다. 그리고 사생 활침해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신다. 우선은 알겠다며 문을 열고 나온다.

그리고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302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마구 젖어대는 성질 사나운 강아지를 안고 나오신 어머니. 몸집이 작고 귀엽게도 생긴 그 강아지가 얼마나 사납게 짖는지 어머니와 나의 대화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거기다 강아지와 똑 닮게 생긴 어머니의 무서운 표정이 나를 주눅 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는 그나마 쉽게 조사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조사에 응해주신다. 어휴~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을 보고는 도저히 가게부 얘기는 못하겠어서 인사만 꾸벅하고 뒤돌아선다.

또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401호를 방문했다. 지하에서 4층까지 올라가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다. 통계청 직원이라는 말에 바쁘다며 문도 여시지 않는다. 현관 앞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 봐도 답이 없으시다.

9가구를 차례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경찰은 그렇다 하더라도 선뜻 가게부 얘기를 꺼내는 건 점점 더 힘들어졌다. 예비 조사 때 그래도 가게 조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된 곳을 가게조사구로 정하게 되어 경찰 조사는 한 두 가구 빼고는 무리 없이 해주셨지만 가게부를 쓰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복잡한 많은 생각들로 머리가 아파온다.

‘그래도 설득해서 가게부를 꼭 쓰게 하고 말거야!’ 라고 다짐해본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니 초조해진다. 만약 가게부가 한 권도 나오지 않으면 어찌지…….

4개월이 4년?! 작전개시!

내게 주어진 시간은 넉 달이다!

적격 9가구 중 4가구가 불응이다. 가게부를 들이밀었더니 경찰도 안하겠다고 한다. 차근차근 4가구 각각 그 집의 특성을 알아야 했고, 다시 작전을 짜야했다.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딱히 답은 없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다. 뭐든지 간에 시도는 해봐야 했다.

가게부 연동조사구 100% 설득大作전!

1. 두려움을 버려라!
2. 무조건 집안으로 들어가 앉아라!
3. 그 집의 딸이 되어라!
4. 무조건 편의를 봐드려라!
5.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라!
6. 가족사를 진심으로 이해하라!
7. 상담사가 되어라!
8. 통계는 산소만큼 중요하다고 세뇌시켜라!

우선은 경찰도 못한 401호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얼굴을 봐야 설득 하든 뭘 하든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침, 점심이고 저녁이고 부재중이시다. 그러던 중 주말에 등산복차림의 어머니와 딱 마주치게 되었다. 저번에 왔던 통계청직원이라는 딸과 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어머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등산 가는 길이라 바쁘다며 가버리신다. 이런 안 되지! 평일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끝까지 여쭙본다. 그때 맞춰서 오겠다고! 그러다 어머님이 귀찮다는 듯이 퇴근시간을 말씀해주신다.

그리하여 평일 저녁 퇴근시간 맞추어 다시 방문을 드렸다. 조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드렸더니 갑자기 꺼려하신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다 하였지만 극구 사양하시어 문밖에서 경찰 조사만 조심스럽게 마쳤다. 어머님 댁은 식구가 둘이다. 자녀가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머님에겐 최대한 내가 딸처럼 해드려야겠단 생각으로 자주 퇴근 시간에 맞춰 자주 찾아가 보았다. 어머님은 왜 이렇게 바쁘신지 퇴근하고 오시면 대략 1시간 후 헬스장엘 가신다. 꼭 그 시간에 맞춰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어머님이 매일 올 필요가 없는데 왜 오냐고 물으시기에 집안으로 들어가 앉아서 얘기하고 싶다고 부탁드렸더니 어머님은 또 망설이신다. 그러다 들어오라고 허락을 하신다.

앗싸~ 성공! 성공했다. 집안으로 들어가 앉으면 반은 성공!

그리곤 그 집을 내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몸이 약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신 데다 그런 사정으로 대인기피증이 좀 있으셔서 친한 친구도 집으로 초대할 적이 없으셨다고 한다.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있으셔서 아이는 포기하고 사시는 데다 아버님이 항상 늦으시고 주말도 바쁘셔서 거의 어머님 혼자 지내셨다. 그러던 중에 내가 자주 찾아가 딸처럼 구니 마음을 여신 것 같았다. 그 후

부터 나는 어머니의 진짜 딸처럼 혼자 계신 어머니와 저녁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TV도 보며 시간을 자주 함께 보냈다. 그리고는 가게부 성공!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제대로 성공한 셈이다!

이젠 302호 어머니와 강아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난감했다.
어머니와 강아지가 함께 나의 설득대상이 되었다. 내가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더 걱정이 되었다. 우선 걱정은 뒤로 하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또 강아지가 마구 짖어댄다. 어머니가 나오신다. 그냥 얼굴
비러왔다고 인사드리고 조심스럽게 가게부 얘기를 꺼내었지만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신다.

깨갱. 또 주눅이 들었지만 꼭 하셔야 한다고 문밖에 서서 40분가량을
설명한다. 그래도 꿈쩍을 하지 않으시고 내 얘기를 듣고만 들어가신다.
그래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간다. 어느 날부턴가는 문밖에 서서 그냥 강아지
얘기만 한다. “제가 아는 언니가 강아지를 두 마리나 키우는데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요. 잠잘 때 강아지가 꼭 제 몸에 기대어 자는데 사람
같아요. 호호~~” 어라! 어머니가 피식 웃으신다.

앗싸! 성공~!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넉 달이 걸렸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머니와 강아지도 날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솔직히 내가 더 힘들었다. 알고 보니 어머니에겐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아들이 워낙 바빠서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다보니 강아지에 의지하고 거의
강아지에 생활을 맞춰 지내고 계셨다. 강아지가 워낙 사나워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가 약간의 신기가 있으셔서 인상부터가

범상치 않기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으셨던 터라 통계청직원인 나 역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가게부는 물론 처음부터 가능했던 건 아니지만 무서움을 버리니 내가 더 자연스럽게, 딸처럼 지내게 되었다.

B01 미술학원 언니는 사생활침해로 거부하였지만 상황이 가게부를 쓸 상황이 아니라 내가 더 미안하고 망설여졌다. 미술학원을 경영하는 것 만으로도 바쁘신데 아들이 워낙 어려서 출, 퇴근 시 아들을 친정집에 함께 출퇴근을 시켜야했다. 얼마나 바쁜지 안 봐도 비디오였지만, 나도 일의 기에 끈질기게 찾아뵈었다.

남편 분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분도 카드 사에 다니시는지라 바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자가계부로 설득을 하려 했지만 전자가계부도 역시 쓸 시간조차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나라도 하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포기 할 생각이었다. 가게부가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도 정말 정신없어 보였다. 그래도 욕심을 비우고 미술학원엘 놀러 다녔다.

언니가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쁘실 때도 학원생들 먹으라고 쿨도 사가고, 언니가 좀 쉬실 때는 아들, 남편 얘기하며 수다도 떨었다. 그러면서 가끔 가게부 얘기도 하고! 그러다 최대한 언니가 나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는 시간은 없도록 타협을 보게 되었다. 학원으로 수시로 찾아가 영수증을 받았고, 가구주한테 공과금, 용돈내역은 통장이체내역을 메일로 받게 되었다. 언니의 상황은 정말 가게부를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긴 했지만 내겐 일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설득하였다. 그래도 모든 걸 언니한테 맞출 수밖에 없었다.

나라는 통계청직원은 내 의지나 내 상황은 전혀 고려할 수 없었다.
내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냈다.

최대 고비는 B02호 어머니였다. 경찰도 겨우겨우 해주셨는데
아무리 찾아가도 이젠 문도 여시질 않는다. 편지도 쓰고 문자를 넣어도
전화를 드려도 반응이 없으시다.

그러다 어느 날 술을 한잔 하신 아버님에게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욕설로 가득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난 그냥 통계청이라는 말만 했을 뿐
인데, 아버님이 얼마나 심한 욕설을 하셨는지 놀래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젠 문밖에 쫓겨나는 것도 익숙해져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
했지만 무서웠고 놀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한참 뒤 그런 사실을
어머님이 알게 되었고 나에게 약간의 미안함이 있으셨던지 문을 열어주
시게 되었다. 하지만 문을 여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답은 하지 않으신다.
도배가게를 하시지만 장사가 잘 안되어 정부의 불신이 가득한 아버님과
딸들이 워낙 반대하여 어머니가 가게부를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끈질기게 설득하였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게부가 나와야
나라에서 정책을 세울 거 아니냐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어머니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또 거절하신다.

넉 달 동안 어머니에게 항상 나라가 어찌고, 경제가 어찌고 하면서
강하게 소리 지르며 설득하였다.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도 나기도
했었다. 그러던 중 주변가구들에게 살짝 물어보니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집안 식구들이 다들 밖에 나와 있을 정도로 주정이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식구들이 숨죽이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씩씩하게 찾아

가던 나는 어머님 상황을 알고는 풀이 죽어서 솔직히 몰래라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내뱉고 말았다. 녀 달 동안 줄기차게 어머님을 혼냈던 나는 ‘이젠 어머님께 소리 지르며 설득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던 그때 어머님의 승낙을 받아냈다. 참 아이러니했다.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니 되더라.

녀 달 동안 나의 목표인 100% 가계부 만들기엔 끝이 났다. 가계부를 쓰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가계부를 쓰라고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 참으로 괴롭고 힘든 사이다. 짧지만 긴 시간이었다. 가계부는 안 쓰겠다는 사람들을 쓰게 만드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나뿐만 아니라 통계청에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이고 요술이라도 부려서 사람의 마음을 돌린 게 아니다. 통계란 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는 걸 알기에 나부터가 먼저 마음을 열었고 응답자들의 마음을 열게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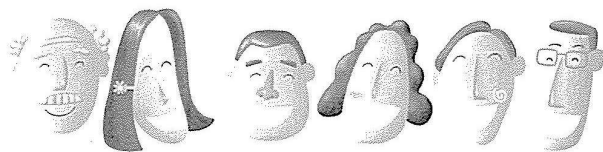
연동으로 가구들을 설득해야 했던 그 4개월이 4년이나 된 듯 응답자에게 다녔고, 정을 쌓았고, 가족이 되었다. 가구의 상황이 어찌되었든지 난 가계부를 받아내야 했지만 진정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계부를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렇게 무섭고 두렵기만 했던 그 건물을 아무렇지 않게 우당탕탕 까르르 호호호 뛰어올라간다.

내 웃음소리를 듣고 슬며시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가족들. 난 지금도 가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가족이 너무 많아져 가끔 고민이 된다.

내 결혼식 때 예식장이 사람들로 미어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야.

엄마가 수십 명, 아빠도 수십 명, 동생들도 수백 명! 통계청에 들어온 걸 가족들 덕분에 후회하지 않는다. 난 오늘도 가족들을 만나러 조사구로 향한다.



양치기 소년을 만나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 사회조사과 / 장선일

어느 덧 현장조사 16년째에 접어든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반성이 많았던 것 같다. 짧은 만남이지만 좋은 향기를 전해주는 꽃 같은 사람들, 본받을 점이 많았던 지혜로운 사람들, 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사람들, 너무나도 이기적인 팔취 엄마 같은 사람들 등등…….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말하려는 사람은 양치기소년 같이 매번 거짓으로 인생을 채워가는 아주머니다.

2007년 1월 겨울. 연동표본이 도입되고 나서 두 번째 맞는 조사구의 표본교체. 날씨만큼이나 매섭고 냉담한 조사구 사람들의 반응에 의기소침 했던 겨울이었다.

대전에서 제일 못사는 동구. 재개발을 해야 할 것 같은 낡은 주택들 사이에 우중충한 3층짜리 연립건물이 바로 내 조사구이다.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 주택은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단지가 육중하게 자리 잡았지만, 반대편인 주택지는 재개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동네이다.

연동이 시작되고 한두 달 지나면서 점점 정이 들어 친숙해지려는 무렵 잘 될 것 같은 가게부의 회수율에 기분이 좋아지던 그때, 102호 아주머니는 상식을 깨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텅텅해 보이는 말투, 거침없는 언행 한마디로 성격 좋아 보이는 그런 첫인상이다. 그 분은 처음부터 가게부 기록을 약속했고, 정말 써줄 것으로 알고 한달이 지났다.

하지만 그분은 나와 의 약속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고, 별 부담 없이 가게부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처음엔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에 다시 답례품과 가게부를 배부하고 돌아왔다. 그 뒤로 자주 방문하여 기입지도를 하려했으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3형제를 키우는 엄마인 그녀는 매우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구제 의류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가게로 방문하여 기입지도를 하려던 내 의도를 알아챘는데 가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었다. 가끔 우연찮게 마주칠 때는 뭐 그리 바쁜지 '가게부 써 줄께'란 말만 남기고 종종히 사라졌다.

그렇게 또 한달이 지났다. 때마침 집에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손에 집스를 하고 있었다. 넘어져서 오른손에 집스를 해서 살림도 못하고, 가게부도 못 썼다고 했다. 다친 사람에게 가게부 기입을 강조할 수도 없는

노릇. 그렇게 두 달째도 미 제출이 되었다.

이번에 설득방법을 달리하기로 했다. 주위의 친한 친구를 동원하는 것이다. 마침 103호에 사는 뚱뚱한 아주머니와 단짝 친구처럼 어울리는 것을 알아내어 그분에게 도움을 청했다. 103호 아주머니는 전자가계부를 열심히 입력하면서 사례비로 받는 5만원을 딸에게 용돈으로 챙겨주는 알뜰한 분이였다. 103호 아주머니는 나처럼 전자가계부를 써보라며 102호 아주머니를 설득했고, 또 너무나 쉽게 전자가계부를 써 줄 것이라면 약속을 했다. 그리하여 102호 집에 전자가계부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하루하루 전자가계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입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최종사용일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 전화 통화도 방문하여도 여전히 바쁜 그분은 그렇게 3달째 가계부도 기입하지 않고 있었다.

한달이 지난 후 겨우 만난 그분은 가게 문을 닫았단다. 가게 처분 하느냐 머리가 아프다고 가계부를 입력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답례품을 챙기고 가계부를 놓고 가란다. 꼭 기입해 준다는 한마디를 더하며.

초등학교 5학년인 첫째, 미취학 중인 두 명의 아이. 그 아이들은 매일 집에 방치되어있다. 뭐 그리 바쁜지 집에 가면 아이들만 웃도 벗은 채 놀고 있다. 한번은 첫째아이에게 가계부를 주었는데 전해 받지 못해서 기입 못했다 한다. 첫째는 원래 그런다며 다음부터는 그 아이에게 전해주시 말라고, 안 쓸 거면 쓴다고 말이나 말 것이지. 그래야 포기를 하던 설득을 하던 대책을 강구할 텐데 매번 얼굴 보면 정말이지 써줄듯이 친한 척하면

서 때번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면서 기업을 회피하는 그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는 어차피 안 쓸 집이란 수식어가 102호에 붙어버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길거리에서 그분을 만났다. 먼저 아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그분은 보람상조에 취직하여 회원모집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분과 나는 또 한번의 거래를 하였다. 난 상조보험을 가입해 주고, 그 분은 진짜로 가게부를 기입해주기로. 처음 시작하는 영업일에 자신감도 많아 보였고, 또 몇 푼 되지도 않으니 도와주자는 마음 반, 이번엔 정말 가게부 기입 하겠지 라는 의도 반으로 상조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로 사무실로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보험설명을 하게 해 달라며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어 한참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무렵, 우리 청은 농림부직원의 전입으로 심란하던 때라 바로 방문을 하지 못하고, 한두 달 지나고 사무실로 오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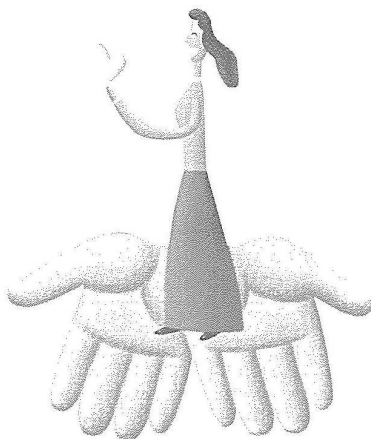
그분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한다. 또 다시 가게부는 방치되었고, 한두 달이 지나자 보람상조도 그만두었는지 내 핸드폰엔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얼마 후 조그마한 식당을 개업한다고 가구도 직접 페인트칠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9남매라는 찌게 집을 개업했지만 그분은 나에게 월급 받으며 다니는 종업원으로 조사해 달라고 한다. 3자녀 학자금지원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다나……. 물론 가구주의 직업도 거짓으로 조사해 달라고 한다. 건설회사에 소속된 목수인걸 아는데 일당 받는 목수로 조사해 달라고 한다. 물론 자신이 무언가를 속이는 것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용이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그녀에게 다시 가게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윗집 아주머니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102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마디로 '짜가지 없는 인간'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다는 102호. 연립이라 수도세가 나오면 한집이 대표로 돈을 내고 각 호수별로 배분을 한 후 수도세를 걷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도 102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매번 말뿐이고 행동이 없는 102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야 가게부 한권 안나오는 것으로 끝났지만 자신의 인생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정말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언행일치!!!



통계인으로 살아가는 길



제주도통계사무소 / 경제조사과 / 문미진

장맛비가 축축이 내리는 토요일 비가 와서 그런지 피곤과 몸살이 같이 찾아와 늘어지게 낮잠을 자는데 땡땡 핸드폰에 문자메시지가 왔다. 귀찮아서 그냥무시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땡땡 핸드폰이 “주인님 문자왔어요” 하고 나를 부른다.

“아~ 귀찮아 죽겠네. 누구야”를 외치며 핸드폰을 열어보니 “친구 많으세요.”, “오늘은 출근 안 했겠네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누가 어제 미팅하고 전화번호를 잘못 받았네 하고 그냥 툭 하고 핸드폰을 던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그 후 또다시 땡땡 하고 메시지 알림이 울리는 순간 짜증이 나서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 후 저녁밥을 먹고 TV시청하다가 딸이 “엄마 핸드폰 어디 있어요. 오락 할여구요.”하고 찾았다. 사실 주말이면 핸드폰은 애들 차지다. 오락과

아빠, 이모한테 문자보내기, 벨소리 변경 등으로 월요일 핸드폰이 울려도 내 것인 줄 모를 때가 간혹 있다.

핸드폰을 켜는데 오전에 왔던 번호로 4건이나 더 와있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어지간히 어제 만난 여자가 맘에 들었나 보네 잘못 보냈다고 전화해줄까? 하다가 답장이 안가면 잘못 보낸 줄 알고 안 보내겠지 하며 무심코 지나쳐 버렸다.

근데 웬걸. 뒷날도 계속 메시지가 와서 잘못 보냈다고 알려주려고 통화를 눌렀는데 받지를 았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방 같은 번호에서 문자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문자로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확인 하세요.”라고 보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아닌 엉뚱한 “친구 많으세요?”하고 다시 문자가 오는 것이다.

어허~ 좀 이상 하네 누구지?

그날 밤 0시 20분쯤 되니 멍동 하고 핸드폰이 울려 보니 “자고 있겠당 *..*” 하고 문자가 왔다. ‘어 이건 아닌데 누가 나를 알고 계속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남편도 새벽에 문자가 오니 어찌된 일이나며 물었다.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니 할 일도 없는 놈이네 하며 “핸드폰 꺼라. 자게.” 하며 짜증내고 말았다.

아침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문자가 왔다. 010-0000-0000 그 번호이다. 뒷날도 오고 그 뒷날도 오고하여 사무실 전화로, 동료전화로 통화를 시도해 봤지만 받지를 았았다. 낮에는 시간대 별로 아침에는 좋은 아침!!, 점심때는 “점심 이쁘게 드세요!!”, “식사는 했나요??” 등 시간대별

로 매일 멘트가 달랐다.

갑자기 문자 스토키가 시작되기 전날 내가 담당하는 사업체 사장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아 답변해준 기억이 나면서 그 사장님이 보내는 문자 멘트와 너무 흡사하여 의심은 되었지만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남을 의심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보다 100배나 되는 죄를 짓는 것이니 절대 증거 없이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 안 오겠지 하는 생각에 핸드폰과 번호, 통신사를 거금 55,000원을 주고 바꿨다.

번호가 바뀌었다는 멘트가 나가지 않도록 설정하고 상대 쪽에서 오는 전화는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010-0000-0000번호를 수신차단으로 설정하였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문자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 기능을 작동해보자 스팸 메시지가 있었다. 컴퓨터에만 스팸 메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에도 있네! 출장을 갔다와 보니 스팸 메일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어 난리가 났었다는 데 아니 핸드폰에까지? 어떤 제목으로 오는 걸까? 하여 확인을 누르는 순간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소름이 끼쳐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일주일동안 문자가 안 온 게 아니고 스팸 문자 처리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누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쳤다. TV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도저히 무서워 견딜 수가 없었다.

밤에는 문자가 오지 않아 망원경으로 우리 집을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 남편이 저녁근무 가는 날이면 더운 한여름에 창문도 다 닫고 생활하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다면 죄가 되며 고소하면 사이버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뒷날 오후 나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찾아서 고소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받았다. 증거자료로 핸드폰에 온 문자와 통신사 확인증이 필요했다. 요즈음은 개인정보 유출, 인권보호 등으로 본인 직접 통신사를 방문하여 메시지를 컴퓨터로 보내는지 010-0000-0000 번호로 보내는지 아니면 보내는 번호만 바뀌서 보내는지의 확인서를 때와야 사건 접수가 완료되어 통신사를 방문했다.

A통신사를 먼저 찾아갔다. 문자내용이 협박이나 저질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좀 힘들겠다하였다. “그래도 고객이 요청하면 해 줘야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하니 경찰서 가는 서류라 잘못하면 자신이 다칠까 두려하는 눈치를 보면서도 해주었다. 두 번째 B통신사를 방문했다. 이곳 역시 협박이나 저질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힘들다며 안 된다하였다. 20일 가까이 이런 문자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스토커네요.” 하고 답변을 하였다. 그럼 왜 안 되냐 했더니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규정이 그래서 안 되니 꼭 필요하면 정신 상담소에 가서 정신질환 진단서를 때 오라는 것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협박성 문구와 저질스런 문구를 교묘히 피해서 나에게 보내다니 아주 상습범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보고 정신 병자 확인서를 때오라고……. 이래서 부녀자 살인사건과 얼마 전 스토커

살인 사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내게 그런 경우가 발생 안하겠냐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 B텔레콤과 한바탕하고 게시판에도 2일 동안 도배를 했다.

그 결과 문자 확인서 받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며칠 뒤 내가 예측했던 사이버쇼핑몰 사장님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한편으로는 ‘전문 범죄자가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하고 한숨이 났다.

사이버 쇼핑몰 사장은 처음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고 나한테 “너무 오버한게 아니냐.”며 별것도 아닌 일에 경찰서에 고소했냐는 식으로 나왔다. 이 말에 나도 화가 나고 담당하던 형사도 화가 나고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건 아니다하며 절대 용서 못해주고 결혼도 했는데 그쪽 아내와 당사자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고소를 취하하면 당신 나하고 같이 못산다며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된다고 나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통계인들은 현장조사 나갈 때 자존심, 짜증, 성내는 법 등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자료를 받아 온다. 그래서 항상 웃고 이해심도 많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통계인도 사람인지라 성 낼 주도 알고 자존심도 있고 짜증 낼 줄도 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조사대상 사업체 또는 가구에 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고개 숙이고 웃음을 팔고 짜증도 낼 줄 모르는 장애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다.

이 사이버쇼핑몰 사장님 역시 ‘못 먹는 감 찢어나 볼까 내가 이렇게 장난치고 갖고 놀아도 괜찮아. 매일 자료 받으러 오려면 뭐 이정도 쯤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료도 정확히 주시지 않으면서 통계자료 엉터리야하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다. 통계는 자료를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주는가에 따라 질이 높은 자료도 될 수 있고 엉터리 자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주도는 지역이 좁아 한 다리 건너고 한 다리 아니면 다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지인관계여서 그리 못되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다음해 다음표본에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맞대어 싸우고도 싶지만 참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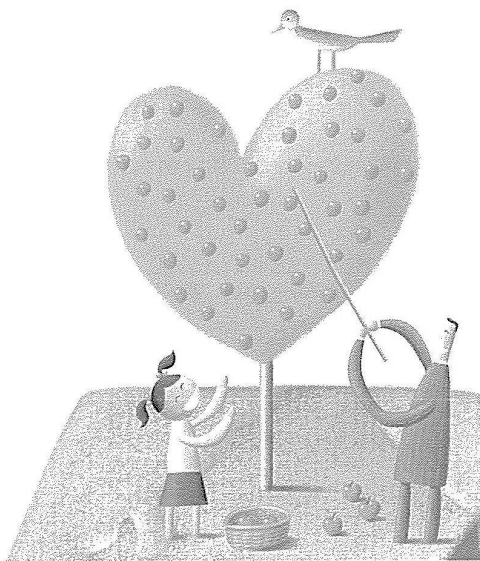
그 후 사이버 쇼핑물 사장님이 전화와서 미안하다며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 받으면서 본인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게 너무 미안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전화가 왔다. 하지만 나는 이건 아니다하는 생각에 사장님은 나하고 한 사람만 걸려있지만 나는 일차적으로 내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고 통신사 2곳, 직장, 경찰서까지 엮일 데로 엮여 좀더 생각하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루하루 날은 가고 사무실에서도 불응사업체로 조사 정지 승인을 받고 저희 부부문제도 좋은 쪽으로 해결되고 사건도 해결 시기가 다 되어 지역도 좁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생각과 남편도 내 의사에 맞기겠다고 위임하여 얼마 전 고소 취하하였다.

이렇게 어찌 되었든 2008년 여름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얼마 후면 풍성한 민속 명절 한가위다.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 다들 죽는 소리만

들려오는데 마음의 여유만큼은 풍요로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조사 대상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통계인들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들, 딸, 동생, 형처럼 생각해주세요. 우리 역시 열심히 노력하여 정확한 통계로 앞으로 경제대국의 밑거름이 되는 통계인이 되겠습니다.

통계가족여러분, 파이팅!!!



단감 두 봉지에 담긴 서툰 화해의 손길



부산울산지방통계청 / 울산출장소 / 정현희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본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들판엔 추수가 시작되고 고구마를 캐느라 할머니들의 손길이 바빠 보인다. 그래도 가을그림 중에 단연 으뜸으로 꼽는 모습이라면 감이 익어가는 마을 풍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는 풍요로움을 전해 주면서 가슴을 따듯하게 데워주는 힘을 가진 참으로 곱고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가! 내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 바쁜 일상에 찌들어 횡하고 메마른 가슴에 따듯한 추억을 한 아름 심겨준 감에 대한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되는 그 소중한 인연은 지난 2007년 가을 초보 통계조사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내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담당하던 울산 울주군 온양읍은

전형적인 시골마을로 거의 집집마다 조그마한 감나무가 두어 그루씩 있다. 그 날도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하기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답례 품도 전해 드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

한 여름의 이글거리는 피약별은 내 심장속의 피 한 방울까지 말려 버릴 기세처럼 뜨거웠고, 더위로 인해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흐르는 땀을 한 손으로 훔치며 조심스럽게 들어간 문제의 그 집...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쿵쥔거린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를 집어 삼킬 듯이 진돗개가 짖어대고 아저씨는 무서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 번 방문을 했어도 아저씨에게는 말도 못하고 할머니에게 여쭙 보고는 돌아오곤 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저씨와 정면으로 마주친 것이다. 평소 아저씨는 이것저것 시시콜콜 물어 보는 내가 못 마땅 하신데다 그날따라 심사가 뒤틀리는 일이 계셔서인지 대낮부터 악주를 하신 것 같아 보였다. 가뜩이나 무서운 인상이 더 무섭게 느껴졌지만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여는 순간 아저씨는 내 말을 들으실 생각도 없는 듯 나를 보며 “우리는 그런 것 안 해. 통계청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 집 일에 밤 뇌라 대추 뇌라 해. 우리 이렇게 살게 뇌워.” 소리며 지르며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설을 하셨다.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하는 말은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려서 아저씨에게 통계 조사를 왜 하는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며 조사표를 드렸더니 바로 조사표를 찢으며 나가라고 욕박지르셨다. 보다 못한 할머니

니께서 내 손을 잡고 나오며 “내 아들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그래요.” 나를 위로하며 돌아가라고 하신다. 어쩔 수 없이 할머니에게 답례품만 전하고 그 집을 나왔다.

다음 집을 방문하니 통통 부은 눈과 빨개진 얼굴을 본 옆집 할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쭙어 보신다. 별일 아니라고 답변 드리고 평상시처럼 조사를 마쳤으나 아직까지 조사를 마치지 못한 집은 다음에 방문하는 것이 조사원의 인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서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오늘 조사는 마치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뱅글뱅글 돌며 다닌다. “내가 왜 통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통계조사를 해야 하나!”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 남편생각에 서럽고 슬펐다.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닌데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낙심하는 내가 너무 나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본다. 어떻게 하면 화난 아저씨의 마음을 풀어 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담당하면서 나보다도 먼저 어려움을 겪었을 선배직원들에게 사례에 대한 해결을 찾아보고자 자문을 구해보았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보다 힘든 시기에 참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로를 해 주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

그 이후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러 다시 온양읍 조사구로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옮겼다. 문제의 그 집은 가장 나중에 조사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집들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그 집으로 향했다. 방문하기 전 선배직원들이 가르쳐 주신대로 마을 이장님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흔쾌히 이장님께서 동행을 해 주시기로 하셨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마음이 놓였다. 조금은 긴장하고 그 집으로 갔다. 그러나 이장님과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화를 내시며 오히려 이장님을 나무라신다. 정말이지 이장님에게 죄송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이장님께서서는 나에게 괜찮다며 얼마 전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후부터 아저씨께서 많이 변하셨다고 하셨다.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나오면서 조금 전 그 집을 나오면서 유심히 쳐다보니 아저씨께서 손을 다치셨는지 한 쪽 손이 불편해 보이셨다.

그래서 바로 읍내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파스와 압박붕대를 사서 다시 그 집으로 갔다. 아저씨는 내 손에 들려있는 약 봉투를 보면서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하는교?” 하시며 누그러지신 목소리로 얘기를 하신다. 아저씨 옆으로 가서 파스를 붙이고 붕대로 감아 드렸다. 그러곤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다.

그 일이 있은 후론 마을이나 집에서 아저씨를 마주치게 되어도 미안하신지 못 본체 하시곤 했다. 그러다 더위에 지친 한 여름의 매미 울음 소리도 귓가에 맴돌며 저만치 가고 온 산이 붉게 물드는 그해 가을이었다. 그 날도 여느 때처럼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조사표를 챙기고는 사무실을 나섰다. 요즈음의 여느 농촌들처럼

이 조사구도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라 방문할 때면 호박엿과
과자를 들고 노인정을 찾는다. 할머니들께서 평소 외로우셨던지 그간
가슴에 담아두셨던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드리기도 하고
간혹 내 일상도 할머니들과 나누기도 한다.

이럴 땐 마치 어릴 적 외갓집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외할머니의
따뜻함이 배어나오는 것 같아 좋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정겨움도 잠시...
항상 맘속이 꺼림칙하고 부담이 가득한 문제의 그 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차라리 아저씨가 계시지 않고 할머니만 계셨으면 하고 바랐
으나 현실은 소박한 내 바람을 저버리고 아저씨께서 마당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계셨다.

잔뜩 긴장하고 있는 나를 보며 아저씨께서는 “통계청 이준마 왔소?”
하며 먼저 말을 건넸다. 지난번 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다.
당황하고 무서웠던 기색을 숨기며 이 틈을 이용하여 용기를 내서 궁금한
것을 묻기 시작하자 너무도 자연스럽게 응해주시는 것이었다.

“아버님 다친 손은 괜찮으세요?” 물었더니 괜찮다 하시며 아저씨께서
나를 보며 주저리주저리 삶의 회한을 쏟아놓으시는 것이 아닌가. 기회는
이때다. 늘어놓으시는 말씀마다 짹째 맞장구를 치면서 말뼉이 되어
드리자 한 번 열린 말문 탓인지 내 질문에든 쉽게 답해 주셨다. 그간 내
가슴에 쌓인 응어리가 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아저씨는 얼마 전 아내와 이혼하고 할머니와 딸을 키우며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건강에 신경을 못 써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그리고 쌀값이 너무 낮아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한참을 아저씨의 푸념을 들으니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한 집 한 집 방문을 하다 보면 내가 돈 주고도 못 하는 인생 공부를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에 조금은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든다.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아저씨와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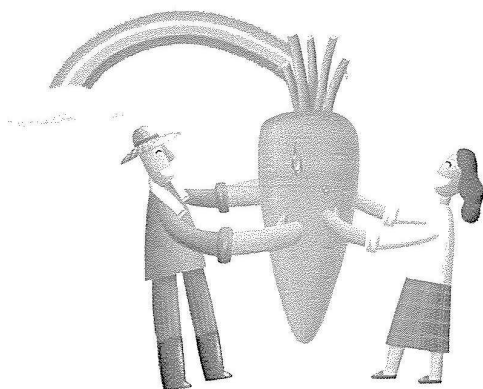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집을 나와 몇 집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마치고 나서 귀청을 위해 주차해 놓은 곳으로 가자 자동차 사이드미러 양쪽에 비닐봉지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봉지 안을 보니 단감이 들어 있었다. 영문을 몰라 마을 어른들께 자초지종을 여쭙고 있던 중 그 문제의 아저씨께서 나오시며 “우리 집 감나무에서 바로 딴 것이라 맛이 있을 거요.” 라면서 말씀을 하시고는 쑥스러운 듯이 획 돌아서 집안으로 들어가셨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조사에 응해주신 것만으로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까지 해 주다니……. 가슴속에서 뭉클한 뭔가가 솟구쳐왔다. 찢어진 조사 표와 냉대로 상처받은 마음을 말로써는 사과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경상도 아저씨의 깊은 정이 담겨 있는 서툰 표현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이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작은 보람까지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들으니 지난번 방문하여 당신으로 인하여 통통 부은 눈으로 옆집에서 안쓰러움을 사다가 차마 조사도 못하고 중도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웃을 통해 전해 들으셨던 모양이었다. 나를 그렇게 보내놓고

당신 마음 한 구석이 시려할 줄 아는 착한 분이셨던 것이다. 괜한 오해와
두려움으로 인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벽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비록 몇 달은 힘들었지만 어찌 보면 쓰디 쓴 대가를 치르고 얻은 달디 단 열매인지라 더욱 감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 내가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퇴근 해 오면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현장을 발로 뛰면서 조사한 자료 하나 하나가 모여 국가정책 수립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자부심과 조사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격려가 있기에 피곤함을 잊고 조사표 정리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가을을 마시고 사랑을 마시고



충북통계사무소 / 농수산조사과 / 강명호

가을을 마시고....

사랑을 마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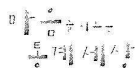
가을을 열어 커피한잔에 담아본 세월이 통계청에 입사한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 28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오늘도 안개가 자욱한 출근길을 재촉하여 은행잎, 단풍잎, 갈대 잎을 넣어 가지런히 저어서 커피 한잔 마셔본다. 코끝에 데이는 가을은 진한 구수함이 가슴을 쉬게 한다. 들국화 잎 따다 하나 띄워 반가이 떠오르는 미소 한 자루 반기려할 새 없이 금세 과장을 잃고 맴만 돌고 있는 국화잎 한 장~ 상큼한 가을 아침 창문 넘어 그리움이 물밀듯 잔속으로 잠겨오고 한 모금씩 목젢으로 넘길 때마다 느껴오는 가을의 향기를 느끼며 가을을 마시고 사랑을 마셔본다.

눈부신 햇살이 온누리에 똑똑 떨어지는 10월~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많은 사연과 이야기들도 잘 가꾸어진 28년의 세월을 만들어 고운 앨범 속에 고이 간직한 것을 하나하나 꺼내어 진열한다는 것이 팬스레 부끄럽지만, 내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겪은 체험을 글로서 표현하여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수 있고 동료 및 후배에게 전해 조금이나마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아름답고 기쁨이라 생각해 본다.

통계청 입사 후 많은 사연이 나의 주변을 맴돌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요즘 내가 담당하고 있는 농가경제조사 업무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듯싶다.

나 또한 농사에 대한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일까? 아님 요즘 젊은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며 농촌을 떠나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 때문일까? 하지만, 힘들고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힘든 곳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활하면 그 기쁨은 힘든 만큼 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수확의 현장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 본다.

어느 봄날 내가 담당하게 된 남이면 〇〇리 조사구를 인수받게 되었다. 청원군 남이면 〇〇리 이 마을은 청주시내에서 10킬로 쯤 떨어진 곳으로 8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인 산자락에 자리한 도심속의 농촌 마을이다. 청주에서 가까운 곳으로 농촌이라기보다는 도시 같은 농촌으로 처음 표본교체 때부터 농가 설득 할 때도 조사담당자들을 많이 힘들게 한 조사구였나 보다.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많고, 농사규모가 커서일까? 농사철에는



일거리가 많아 많이 힘든 곳이기도 하다.

조사구 대상 농가들은 농사를 많이 짓는 밭으로 농가 경영주는 항상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바쁜 농사철이라서 만날 수가 없고 일계부 작성 상태도 안 좋아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하였다. 이 조사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 중턱에 자리한 밭이 많아 처음 경지 파악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밭을 찾아 경지를 찾는 데도 등산화를 신고 ○○산을 30분 이상 올라가야 밭을 찾을 수 있다.

농가경제조사 담당자는 대상농가가 바쁘면 같이 바빠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농가는 논밭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만, 조사담당자는 일계부상에 농사를 지으면서 손과 발로 뛰어야 한다.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일하면 산으로 등산도 하고 건강이 좋아져서 좋은 업무라고 말들 하겠지만, 뜨거운 여름날 온몸에 땀을 흘리면 산 중턱까지 오른다고 생각해 보자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는 다 그 까닭이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산중턱까지 혼자 모르는 길은 찾아갈 때도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공포감으로 더욱더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한다.

농촌하면 우리는 의례적으로 사람들이 온순하고 정이 넘치고 다정 다감하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런 마음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리 조사지역 주민들은 그 농촌의 이미지를 상그레 무너지게 한 조사구였다.

다섯 농가 중 나를 가장 힘들게 한 4호 농가를 이야기 할까 한다. 경영주, 배우자, 부, 모, 장녀, 차녀, 장남으로 총 7명의 대식구로 한집에

3대로 구성된 농가이다. 경영주는 교사자격증까지 있으면서 도시에서 교사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젊은 사람이 귀농 한다고 하니 부모 및 가족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며 농가의 주름사이로 흘러내리는 어머니의 염려가 가득한 눈물을 살짝 엿볼 수 있다. 다들 귀농을 말리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4호 농가 경영주는 귀농하였다. 귀농한 경영주는 젊은 혈기로 대규모의 논농사와 특수작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삼농사를 시작하였다. 인삼농사, 논벼, 고추, 참깨 등의 대규모 농사를 지으면서 고가인 농기계를 구입하여 주변의 나이 드신 어른들의 위탁을 맡아 농사를 하고 있으니 농사철이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요즘 농촌의 실정을 한탄하고, 처음 귀농 할 때와는 달리 많은 의욕을 잃은 상태이다.

귀농하고 늘어난 것은 자산이 아닌 부채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경영주와, 처음 농촌으로 귀농하는 것을 반대하고 시골로 들어와서 일까 고부간의 갈등도 심하고 거의 농사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청주로 취업하여 낮에는 만날 수 없는 배우자, 아들이 농사짓는 일만 도우시면 사시는 노부모님은 하루 종일 인삼밭과 고추밭으로 다니시면서 일만 하신다.

처음 인수인계를 받고 일주일 후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일주일만 지났는데 일계부에는 아무것도 기재가 되지 않은 빈 일계부만 덩그러니 나를 반기고 있다. 이 농가는 식구가 많고 자녀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지출이 많은 농가인데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 마음이 바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농가경제 조사는 일계부를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정확한 조사가 이루

어지는데 농가 경영주가 농사를 대규모로 짓고 있어 만나기가 쉽지 않고 항상 시간에 쫓기어 일계부 작성이 힘든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바빠서 일계부 작성할 시간이 없다면 그냥 나가버리시는 경영주와 낮에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 부모님을 찾아다니면서 일계부를 작성해야만 했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현장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얼마만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조사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간파하고 평소 “사랑은 배풀면 배로 늘어나고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고 일계부를 경영주 및 배우자가 직접 작성 할 수 있도록 나의 작은 목표를 세웠다.

집에서 경영주를 기다리면서 부엌에 있는 설거지도 하고, 거실도 정리해주고, 소나기가 오는 때에는 빨래 및 농산물을 치워 주었다. 경조사 에도 적극 참여하여 친 가족처럼 지내도록 노력하였으며, 가구원 생일 에는 자그마한 선물(양말)을, 추석에는 치약세트 등을 전 가구에게 제공 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각종 농산물을 사무실 직원과 이웃주민들에게 직거래를 통하여 팔아주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사무소 직원에게는 싸고 싱싱한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가경제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항상 희생정신으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조사구 농가를 위하여 진솔 된 마음을 보여줘서일가 조사지역 주민과 친딸과도 같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부터는 경영주는 일계부에 수입 지출은 물론 작업 사항까지도 꼼꼼하게 기입해 주고 배우자는 본인의 가계부에 기입한 것을 일주일에 담당자가 방문하는 요일에

한번씩 거실에 놓고 출근하여 일제부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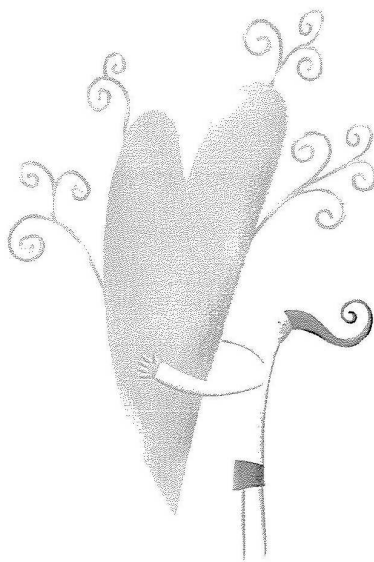
부채가 얼마인지 처음 물어보았을 때는 정말 거부가 심하던 농가 경영주가 이제는 부채가 얼마나 되며, 지나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요즘은 농가 아버님 어머님과 제법 친해져서 농가 아버님 어머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신다. 하루는 농가 아버님이 “야! 도시의 은행 앞이 셋노랑지가 않더라.”하고 말을 하기에 그 색깔을 유심히 보니깐 정말~ 도심을 벗어난 곳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다. 조금은 누리 톱톱한...(?) 아~ 그 나무들도 공해에 시달리며 살아가느라 고운 빛깔도 퇴색되어 버렸나 싶다. 도심속의 농촌 〇〇리 주민들도 아직은 때 묻지 않은 농촌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그 땀밭에서 땀을 흘려 노력한 결실을 수확하는 계절, 가을이 저물어 가니 여름철새들이 떠나고, 겨울 철새들이 날아들어 끼룩끼룩 청둥오리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이 시골벽적 떠들며 생기가 돌고 푸른 잎새 단풍으로 물들이고 누런 황금들판 추수가 끝나면 관절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은 조금 편안하게 생활 하실 수 있겠지요?

한결 가벼워진 달력을 보면서 펜스레 쓸쓸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아마도 농촌의 들판에서 느끼는 풍경 때문일까? 통계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처에 방문하다보면 유심히 반기는 어머님이 계신다. “외로움” 때문이란다. 참~ 무서운 것이라 생각이 든다.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인연. 원만히 맺어서 작은 것을 베풀 수 있게 다른 사람들 모두가 회피하는 업무 일지라도 귀한 마음을 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 행복하여 좋다.

살아보니 인생 눈 깜박하는 사이 흘러가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잠깐 머물다 가는 세월에 적어도 사람 몸 받았으니 사람답게~
부모님 살아계시는 자식답게~ 조금 더 아름답게 살다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려한다. 어디서 무엇을 하신들
조사지역 어머님, 아버님들이 외롭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제가 드리는 사랑의 향기를 곁 고은 갈바람에 살짝 실려 보냅니다. 농가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진정 친딸같이 아껴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숫자

98.2%



강원지방통계청 / 경제조사과 / 김금녀

어제 산 물건 값도 가물가물해서 제대로 기억 못하는데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숫자가 있다. ‘98.2%’

통계조사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면 무슨 실적이겠거니 하고 금방 눈치를 챌 것이다. 그렇다 2005년 영월출장소에서 가계담당으로 있을 때의 가계부 회수율이다. 올해 강원지방청의 가계부 회수율 목표치가 85.5%를 감안한다면 경이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도시가 아니라는 지역적인 특색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올릴 수 있겠지만 영월, 정선, 평창을 정규직 1명, 비정규직 2명이 담당하는 것을 볼 때 녹록치 않은 조사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월 영월출장소로 발령받아 첫 출근은 사무실이 아닌 조사 현장이었다. 전임자가 다른 출장소로 발령받고 서로 10년 이상 조사 밥을

먹고 있는 터라 시간도 절약할 겸 바로 현장에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그날도 어김없이 대관령의 살을 에는 듯 한 칼바람은 입까지 마비시켜 코에서는 콧물이 눈에서는 눈물이 얼굴에 난 구멍이란 구멍에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염없이 물이 줄줄 흘러 내렸다. 추운 날씨 때문에 솔직히 인수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때는 조사 불응이 문제가 아니었다. 추운 대관령 날씨와 사무실에서 1시간 40분 걸리는 거리 등 이런 것들이 조사 방해요소였다. 처음에 걱정으로 다가온 방해요소들은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돼 갔다. 먼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꼼꼼히 챙겨 보는 것으로 출장일정을 조절한다든가 1시간 40분 걸리는 거리는 어느덧 멋진 음악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코스가 되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익숙한 출장길이 되었다.

가계조사업무에서 현격한 실적은 가계부 회수율이다. 처음 가계 업무를 담당했을 때 90%가 조금 못 미치는 회수율이었다. 회수율 상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시도해 보기로 했다. 우선 조사구별로 가계 조사 불응가구의 사유를 파악하고 불응 설득 조를 결성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조원을 따로 결성할 것도 없이 가계담당직원 모두 설득 조였다. 설득조의 팀워크를 위해서 자주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사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부담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은 밥을 같이 먹어야 친해진다. 자주 식사를 하다보니까 개인 사생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조사구의 사소한 것까지 의견교환이 되어 가구설득의 해결방안이 가구유형별로 정리가 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바로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아닌가 싶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 유형별 불응가구설득 방법을 적어본다.

시간이 없다고 불응하는 가구

끈질긴 설득, 일명 될 때까지 조르기다. 이 가구는 일단 가계부에 대한 거부보다는 시간이 없어 가계부 기입에 대한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가계부 기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시작이 반이니깐 일단 시도가 중요하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일일이 기입할 시간이 없으면 영수증 부착도 가능하다. 컴퓨터로 작성하는 전자가계부 기입방법도 있다 등 기입시작을 유도한다.

노령으로 기입 능력이 없는 가구

잡은 방문이 최선이다. 영월군 주천면은 유독 영세 노인가구가 많은 조사구로 담당자는 거의 이틀에 한번씩 조사구를 방문하였다. 공공근로로 늦게 귀가하는 가구를 면접하기 위해서 늦은 밤에 방문하거나 일요일에도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리곤 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 조사원의 성실함 때문이었는지 나이 들고 글도 잘 못 쓴다는 이유로 가계부 기입을 거부했던 가구가 차츰 마음을 열고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조사원이 방문하면 가계부 위에 슬며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출내역을 최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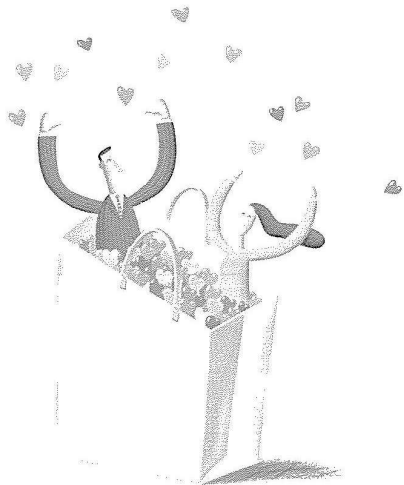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면접자체가 어려웠던 가구

의외의 실마리를 찾아라. 평창군 진부면 가구의 경우 전전 담당자부터 전 담당자까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가구가 있었다. 두 부부만 살고 있는 가구였는데 가구주의 얼굴은 볼 수가 없고 배우자는 현관문이 아닌 쪽문으로 출입할 정도로 대인 기피증이 있었다. 조사가 아닌 답례품 전달로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아예 불용가구로 제쳐놓았던 가구였다. 조사구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불용가구도 한 가구 한 가구 설득해나가고 있을 때 이 가구의 설득은 불가피하였다. 배우자가 안 된다면 가구주를 공약하기로 마음먹고 가구주가 다닌다는 직장을 찾아갔다. 찾아간 직장은 이미 퇴직하고 스키장에서 일한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거센 바람과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휘닉스파크로 갔다. 조사 경험상 날씨가 궂을수록 조사는 잘 되는 경향이 있다. 애처로움이 생기는 것 같다. 그 날도 가는 길은 불편하고 험난했지만 날씨 덕을 본 것 같다. 가구주는 궂은 날씨에 거기까지 찾아온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 같고 기꺼이 가게부 기입을 승낙하였다. 회계업무를 했던 분이라 수입·지출, 현 잔금까지 깨끗이 정리된 가게부를 받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설득조의 특별한 성과라고는 볼 수 없다. 가게담당자라면 누구나 시도하는 방법으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가 아닌 둘이었을 때 그 힘은 두 배가 되어 효과도 배가 되는

것 같다. 불응가구 설득조의 끈끈한 팀워크 덕분에 영월출장소의 가계부 회수율은 90% 미만에서 98.2%로 대상가구 55가구 중 54가구 제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 그 후로 목표는 100% 회수였지만 한계점은 있기 마련으로 연동표본으로 조사구 교체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회수율은 98.2%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되었다. 더해져가는 열악한 조사환경으로 그때 올렸던 기록은 깨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98.2%' 라는 숫자는 잊을 수 없는 숫자이자 기록이 되었다.



최고의 응답자 간담회



경기도지방통계청 / 부천출장소 / 이 소 영

우리출장소의 아픔.

경기도지방통계청 11개 출장소 중 맨 뒤에서 2번째. 무엇이???

가계부 회수율 최저조!!!

조사환경 탓인지? 아님 무슨 이유??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팀장인 나로서는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불응 설득 반을 편성하여 회수율 60%미만 조사구를 집중 설득해 보기로 했다.

그 설득 과정 중 실패한 조사구의 아픈 체험과 성공한 조사구의 기쁜 체험사례를 공유해보고자 한다.

아픈 체험

가계부 회수율이 30%인 연동표본교체 3개월째인 조사구 설득 지원 차 조사구 담당 직원과 함께 날짜를 정하여 저녁 시간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마침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어 불응 설득 반에서는 담당자와 의논 하여 가계조사 대상가구에 꽃바구니와 카드를 전달하기로 하고 부랴부랴 꽃바구니를 주문하고, 정성을 담아 카드를 작성하고 홍보지를 준비하는 등……. 방문 준비는 모두 끝. 마음의 준비만을 끝내면 되는데……. 담당 직원은 거의 반 포기상태로 너무도 완강하게 불응하는 가구들이라서……. 문이라도 열어 주어 면접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축된 얼굴로 내가 혹여나 큰 기대를 할까봐 위로 아닌 걱정을 한다.

담당 직원이 경력이 있으셔서 연동표본에 대한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조사구가 초반부터 주민들이 담합하여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문을 열지 않아 접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사실 며칠 전 경비실에서부터 출입을 못하게 차단한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 동대표자님, 통장님, 부녀회장님을 모두 초청하여 소장님과 나는 식사대접을 하며 통계조사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한 설명, 비밀보호 등등을 간곡하게 설명 드리고 협조안내 방송과 출입은 허가를 받았으며, 그날 밤 통장님과 부녀회장님이 1차 설득해 보시겠다고 하여 우리들은 아파트 1층 밖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었다.

잠시 후 통장님, 부녀회장님이 만나고 오신 가구는 2가구인데, “자기

들이 표본으로 뽑힌 그 자체도 불쾌하며, 이해 할 수도 없고 응답하기도 싫다고 완강하게 거절하며, 통장, 부녀회장이 승낙하여 우리아파트가 뽑힌 거냐? 며 난리를 치시는 데는 당신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시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미안 해 하신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시켜 드린 그분들에게 더 죄송하다고 인사드린 후 그날은 일단 철수하고 다음에 다시 대책을 강구하여 방문하기로 작심했던 끝에 생각한 아이디어였다.

가계부 한권이라도 설득해보자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어버이날을 위한 꽃바구니를 들고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했지만 용기를 내어 조사구를 향해 다시 돌진한 게 오늘.

낮에는 맞벌이가 많아 부재인 가구가 많아 오후 7시쯤 예쁜 꽃바구니를 차에 싣고 조사구에 도착했다.

먼저 전자가계부를 작성해주고 있는 새댁 네부터 방문하여 꽃을 전달하니 반갑게 맞아주며 너무 고마워하기에 그래도 기분이 좋아졌다. 출발이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다음 가구로 향해 조심스럽게 벨을 누르니 묵묵부답이다. 다음가구도 묵묵부답, 그 다음가구도……. 또……. 또……. 또…….

집에 계시면서도 인터폰으로 얼굴을 확인하고 문을 안 열어 주시는지?? 아님 부재중인 것인 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불응 7가구가 모두 묵묵부답이다.

이럴 땐 최첨단 인터폰 시설이 너무 알밋고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이 아파트는 1층 출입구부터 비밀열쇠로 되어있어 조사담당자가 통과하려면 경비실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한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1층 출입구로 내려가 9시까지 서성이며 아파트 현관 입구 문에 들어가는 분만 보면 응답자인지 다시 쳐다보기를 반복하고 있던 중 한 아주머니께서 전화 통화를 하시며 지금 올라간다고 우리 대상 가구의 호수를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닌가! 얼른 몇 호에 가시냐고 여쭙봤더니 우리 대상가구를 방문하시는 손님이사란다. 그렇다면 조금 전 몇 번씩 벨을 눌러 보았는데도 기척이 없었던 것은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 주었구나!! 하는 생각에 얼른 손님을 따라 같이 올라가서 손님을 맡는 열린 문틈으로 통계청직원입니다. 잠시만 뵙고 가겠다고 했더니 문을 열른 닫으며 통 나오시지를 앓으신다. 몇 번을 더 “잠시만 뵙고 갈게요” 하며 서성이고 있었더니 직장에 다니는 장남이 나오면서 다짜고짜로 욕을 해대며 도대체 하기 싫다는데 왜 귀찮게 계속 오냐면서 내미는 꽃바구니를 내팽개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담당 직원은 놀라서 대답도 못하고 있고 순간 너무 당황하여 나는 “잡상인이 아니다, 엄연히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하시며 소리를 지르는 거냐.”며 한참 동생뻘인 장남에게 조용히 얘기를 했더니 조금 움찔하면서 “지금이 일제 시대도 아니고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왜 우리 부모님을 귀찮게 하냐? 한 번만 다시 우리 집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씩씩대기에 그래도 분을 삭이며 차분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다시 또 너무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기에 일단 다시 찾아뵙겠다고 인사한 후 바닥에 흐트

러진 꽃바구니를 추슬러서 내려오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를 시키지 못한 상황이 너무 답답해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다.

아파트 밖에 나와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불이 다 꺼져 있는 응답가구들을 목이 빠지게 바라보며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는데……. 아뿔싸! 한가구가 불이 켜진다.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봤는데??? 하긴 무슨 상관이야!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하며 담당자와 눈이 부딪치는 순간 우리는 벌써 한손엔 꽃바구니를 들고 그 응답가구 앞에 서서 벨을 누르고 있었다. 만날 수 있겠지 하는 잔뜩 기대와는 다르게 역시나 인기척이 없다.

허전하고 힘 풀린 다리를 이끌고 그래도 한가구라도 설득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아래층 응답가구로 방문하려 하니,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젊은 아가씨가 있기에 대상가구의 딸임을 직감하고 전화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혹시 000호에 사세요?”, “아니어요.” “부모님을 뵈려고 왔다가 안 계셔서 그래요.” 갑자기 왜 자기를 스토커처럼 이 늦은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냐면서 “당신들 통계청 직원이 맞아요?” 따지듯이 묻기에 얼른 공무원증과 명함을 보여줬더니 하는 말 “요즘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도 믿을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으니 돌아가세요. 우리 집이 표본으로 뽑힌 것도 기분 나쁘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자기 집이 아니라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버린다. 참 어이가 없었다.

담당자 말이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란다. 순간 우리 아들도 초등학생

인데 교사들이 저런 태도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숨이 탁 막혀왔다. 정말 뭐 이런 조사구가 다 있나 싶어 맥이 탁 풀려 버리고 젊디젊은 사람들에게 완전 무시당하고 났더니 화도 나고 기운도 빠져서 오늘 일진은 엉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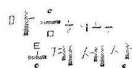
오늘은 일단 철수 하자며, 면접하지 못한 응답가구에 전달할 꽃바구니에 “방문했는데 못 뵙고 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어버이날 되세요. 다음에 방문하겠습니다.”란 예쁜 카드 + 쪽지 편지를 담아 현관 앞에 하나씩 두고 돌아서는 시각은 밤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노력했건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가슴은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에 화도 나고 내 직업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껴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함 투성이에 상처뿐이었다.

그래도 또 용기를 내어 다음날 점심을 먹고 다시 담당자와 조사구를 방문했더니 뜨 ~ 악 !!! 그 비싼 꽃바구니들이 다 현관 앞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정성을 들여서 쓴 카드 + 쪽지편지도 그대로 꽃 속에 파묻힌 채…….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응답자들이 얼마나 하기 싫으면 이렇게까지 메마르고 각박한 태도를 보이냐 싶은 생각도 들었다.

꽃은 그대로 두고 어제 못 만난 가구들 중에서 혹시나 집에 계신 응답자분이 있나 해서 벨을 눌렀더니 다행히 한 집은 아저씨가 외출 준비를 급하게 하시면서 문을 열어 주신다.



지금 나가 봐야 하신다는 아저씨를 붙들고 “지난번 아주머니께 가게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주머니는 식당일로 밤늦게(밤 10시부터 11시경) 귀가하셔서 못쓴다고 손사래를 치시고 뵈기도 힘드네요. 그러니 아저씨께서 대신 가게부 작성을 해주시면 안돼요?” 조심스럽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운을 떼어 보았다. 아저씨의 첫마디는 남자가 무슨 가게부를 쓰냐면서 꺾쩍 댈 시기에 남자 분들이 작성하시는 가구도 많이 있으며 오히려 더 잘 작성해 주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난 하기 싫다며 일하는 시간도 일정치 않아 새벽에도 나가고 밤늦게도 나가는 막노동 하며 피곤한 일과를 보내는 사람에게 무슨 가게부를 쓰라고 하느냐, 바쁘니 그만 가라”고 하며 문을 잠그신다.

참으로 힘이 빠지지만 한가구라도 설득해 보자는 일념으로 다음 가구를 멍동 멍동…….

“누구세요?”

“통계청 직원인데요.”

최대한 밝고 예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 시험기간이라 일찍 집에 온 중학생 자녀가 있었다.

“무슨 일이신데요?”

“잠깐 문 좀 열어 주세요. 엄마에게 이 꽃바구니 좀 전해 주세요.”

문 밖에 있던 꽃바구니를 전달하려 하니 엄마가 절대 통계청에서 주는 물건은 받지 말라고 했다면서, 죄송하다며 문도 안 열고 인터폰으로만

애기를 한다. 아이구!!! 그놈의 인터폰이 문제다…….

도대체 문이라도 열려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상황이 한심하기 그지없어 두 다리뿐 만이 아니라 온 몸의 힘이 다시 한번 쭉 빠져 나가는걸 느낀다.

가계부 한 권 설득하기가 이리도 힘들단 말인가?

정말 불용가구 7가구 중에서 한 가구라도 호응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방문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도 다 허사가 되고, 연 이틀을 대상가구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다 보니 완전히 의욕 상실이 되어 스스로가 무능력한 사람인 것 같은 마음이 들기까지 하였다.

그 후로도 계속 구구절절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홍보자료를 우편함에 넣어 놓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애써 보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조사구에서는 더 이상의 협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한 달 전에 한가구의 임산부가 예민한 상태라서 방문하는 것조차 싫다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가구팀장을 맡고 있는 나로서는 방과 할 수가 없어서 소장님을 모시고 담당자와 함께 대상가구를 방문했었다.

26세정도 밖에 안 돼 보이는 젊은 새댁은 배가 남산만 하게 불러 있어 출산을 두 달 앞두고 있었다. 겨우 밖에서 애걸복걸 사정하여 환관문은

열렸는데……. 잠깐 5분만 들어가서 통계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해도 현관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 상황을 감내하시며 소장님은 인내심으로 30분 이상을 신발도 벗지 못한 상태로 현관에 서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에 대한 중요성과 취지, 개인의 비밀보호 등등……. 설명하고 준비해간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등등 을 드리며 협조를 부탁드린 결과 본인이 임산부라 애민하여 사람이 집에 오는 것도 싫고, 신경 쓰기도 싫고……. 등등 많은 이유를 내세웠다.

젊은 사람이 해도 해도 참 너무하다. 배속에 아이가 뭘 배울까???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소장님은 집에 찾아오지 않을 테니 우편함을 이용한 보조조사표 작성 부탁과 전화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일정을 알려드릴테니 경제활동인구조사만이라도 인터넷조사로 해주시길 부탁드린 결과 허락했던 가구다.

이렇게 어렵게 겨우 응답해 주는 가구였는데 이 새택이 표본으로 선정된 불편한 마음을 통계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담당 직원이 알게 되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압당한 현실 앞에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보게 되었고……. 한집이라도 시간을 두고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같은 종교를 가진 응답가구들 끼리 더 담합하여 조사에 응해주지 말자면서 경제활동인구조사까지도 불응이 증가되고 있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소장님께서도 계속 밤늦게 까지 방문하시어

며칠을 수고하셨지만 열리지 않는 문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설득이 어렵게 되자?? 가계부 회수율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불응을 하는 조사구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양질의 통계자료도 얻을 수 없다??고 조사구 교체로 결론을 내리셨다. 몇 달 동안의 수고는 허사가 되어 버리고 그야말로 조사를 중단하는 쓴맛을 맛보며 부랴부랴 교체 신청을 했다.

예전 아파트 가격에 대해 답합을 한다는 뉴스를 들은 적은 있지만 그 답합이 이젠 통계조사에까지 확대되다니…….

참으로 무서운 현실 앞에 다시 한번 몸서리쳐졌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음 단추까지 계속 어긋나서 우스운 모양새가 되듯이 연동표본으로 처음 시작되는 조사구는 대상가구들에게 정말 많은 홍보와 충분한 설명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며 사전 조사 시 붙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응답자들은 일회성 응답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었다가 지속적으로 재방문을 하는 조사관들을 보게 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응답 거부를 하게 되고, 한 번 하기 싫다고 불응 한 가구들은 생각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의 조사 환경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교훈을 얻었으며, 이런 실패를 경험 삼아 신규조사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득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는 각오를 우리팀원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 후로 교체조사구를 받고 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팀 전원은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하여 대책회의를 한 결과 조사시작 사전에 응답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당장 8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

조사를 동시에 시작하여 가게부가 나와야하는 상황이었다.

기쁜 체험

이 시각부터 우리 출장소 가게부 회수율을 위한 전쟁 선포…….

담당자 혼자의 힘으로는 시작도 안한 신규조사구의 응답자를 모으게 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어 소장님과 팀장, 가게조사 총괄자가 1조가 되어 관리사무소장에게 찾아가 아파트 동대표, 통장, 부녀회장을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통계조사의 취지 및 자료의 쓰임, 표본선정 동기 등등…….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 일정과 시간, 장소 등을 협의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모이신 분들이 우리의 간절함을 이해하셨는지 다들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간담회 일정은 이를 뒤인 7월 24일로 잡혔다.

일단은 뭇 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을 느끼며 사무실에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팀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사업체팀과 농수산팀도 다 같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다.

나머지 우리팀원들은 2조가 되어 간담회 준비에 돌입, 팀장인 나와 가게조사 총괄자는 선물준비 돌입, 소장님과 서무는 초청장 만들기 돌입, 사업체팀과 농수산팀은 현수막, 식당예약 등등 돌입……. 아! 진땀이 났다.

하여튼 무지하게 바쁘게 돌아가지만 행복한 미소는 희망이라는 단어

앞에 피어오르며, 힘든 줄도 모르고 간담회는 예정대로 응답자부부가 다 모이실 수 있는 밤 7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변???

장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간!! 갑자기 우리 출장소 전 직원은 누구랄 것도 없이 한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나와 담당자를 따라 조사구로 가서 응답가구 한 가구 한가구를 방문하며 간담회에 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한분 한분 모셔오기 시작했다. 남편 식사준비로 못 오신다는 가구는 부부를 모셔왔고, 아이들 때문에 못 오신다는 가구는 아이들을 같이 태우고 모셔왔다.

우여곡절 끝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참 많은 응답자분들이 모이셨다. 준비해 간 홍보지와 블루슈머, 보도자료를 나눠드린 후 통계조사의 중요성 및 자료의 쓰임, 표본선정 동기, 비밀보호 등등……을 설명 드리고 가계부 기입과 경제활동인구조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순간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터졌다.

통장님께서 “이토록 국민들을 위해서 애들 쓰는데 가계부를 써야 하지 않겠냐”며 의견을 꺼내시자마자 아!! 또! 그 중 나이가 제일 지긋하신 다른 한 주부님이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 남편과 자식들이 다 쓰는 자료네!! 어차피 우리 아파트가 뽑혔으니 다 같이 한번 써보자”고 선동 아닌 선동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좌중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응답자들 사이사이에 끼어 앉아있던 우리 출장소 직원들이 각각 음식과 약간의 알코올을 대접하며 자기 실력들을 발휘해 설득에 설득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남편 분들은 취기가 흥건하여 “여보 가게부 써야 되겠는데!!” 하신다.

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목 메이게 그리웠던 말인가!

순간 우리 모두는 답답했던 가슴이 뻥~~하고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을 맛보았다.

이렇게 어렵게 응답자 간담회는 성황리에 무사히 끝나고 또다시 우리 직원들은 빗속을 누비며 응답자분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다 끝난 시각은 밤 11시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우리출장소 직원들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만면에 웃음꽃 가득... 정말 모두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함이었다.

8월부터 경찰 조사 및 가게부를 동시에 시작했는데 첫 달에 5가구 회수를 시작으로 3개월이 다가오는 10월 가게부 회수는 적격가구 9가구 중 7가구를 회수할 수 있는 쾌거 아닌 황재를 하게 되었다. 첫 단추를 잘 끼려면 사전홍보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만일 전 직원이 도와주지 않고 담당자 혼자에게 맡겨졌다면 이렇게 훌륭한 성과는 거둘 수 없었을 것이란 걸 우리출장소 직원 모두는 절실히 깨달게 되었고 앞으로도 각 팀 및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땐

언제든지 서로 도울 각오로 단합되었다.

이렇게 맺은 결실은 또 한번 그 빛을 발휘하였다.

엊그제 농수산통계팀원 5명으론 도저히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운 쌀
예상량조사 및 쌀 수확량조사 시 사업체팀원이 지원하여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쾌거를 다시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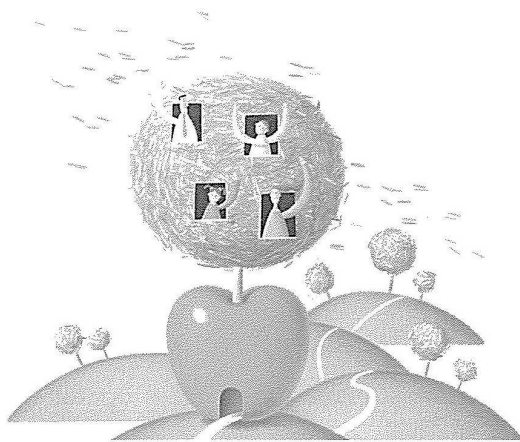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과는 성공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늘상 들어 왔지만 막상 이렇게 한
조사구를 실패란 이름으로 버리게 되니 그 좌절감과 허탈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상처로 남게 됐다. 물론 설득을 하고 난 후에 갖게 되는
그 상반된 감정인 희열감도 말할 수 없이 컸기에 열악하고 힘든 현장
조사를 밤낮으로, 주말에도, 때론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뒤로 한 채
쫓아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닐 런지…….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도 증가하면서 우리의 조사 환경은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다. 전에는 조사구의 응답자들을 만나는 것이 반갑고,
즐거웠고, 힘겨워하는 응답자들의 사정을 들으면 같이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나누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드리며 내 작은
사랑주머니는 활짝 열렸었는데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언제 오나 기다려 주시고 방문 드리면 글썽 오늘쯤
올 것 같았어 하시는 정겨운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힘을 내서
벌떡 일어나 또 조사구를 향해 가볍게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하고 꽃피는 봄날이 오고, 어려운 시절이 지나면 또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기에 실패는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지며, 내가 담당하고 있는 조사구뿐만이 아니라 우리팀원들의 더 많은 조사구 응답자들을 만나 신나게 설득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재무장을 하면서 어느새 나는 응답자들과의 첫 데이트를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겨울을 보며 예쁘게 나를 포장하고 있다.

오늘도 열악한 환경의 현장을 누비는 전국의 통계조사관 여러분!!!
파이팅 텡 텡~~~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다.



경남지방통계청 / 통영출장소 / 김 미 선

어업생산 통계조사원으로 일한지도 10개월을 넘어 서고 있다. 앞선 선배님들에게 비하면 너무도 짧은 경력이어서 선배님들의 체험사례처럼 슬프고도 애잔한 감동을 주는 내용도 없고 거창한 사연도 없지만 내 나름대로 겪었던 일을 적어 보려 한다.

여태껏 난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그래서인지 사람들과 대면 대면하게 지내는 성격이 아니었는데도, 많은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통계조사업무가 별반 두렵지 않았다. 내 자신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곳의 응답자들은 모두 친절하고 성의 있게 대답해 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던 것일까? 첫 응답자를 만나러 갔을 때의 일이 떠오른다. 어업생산통계 업무 중 어류양식현황을 조사하려면

육지가 아닌 가두리 양식장을 직접 찾아가야한다. 여객선을 이용하면 바다 한가운데 뚱뚱 떠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하러 가시는 어민들의 배를 이용해야 목적지에 갈 수가 있다.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다. 코끝이 베일 것 같은 차가운 바람을 내뿜은 피부로 막으면서 설레는 맘으로 가두리에 내려는데 첫 만남부터 뼈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힘들게 갔으니 따듯하게 맞이해 줄 거라는 심한 착각을 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머금은 후 상냥하게 인사를 했건만.. 찬바람을 일으키는 싸늘한 말씀...

“뭐 하러 왔소? 여기 있는 가두리 다 둘러보고 와도 당신들을 반기는 사람 단 한명도 없을지요. 고기 값은 오르지 않지. 사료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지. 은행에서는 매일 돈 갚으라고 압박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근근이 연명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내 놓지 못할망정 쓸 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말이야. 도움도 안 되는 통계는 뭐 할라고 하는 거요.”

뜻하지 않은 반응에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다.

어민들의 애로 사항은 주위에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모르진 않았지만, 첫 만남에서 이렇게 까칠하게 나오다니 예의 없는 응답자란 생각에 서운함이 앞섰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응답자만 만나면 어쩌나 싶어 심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어쩌랴... 통계조사업무에 앞서 어민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도 내가 할 일이지 싶어 바다 한가운데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그분의 뉘두리를 ‘그렇지요, 그렇죠.’ 하면서 묵묵히 들어 주었다.

그런 후에 온 진심을 담아서 “많이 힘드시죠, 사장님! 잘 알면서도 도움 드리지 못하고 매일 부탁만 드리는 입장이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 맘 같으면 우리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리고 싶지만 항상 마음뿐이니 죄송할 따름이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 통계업무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게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저의 첫 응답자인 사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담보삼아 열심히 하겠으니 앞으로 오면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나의 몇 마디에 굳어있던 사장님이 나의 얼굴을 쓰~ 옥 쳐다보시더니 “많이 추울 긴데 안으로 들어갑시다. 커피 한잔 줄 테니...” 커피를 마시면서 사장님의 힘듦과 통계조사업무의 힘듦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웃었다. 그 후로 사장님은 나의 더없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셨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가두리로 들어갈 배가 없다고 섬 밖에서 전화 드리면 귀찮다는 말씀 없이 바쁜 와중에도 배를 운행해 주시면서 다른 가두리까지 다 둘러주시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신다.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 그 후로 어촌계를 끼고 있는 어장에 조사차 나간다고 연락을 드리면 점심까지 맛깔 나게 준비해놓고 기다려 주신다.

그곳의 밥해주시는 아주머니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가씨가 온다는 날에는 우리 사장님이 찬에 신경 쓰라고 어찌나



닭달을 하는지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물론 난 아가씨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더없이 감사하고
고맙다. 난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만약에 가두리 양식장으로 가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서 전화조사만을
하러 했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귀한 수확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 뵙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는 조사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되었다.

이 한분으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또 한분의 복병을 만나 가슴앓이를
한두 번째 사연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날도 어류양식 현황조사를 위해 배를 탈수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날 어민들이 회의가 있어 날 데리러 오실분이
안계셨다. 사전에 확인을 하지 않은 내 탓이라 섬으로 갈 수는 없고 차안
에서 조사대상처 한분에게 전화를 드렸다.

이분은 가두리를 제법 크게 하시는 개인 사업업체였는데 ‘통계청
김미선입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왜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며,
단 한 마리도 양식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통계조사에 협조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절대 전화하지 말라며 내가 다음 말을 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는
전화를 뚝 끊으셨다. 원래 상처를 잘 받는 어린 마음을 가진 나로서는 견디
기가 힘들만큼 아팠다.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위해 내 맘이

얼마만큼 아파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니 통계조사원의 위치가 더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했다.

다음 대상처에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해야 했지만 상처받은 내 맘이 도저히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한군데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차를 돌려 사무실로 돌아왔다.

한 이들을 심한 상실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니 그분을 직접 찾아뵙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다른 어장주에게 전화를 해서 가두리 배운 행을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직원을 보내주셨다.

한번 호되게 당한 상황이라 대상처 가두리가 가까워 올수록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다시 도망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심호
흡을 크게 한번한 후 용기를 내어 그 가두리에 발을 내리고는 큰소리로
“사장님” 하고 불렀더니 누군가 고개를 숙 내밀로 날 물끄러미 쳐다
보았다. 막상 대면하게 되면 사람이 조심스러워 지는 것인지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통계청 김미선입니다.’ 하고 방긋 웃으며 인사를 했더니
사장님은 자기가 언제 나에게 까칠했냐는 듯 뜻밖에도 반겨주셨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한 어종도 조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원체 자기 업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꺼려하시는 분이셔서 주위에 다른 업체가 있어 답변이 곤란하니 나중에 사무실로 가서 전화를 해주면 소상히 알려주신다 했다.

사무실로 와서 전화를 했더니 웬걸... 아직도 사람들이 많아서 안되니 6시쯤 해달란다. 또 6시가 되길 기다렸다가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운전 중이라 곤란하단다. 미안하지만 조금 있다 전화주면 좋겠단다. 난 다시 그러마 하고 퇴근 후 7시쯤 되는걸 보고 다시 전화를 했다. 오늘 결말을 내지 않고서는 영원히 실마리를 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에 그렇게 전화를 해뒀건만..

7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몇 차례 전화를 했지만 신호음도 없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알미운 멘트만 내 귓속을 어지럽혔다.

정말 울고 싶었다. 심한 배신감과 억울함이 교차하면서, 하루 종일 보인 나의 행동들이 그렇게 바보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나를 놀리는 거였나...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저히 그분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차라리 더 이상 전화하지 말란 말이 더 인간적이었다 싶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매너 없고 나쁜 사람이라며 온갖 나쁜 수식어를 섞어서 남편에게 종일 있었던 나의 비참한 일과를 말했다. 저런 분과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으며 더 이상 마음 다쳐가면서 통계조사원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내일 출근하면 사표를 제출할거라는 엄포를 놓았다.

다음날 출근을 해서는 우울한 기분으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어제 아주 늦은 시간에 ○○○씨라는 분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담당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닌가?

잉?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분명 그분인데.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이얼을 돌렸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분의 이야기인 즉슨 어제 저녁 다른 모임이 있어 약속장소에 갔다가 나와와 전화 약속이 생각 나서 전화를 하려 했는데 전화기 배터리가 꺼져 버려서 도저히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다니던 해양수산사무소에 전화를 해보 았더니 통계조사원이 모두 통계청으로 갔다고 알려주더라. 다시 통계청 으로 전화를 했는데 다 퇴근하고 없었고... 그나마 내 이름이라도 알았더라면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을 텐데 내 이름조차 모르니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 너무 미안해 하셨다. 밤새 자기 욕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신경이 많이 쓰였다면서 말이다. 그 순간 나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의를 다해주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날 억울해서 왕왕거리던 내 행동이 미안할 지경이었다. 난 그분의 말씀이 끝난 후 그렇지 않아도 너무 속상해서 밤새 사장님 미워하면서 울었노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고 했더니 껄껄껄 숨넘어가게 웃으 시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으마 하시면서 너무도 친절하게 하나 하나 소상히 조사내용을 알려 주셨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했던 이분의 적극적인 응답에 난 세상을 다 얻은 듯 신바람이 났다.

여기 위의 까칠했던 마지막 한분을 나의 적극적인 응답자로 돌려 놓으면서 나의 통계조사업무는 어렵지 않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통계청에서 통계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인에게는 복종하면서 문밖의 손님은 물어뜯으려 하는 ‘맹구주점’의 강아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려 한다. 나 한사람의 행동이 통계청의 모습임을 매순간 기억

하며 응답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리는데 작지만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세상 모든 일이 모두 너무 쉽기만 하다면 오히려 신나게 일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가끔 내 안일한 삶에 채찍이 되어줄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지 않더냐...'



통계님께

- 일계부 작성을 해야 하는
100가지 이유 -



충북통계사무소 / 충주출장소 / 김 목 식

통계님 안녕하세요?

전 농가경제조사원 김목식입니다. 어느새 2008년도 다 지나고 두어 달 남짓 남았군요. 흰 눈이 세상을 덮을 때 통계님 댁 대문에 들어와 꽃 피고 새 울던 새봄을 거쳐, 무덥던 여름도 보냈고 이젠 가을단풍이 저를 반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곱게 깔려있던 천연의 비단이불도 사라져가겠지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지난 일 년여 동안 이것저것 배우며 통계님과 친하게 지냈었죠? 통계님을 가까이 하면서 저에겐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슬프고 힘든 일도 있었죠. 이제부터 좋은 일 보단 나를 가슴 졸이며 슬프게 했던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다시 생각하면 기쁨이라 볼 수도 있겠군요.

지난봄의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건 조사원 초년병에겐 그 일이 큰 부담이었던 모양이에요. 농가에서 함께 파종이 한창이던 봄날, 새로 인계받은 ○○○지구의 한 농가와 방문의 방법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일계부 기입 거부 사건이 생기고 말았지요. 바쁜 농사철이라 농가의 어른들이 다들 들에 나가 계시는 시간이 많아 집에선 얼굴 뵙기가 무척 힘들었죠. 그래서 밭으로 찾아다니기 다반사였고요. 3호 농가도 마찬가지로 집에 들러 집에 아무도 없으면 밭으로 가곤 했지요. 어떤 때에는 그냥 돌아오기도 했고요. 시부모님과 아들 내외, 두 남매는 객지에 나가 공부를 하는데 대상가구 중 유일한 대가족입니다.

그날도 나는 다른 가구 방문하듯 마당을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마당에서 야궁이에 불을 때는 언니의 반응이 영 싸늘한 것이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전 그냥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님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었죠. 그래도 별 반응이 없더니 대뜸 “나 이제 일계부 안 쓸 테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일계부는 태워버렸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만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계속 귀찮게 하고 우리 집에 함부로 들락거리는 거 싫으니깐 가세요.” 하신다. 제 귀를 의심하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도 여전히 같은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정말 이럴 때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죠. 표본가구라 그만두시면 안 된다고 이런저런 설득을 해봐도 대꾸가 없이 가란 소리만 했어요. 저도 더 이상 말을 건네지도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팔다리 기운이 쭉 빠지고 겁이 덜컥 났어요.

난 이제 어떡해야 하는 걸까? 통계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장 마치고 돌아와 사무실에선 이 고민을 털어 놓지도 못하고 6시 퇴근
하자마자 제과점에서 빵도 사고 슈퍼에 들러 막걸리도 하나 샀어요. 새로운
일계부를 가방에 넣고 다시 그 농가를 방문 했을 때 저녁을 드시고 계셨
어요. “이 밤에 웬일이냐”고 다들 놀라시더군요. 그런데 정작 언니는 안보
이니 제 가슴이 더 답답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 방에 누워 있다고
해서 방을 들어갔어요.

이불을 싸매고 누워 돌아보지도 않으며 낮에 분명히 안 쓴다고 했는데
왜 또 찾아 왔냐며 역정을 내더니 화가 난 이유를 설명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연락도 없이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 일계부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잘못이라
네요. 전 그동안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기에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일계
부만 작성하고 나오고, 궁금한 것은 전화 통화로 여쭙보며 작성하고 나오
면 될 줄 알았었죠. 그것이 이런 사건을 일으킬 줄이야. 언니는 자기 방에
허락 없이 누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가족들도 허락 맡고
들어 와야 한다고……. 그렇지만 난 분명히 참깨 밭에서 “오늘은 집에 먼저
들러왔어요.”라고 말씀 드렸는데 못 들으셨다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 이후로 며칠이 흐른 뒤 다시 음료수를 사들고 방문하면서 일계부
작성을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후로도 몇 번……. 결국은 팀장
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같이 설득 좀 해봐 달라고……. 그래도 별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은 소장님까지 출동을 하시게 되었고 설득 과정에서 언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나한테 내가 이 농가경제 조사에 응해야 하는 100

가지 이유를 적어오면 다시 쓰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소장님도 그럼 아예 안 쓰시겠다는 말씀인데 하시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표본이란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것이 아닙니다.”하고 말씀하십니다. 워낙 완고하신 분이라 이젠 별 도리가 없단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은 이번 달은 그냥 지켜보면서 마음 가라앉길 기다려 보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 내 손으로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집에 돌아와 밤새 지침서와 일계부를 들춰가면서 문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 농가경제조사 표본 집단에 선정이 되어서
2. 우리나라 농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를 작성하는데 도움준다.
3. 농가경제 정보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
5. 농림부의 농가정책 수립에 도움을 준다.
- ⋮
50. 농촌 인구의 증감 파악에 도움을 준다.
100. 농가별 농업소득격차 분석에 도움을 준다.

드디어 이틀을 고심한 끝에 100문항이 채워졌어요. 첫 문항 만들기를 시작하며 막막하던 눈앞에 하얀 백지 가득 빼곡히 들어선 100개의 문항을 바라보는 순간 “이젠 됐다! 더 이상 안 쓴단 소린 못하실 거야.” “야호!!!” 난 혼자 신이 났습니다. 이참에 몇 가지 더 추가해 아예 104개의 문항을

완성하였지요.

통계님! 저 정말 저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100문항 만드느라, 아니 104문항이요. 과연 이걸 받아들고 농가의 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종교도 없는 제가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예수님, 부처님 제발 우리 언니가 일계부 쓰는 걸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역시 104문항의 위력은 컸습니다. 봉투에 담긴 사과의 글과 104개의 긴 사유서를 읽어보면서 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언니는 “다시 일계부 쓸게요.” 하는 말을 건넸어요. 한 3주 살얼음판을 위태롭게 걷는 기분이었는데 언니의 그 말에 정말 천국의 계단이 눈앞에 펼쳐져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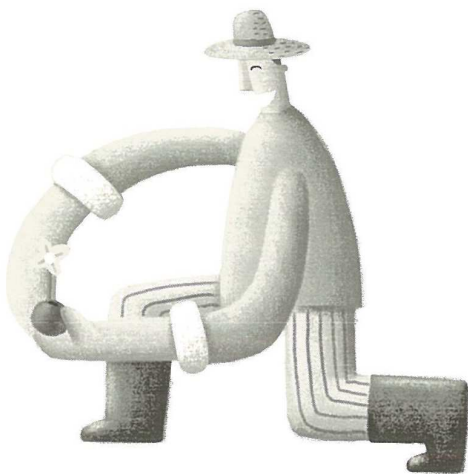
통계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는 말……. 이럴 때 쓰는 것 맞죠? 그런데요 그건 모르시죠? 있잖아요. 통계님! 사실은요 언니가 일계부를 태워 버린 것이 아니고요, 안방에 잘 모셔두고 있었다고요. 나중에 같은 달 일계부가 2부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친해져서 언니라 부르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출장가면 첫 방문 농가라 이른 시간이지만 식사를 거를까봐 말씀으로라도 늘 챙기시고 이젠 제법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항상 반가이 맞아주시는 어르신들께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통계님!

제가 느낀 건데요 노력하면 다되더라고요. 겁먹고 무서워하던 불응 가구 설득도 잘 마무리 되는 것을 보니 이젠 뭐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두렵고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일들이 많긴 하지만
말이에요. 저에게 이런 소중한 경험을 안겨 주신 통계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2008년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하려합니다.

2008년 10월의 어느 날에



처음 접한 농업통계조사 중심으로...



경기도지방통계청 / 포천출장소 / 김 용 민



2005년 4월, 저는 일반인에게는
무척 생소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라는 기관에 발령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이곳이 최 일선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과 부딪치며 농정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제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조금 기대 반, 걱정 반인 청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조직개편에 의해
갑자기 신설된 출장소 때문에 전에 안성시에서 사용하던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을 개보수하여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협소하고, 열악해 보이는 사무실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사무실 환경에서도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처리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바, 드디어 처음으로 선배님들을 따라서 축산물 생산비농가와 농업경영체농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축산물생산비농가를 방문하였을 때 엄청난 규모의 우사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백여 마리의 소를 우사에서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농가주의 표정이 시뭇 진지해 보였고, 당시 소 값도 꽤찮은 편이어서 대부분 농가에서 우리들에게 무척 호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전반적인 농업 관련지식이 많지 않아 일개부에 있는 사항을 직접 묻는 형식으로 하나 하나 조사해 나갔고, 무엇보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축산물생산비와 농업경영체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방문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체농가 중에 작은 규모의 포도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는데 포도농사 수입으로는 6식구(노모 및 자녀 3명)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여 부인은 관내 소규모 공장에서 부업을 하시고, 경영주분은 틈틈이 막노동을 하시면서 포도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번은 농업경영체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리 전화를 드리고 방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소주 한 병만 사가지고 집에 방문하라고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경영주 농가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분의 포도과수원 현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때 시비와 제초작업 등을 하지 않아 그해 늦여름 포도수확이 시원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소주 한 병과 통조림을 사 갖고 경영주 댁을 방문한 저는 널브러진 방 상태를 보면서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서 빚만 잔뜩 지고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자 했는데 수입은 없고 애는 커가고, 요즘 매일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옆에 아직 학교에 안다니는 막내 딸아이를 보았는데 여느 가정집 아이와 달리 무척 여의었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조금만 더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면 좋은 날이 오실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분께서는 안타깝게도 농사를 접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축산물생산비 중 젖소 농가를 조사하면서 경영주 한분이 귀찮다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서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신 조사표 하나

하나가 초석이 되어 소중한 통계자료가 생성되는 것이오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귀찮아 하시면서도 마지못해 알았다고 하여 계속 조사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더 이상 통계조사에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고며 앞으로 절대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수차례 설득하면서 계속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 결국 표본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맞이한 축비 대상농가 경영주는 사모님이 암투병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축비 젖소 농가를 방문할 때 항상 경영주가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방문한 경영주는 오히려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과일이며 차를 내어다주시고, 정말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사모님께서서 암 투병으로 형편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 뵈게 되어 마음속으로 무척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엄청나게 큰 개를 풀어서 마당에 기르는데 저만 보면 무척 지저대서 혹시 개에게 물릴까봐 개 좀 묶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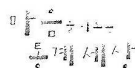


그래서 저는 직장동료분과 함께 감사의 표시로 조그마한 정성을 보태자는 심정으로 그 분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사료를 날라주고, 주변 정리정돈을 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분께서는 그 작은 일에 무척 감동을 받으셨는지 조사에 더 협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염려 없다고 하시면서 개를 풀어놓으셨는데 큰 개가 제 다리 근처에 와서 짖어댔 때는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것 빼고는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 농관원에서 정말 새록새록 일을 접해보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무척 보람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업통계조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자주 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뱀을 싫어해서 특히 작물조사를 할 때 뱀에 물릴까봐 긴장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안성지역은 살모사가 많으니 항상 조심하라는 선배 분들의 조언에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물조사를 마치고 산비탈 길로 내려오는데 독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척 당황하였고, 그 길 말고는 돌아서 가는 길도 없어서 어찌할까 계속 고민하였고 혹시 그 뱀이 날 향해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뱀 옆을 지나서 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돌로 그 뱀을 내가 먼저 공격할까 하다가 역공격 받으면 어떡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산비탈 아래 그 험한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지금도 뱀을 보면 무척 놀라지만 정말 그 때 동물원이 아닌 실제 야산에서 뱀을 본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 접한 농업통계조사 중 가장 힘들었던 때는 역시 8.15 논벼 작황 때였습니다. 논벼작황조사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신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업무였습니다. 논벼작황조사를 하기 전날 한 선배는 내일 논벼작황조사를 실시하니 마음을 굳게 먹고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요령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저의 생각은 막상 첫 조사대상 필지에서 어긋났습니다. 처음 시작한 논은 봉고차가 올라갈 수 없는 산간 중턱에 있어서 8월 중순 그 뜨거운 여름 태양을 위로 하고 헉헉거리며 논 필지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해당논의 길이를 재고, 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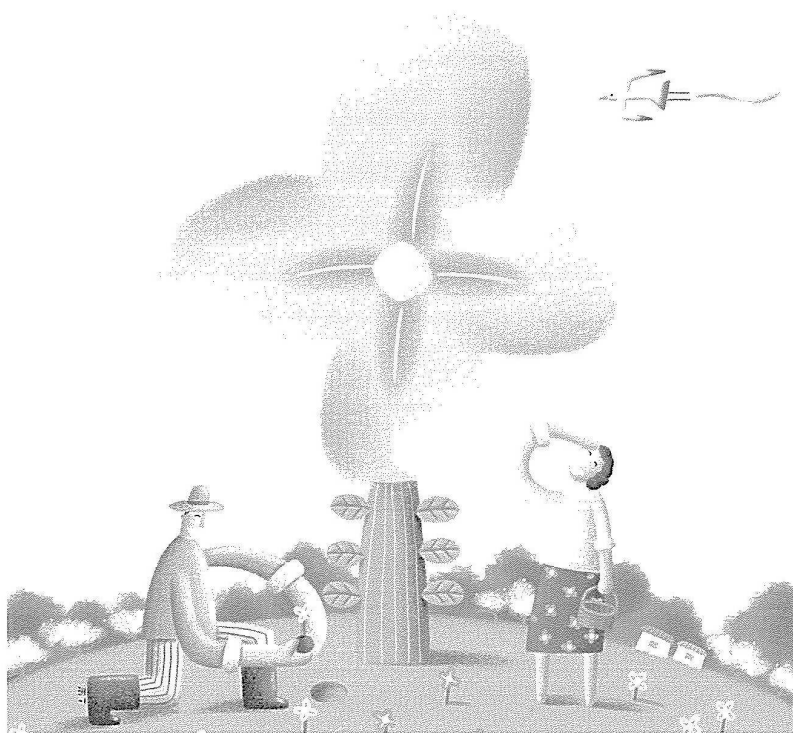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장화가 얼마나 깊숙이 빠지는지 중심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여름 온몸에 땀이 비 오듯 줄줄 흐르고, 목은 계속 타고르고 논벼 포기수를 세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 필지를 마치는 순간 1.5리터 페트병에 들어 있는 얼음물을 연신 마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에 근무 하던 직장의 연못에서 작업반 아저씨들께서 오물을 수거한다고 직접 연못에 들어가 장화를 신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일하셨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께서 내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해 주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내근업무만 하던 내가 왜 이곳에 전입와서 고생을 사서 하는가 하는 생각에 눈에 눈망울이 맺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초보인 나 때문에 좋은 논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이 논 경작자 분께 너무나 죄송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업무는 끝까지 해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팀장님의 격려아래 열심히 한 결과 그날의 논벼 작황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농업통계조사업무는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직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로 즐거운 직장생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생산량조사를 하면서 힘든 업무 와중에 꿀맛 같은 점심시간을 갖으면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생활자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농업통계를 접했던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그 사람들 모두가 그림고, 돌이켜보면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라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기업활동실태조사 현장조사 정도제고 사례



대구경북지방통계청 / 인동출장소 / 장영향

현황

2007년 기준 기업활동실태조사를 처음 조사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조사에 임하기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였다. 여러 사업체 조사를 경험해 온 상태인지라 걱정이 없었다. 특히 저희 출장소 사업체 수는 12개 밖에 되지 않은데다가 전년에 조사를 한 Date가 있어서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에 임하기 전에 각 조사담당자별로 전년 출력파일을 개인 e-mail로 전송을 해 준 후 협조공문, 조사표기입요령(조사표 기입 예시), 조사표 등을 대상사업체별로 분류한 후 사업체용 행정봉투에 넣었다. 이제는 총을 들고 전쟁에 돌입만하면 되는 그런 상태로 조사에 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발을 알리는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갈등발생

총괄자가 업무분장을 완료한 후 개인별로 행정봉투를 배분해주었다. 1인당 조사담당 사업체 수는 3개 정도 되었다. 또한 제가 조사할 대상체는 3개 중에 2개가 기존 조사사업체이고 1군데가 신규로 조사할 사업체였다.

먼저 첫 번째 조사 사업체로 광공업동태조사 업체인 ○○주물(주)을 방문하기로 했다. 사업체로 출발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e-mail을 확인한 후 조사표 양식을 보내드렸다. 그리고 사무실을 출발하여 사업체로 이동을 하였다. 마침 방문을 한 때에 전년에 담당하셨던 관리부 이준선 과장이 계셨다.

제가 통계청에서 왔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사무원에게 냉커피를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셨다. 그리고 본인은 회계 서류를 많이 다루어 보아서 통계조사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그리고 통계조사에 대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20분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리고 조사표 작성을 거듭 부탁드린 후 ○○주물(주) 관리부 사무실을 나와서 바로 ○○종합식품(주)으로 이동을 했다. 이 사업체는 풍천면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상으로는 25Km정도이고 소요시간은 25 ~ 30분정도 걸리었다.

한참을 계속 달린 후 하회마을 가기 전 도로 우측에 ○○마을종합(주) 이정표와 사업체가 보였다. 이동하기 전에 여직원에게 위치를 물어본 터라 쉽게 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차를 건물 외곽주차장에 세운

후 조립식 건물로 된 사무실로 올라갔다.

저는 통계청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업무에 바쁜지 직원과 과장인 듯 한 사람은 사무에 바쁜지 인사도 받는 등 마는 등 했다. 그러시면서 대뜸하시는 말 『아이고 통계 조사는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구먼. 통계청조사표 외에도 6 ~ 7개 더 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 보는 것만도 벽찬데 이거 안하면 안 됩니까?』하고 말을 내뱉어서 저는 『물론 바쁘신 줄 압니다만 저희 자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하고 협조를 구한 후 사무실을 나섰다.

웬지 머리 한 곳이 허전해 지면서 가슴이 답답해 옴을 느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많이 겪는 일이라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안동시내 방면으로 차를 몰아서 25분 정도 달린 후 태화동에 위치한 MBC(문화방송)에 주차를 한 후 1층 안내실에 방문목적을 설명을 드린 후 방문증을 받아가지고 패용을 한 후 계단으로 올라갔다.

제가 방문한 날이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상태로 수리를 하고 있어 계단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방문 때와는 달리 MBC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energy절약을 위해서인지 에어컨을 켜지 않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담당자는 온갖 회계서류를 바닥에 펼쳐 놓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듯 하여 조사표와 협조공문을 드린 후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한 후 사무실을 나왔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조사표를 업체에 다 배부를 해 드렸고 또한

e-mail로 조사표 양식파일을 보내드렸으니 이제 자료만 받으면 될 것 같았다. 일주일의 지난 어느 날 기존 담당사업체인 ○○주물(주) 이준선 과장에게 전화로 조사표 작성여부를 여쭙 보았는데 아직 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마침 안동시에서 광공업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다가 저회조사표를 갖다준 상태인 터라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다. 통계청에 무슨 조사를 이리도 자주 하는지 기존 업무를 보라 자료를 작성하느라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손도 데어보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시면서 며칠 후에 작성을 한 후 e-mail로 조사표 회신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후 전화를 끊었다.

다시 ○○종합식품(주)에게 전화를 드려 조사표 작성여부를 여쭙 보았는데 이곳에서도 광공업통계조사표를 작성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직 손도 되어보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저는 전화로 부탁을 드린 후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으로 MBC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곳에서도 업무가 많아서 아직 작성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조사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해결방법 모색

제가 생각을 연구한 끝에 얻은 방법은 조사활동비를 활용하여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여 사업체를 방문하기로 했다. 마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관계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응답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을 해 보았다.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주물(주)로 전화를 해 보았는데 업무가 바빠서 아직 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저는 전화를 끊은 후 음료수를 사가지고 ○○주물(주) 관리부를 방문했다. 제 얼굴을 보자 이준선 과장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래까지 꼭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정말로 미안하다고 했다. 저는 음료수를 전해 드린 후 사무실을 나왔다.

나와서 사무실로 들어와 ○○종합식품(주)과장에게 전화를 드렸다. 아니라 다들까 감사준비로 바쁘다면서 며칠 내에 꼭 자료를 작성해 보내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화로 이사님과 통화를 했다.

총무 팀 오광원 차장이 업무관계로 통계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본인이 지시를 하여 자료를 보내드리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다시 풍천면으로 25분을 달려가서 총무 팀을 방문을 했다.

마침 담당차장님이 계셨다. 이사님에게 무슨 싫은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미안해서 그런지 통계청에서 왔다고 하니 저쪽에서 먼저 알아보았다. 저는 음료수를 전해 준 후 대기실에서 기다렸더니 본인은 업무가 바쁘니 2007년 기준 회계결산서를 복사해 줄 테니 작성을 한 후 회계결산서를 다시 달라고 했다.

여러 조사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조사표 작성이 가능하리라 여긴 것이다. 몇 분을 기다

렸더니 사무원 이 결산서 복사 본을 가지고 저에게 내밀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 후 조사표를 하나하나 매워 나갔다.

이해가 가지 않은 난해한 부분은 경리과장님과 총무과장에게 협조를 구하여 조사표를 마무리 했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0분정도 꽤 오래 걸리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직접 조사표를 작성해 보니 기업활동실태조사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가슴 속 한 구석에서는 자긍심이 일어났다.

저는 여기서 통계조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계기가 되었다. 응답자가 조사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좌절을 하지 말고 무슨 해결점을 찾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통계조사관 여러분 Fighting!

희망의 서광이 비추고

앞이 캄캄했던 어두운 시간이 흐른 후 ○○종합식품(주)에서 조사표를 마친 후 다음부터는 일이 쉽게 해결되었다. ○○주물(주)에서 e-mail로 조사표와 회사로고를 같이 보내왔다. 그리고 MBC에서도 다음주 내로 조사표를 보내 주겠다는 답변이 왔다.



업체와의 업무개선 사례

- 매년 기업활동실태조사를 마무리 할 때 전년 파일을 PC에 down 받아 업체에 제공을 해 주면 시·군에서 실시하는 광업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전문·과학기술통계조사 등 여러 조사에 중복 답변으로 어려워 하는 사업체에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음.

- 조사활동비 활용 : 불응 사업체 설득을 위해 조사활동비를 활용해 업체에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하면 설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뽕뽕이 김순경



제주도통계사무소 / 농수산조사과 / 김경숙

사람은 만난다는 건 뿌듯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작년 10월 농가경제조사 표본을 새로이 바꾸는 제9차 농가경제조사를 시작하면서 나는 광령리와 교래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조사 초기라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교래리는 워낙 조사구가 커서 힘도 들었지만 표본 설계를 내가 했다는 뿌듯함에 나름 만족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4월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조직통합이 이루어 지면서 난 울며 겨자 먹기로 조사구를 모두 바꿔야만 했다. 그리고 아직 조사가 완전히 정착도 안 된 상태에서 담당 조사구를 넘겨주게 되어 조사구 인계를 하면서 난 한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해야만 했다.

그리고 새로운 조사구에서 그 삼춘을 만나게 되었다. 반농반어의 동복리는 순탄치만은 않은 조사구였다. 집집마다 생산비 작물이 넘쳐나고,

고령가구가 5가구 중 4가구나 되는, 그래서 청취가구가 대책 없이 많은 마을……. 동북리 조사구를 인수받는 날부터 난 동북리 입구에서 차 열쇠를 쫓은 채로 문을 잠가버리는 실수를 범해 파란만장한 나의 앞날을 예고해주었다.

그 삼촌의 집은 조사구의 중앙이다. 방문순서도 3번째. 워낙 고령인 지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를 쫑긋, 온 몸의 감각을 바짝 새워야만 했다. 게다가 참전의 상처로 몸도 불편하시고 자꾸 깜빡깜빡하시기까지 하셔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했다.

5월 초순이었던가. 동네는 마늘종 꺾기 작업으로 정신이 없는데, 삼촌은 기력이 없으신지 도통 밭에 나가시질 않았다. 갈 때면 이불을 펴고 항상 누워 하늘만 바라보고 계셨다.

아마도 어버이날 전날이었으리라. 가만히 나를 쳐다보시더니 “아~~ 인생 뭐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지. 다 부질없는 짓이주…….” 하시는 것이다. 깜짝 놀란 나는 “삼촌, 뭐 말 햄수과? 노래에 보민 알몸으로 태어남 옷 한 벌은 건졌덴 힘니께. 게다가 사는 즐거움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였는데, 예구, 부질없덴 허지 맘서게.”하면서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지만 영 가라앉은 분위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 후에 사건은 발생했다. 삼촌이 일계부를 그만 쓰고 싶으시다는 것이다. 물론 자계식 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기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분이 드문드문 작은 메모수첩에 적어놓으시면 내가 그걸 토대로 청취조사를 하고 있었다. 조사구를 인수받은 지 1달 만에 조사를

하지 않으시겠다니……. 나로서는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행여나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 보다가 그 날
대화가 자꾸 걸렸다.

“삼촌, 무사 마썸? 사람 바빠져부난 안 좋우빠?”

“아니여게. 이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안
허켄 허는거주. 정신 놔 지카부덴... 이제랑 그만 허게.”하고 말씀하신다.
가슴속에서 자꾸만 한 숨이 나오고 머릿속은 복잡해진다. 이 가구를 대체
해야 할 건지 최대한 끌고 가야 할 건지..

“삼촌, 게도 허는 디까지 한 번 해보게 마썸. 마농이라도 끝낭 다시
생각해보게 마썸.”

최대한 달랠 수 있는 데까지 달래고 농가를 나서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 그 후로도 삼촌과 나의 승강이는 계속 되었다.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사무실에서 보훈가족들에게 물품이
나왔고, 그 삼촌도 대상이 되었다. 물품은 쌀과 라면.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인지라 내심 맘이 뿌듯했고 그 동안 그리도 승강이를 벌였지만 어찌면
이 기회에 그 승강이를 끝낼 수 있으리라는 핑크빛 희망마저도 품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갔던 겐가.

삼촌은 물품들을 보자 버럭 역정 먼저 내셨다.

“내가 아무리 어시 살아도 이런 거 얻어 먹으멍 살아보지 안했쎄.

너 사람을 어떻 보는거냐? 내가 평생을 이리 살지 않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

“아...” 한 숨이 절로 나온다. 과장님과 동행한 길만 아니라면 이 골목 저 언저리에 퍼져 앉아 평평 울련만... 이 난국을 어찌 헤쳐 나갈고.

그리고 같은 날들이 이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야... 나 사람하나만 초자주라.” 애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물론 내가 뽕족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사람찾기라니...

“누구마썸? 혹시 모르난 수소문 해보쿠다.”

빨빨이 김순경...

삼촌이 찾는 분은 젊은 시절의 친구 분이다. 그런데 삼촌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우리 동네인 거 같은 데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이래 내 기억엔 없는 분이시다. 게다가 택지정리로 동네사람들이 빨빨이 훌러진게 수 년 전 일인데 찾을 수 있을 수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내게는 기회인지라 꼭 찾아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이젠 아주 바뀐 동네가 되어버렸지만 삼촌 얘기랑 어릴 적 기억을 총동원해서 어디쯤 되리라고 짐작을 해보지만 도무지 감감이다. 참 우스운게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니 예전 동네 모습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억조차 없다니.....

사돈에 팔촌까지 동원을 하고 나서야 그분의 거취를 알 수 있었다.

“뿔뿔이... 예전에 집 팔아두고 이사갔주. 옛날에 순경해나난 김순경 이랜 아직도 볼럼주게. 시에 어디 살암덴헐게, 몰루주 죽어신디 살아신디. 나이가 막 하난..”

좋은 소식 반, 슬픈 소식 반이다. 물어물어 예전에 마을회장이었던 분을 찾아냈고 ‘뿔뿔이 김순경’ 김 묘생 할아버님의 전화번호까지 알아 낼 수 있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일주일이었다.

“삼촌, 이시멘? 통계청 직원 와수다.” 이제 뭔가를 쥐고 있으니 목소리가 한결 커진다.

“어이~~ 들어오라.” 방안에서 작게 소리가 들린다. 들어가자마자 난 숨도 돌리지 않은 채 그 간의 얘기를 했다. 김 묘생 할아버님이 이사를 했고 현재 살아계시고, 전화번호도 알아왔다고.

“살았된해냐?”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전화번호는…….” 하고 말하려는데 삼촌이 말씀하신다.

“되어쎄. 전화번호랑 내볼라. 이제 얼마 어성 볼 거 아니가…….”

순간 마음이 쟁한 게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 동안의 고생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워 하셨으면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생사를 들은 것만으로 저리 편안한 표정을 지으시다니…….

이것으로 삼촌과 나의 승강이는 끝났다. 이제 난 삼촌네 딸이 되었다.

내가 먹을 거라도 사가면 우리 딸 착하다고 이젠 내 성의를 즐거이 받아 주신다. 멀리서 보이면 크게 부르면서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신신당부 하시기도 한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살다가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다 퍼주시고 이제 빈손이라고, 그래도 오랜 친구와의 기억으로 저리 행복해하신다. 어쩌면 나도 나이를 먹어 인생살이가 조금은 느슨해질 때쯤이면 예전의 기억을 조금씩 조금씩 펴 올려 그 힘으로 살게 될 지도 모른다. 그 때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하마터면 불운의 바다에서 헤멜 뻔한 나를 건져주신 김순경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이야기 넷



강원지방통계청 / 인제출장소 / 김 미 정

첫 번째, 사람의 인연이란

5년 만에 찾아간 시골의 한 농가의 농부와는 말이 필요 없었다. 마당에 들어서니 한 참 가을 거지에 바쁘신 가운데 환한 미소로 맞아주심에 그저 감사 할 뿐.....

올 농사가 어떠하신지 건강은 어떠하신지 노총각 아들의 혼례는 치렀는지 등의 안부를 물으니 그간 많은 일이 있었다. 부인께서 교통사고로 몇 달째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올 고추 농사는 엉망이 되었다고 하시면서도 너털웃음을 언제나 웃으셨다. 엄청 까다롭기도 하시지만 마음을 열면 가족처럼 대해주시던 그 옛날 생각이 나서 나도 미소로 답을 했다.

5년 전 병행조사 시 삼개월간의 짧은 인연이었지만 잊지 않고 기억

해 주셨고 또다시 그곳이 선정이 되어 찾아가게 될 줄 몰랐던 내게도 반가운 일이었다. 설명이 필요 없었고 당일로 원부 조사를 시작했고 우린 또다시 긴 인연을 시작했다. 만아들을 장가보내지 못해서 언제나 걱정이 있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두 번째, 가까이에서 본 다문화 가정

농촌으로 갈수록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것을 실감하게 된다.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하기가 어렵다 보니 외국의 여성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다 보니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것 같다. 내가 조사하고 있는 조사구에는 다문화 가정이 둘이나 된다. 이것으로만 본다면 농촌의 다문화 가정은 통계상 20%가 되는 셈이다. 전체 농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조사구(2개)만 보면 그렇다.

그중 한 가정은 마음이 좀 더 쓰인다. 필리핀에서 종교적인 인연으로 낯선 이국땅으로 시집을 와서 기후조건이 맞지 않아 고생이 심하다. 특히, 겨울이면 추위에 약해서 얼굴이 많이 상하는 것을 보면 동생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그녀가 측은하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셋째로 낳은 아들이 심한 자폐를 앓고 있어서 그녀의 짐은 더 무거워만 보인다. 그래도 언제나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잠깐 고향인 필리핀에 두었던 아이를 데려와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으나 한국의 학생들과 좀 다른 피부와 어눌한 우리말 표현 등 놀림

이나 당하지 않는지 언제나 걱정이다. 그래도 워낙 시골이고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다행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기는 하다. 서툰 한글로 일제부를 열심히 적는 것을 보면 고맙고 기특하기도 하고 마냥 착하기만 한, 어떤 때는 좀 답답하기까지 한 남편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가 좀 더 풍족하고 행복해서 한국이 그녀에게 마지막 고향이 되길 바라본다.

세 번째, 닭고 싶은 노후

내 조사구에는 올해로 팔십이 되시는 어르신이 계신다. 그 정도 연세가 되시면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으셔야 한다고 일반인 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평범한 우리네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분인 것 같다. 천 평에 가까운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다. 대상처로 결정이 되고 나서 처음 농가를 방문 했을 때는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 너무 고령이시라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올 생각으로 들어가서 일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했는데 어르신께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 주심을 약속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 나오면 서도 사실 걱정이 앞서기는 했다. 과연 얼마나 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기우에 불과 했다. 그 어떤 농가보다도 훌륭한 일제부가 나왔다. 얼마전 까지는 한우 사육까지 하셨으나 힘에 부치시는지 지금은 말농사에만 전념을 하신다. 가정에서 필요한 채소 종류와, 오미자, 곰취 등을 재배하시며 판로는 자녀들의 소개로 별 어려움 없이 소비하신다. 어르신을 보면서 나도 저만큼 인생을 살았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어르신 만큼만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매주 그 집을 방문하고 나면 내 마음까지 따뜻해짐을 느낀다.

네 번째, 내가 본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집

농촌에서는 그래도 젊은 층에 속하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농가가 있다. 가구주는 듬직하시고 목소리 한번 듣기가 쉽지 않을 만큼 과묵하시고 부인은 어려서 다리를 다쳐 걸을 때 다리를 약간 전다. 가구주는 체격이 좋으신 반면 부인은 가구주 등 뒤에 서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왜소하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로 따라 갈 수가 없다. 부인은 남들처럼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잘 할 수 없으므로 영농 현장에서 육체적인 일은 가구주가 처리하시고, 농한기에도 절 때 놀지 않고 다른 노동일을 찾아서 농업 이외의 소득을 올리고 계신다.

배우자는 농사일을 많이 할 수 없는 대신에 농산물 판매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여 도시로 직접 농산물을 싣고 가서 판매를 하는데 한 번도 농산물을 남겨서 다시 싣고 온 적이 없다고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다른 재주가 있으시다. 거실에 프라이팬을 다섯 개씩 놓고 메밀 전을 혼자서 붙이신다. 다섯 개씩이나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전을 기계가 하는 것 같은 솜씨로 일정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구경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농산물 판매수입을 능가할 정도의 많은 수입을 올리신다. 인제군의 모든 잔치음식에 나오는 메밀전은 다 이분의 작품이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가끔은 좀 쉬셨으면 하는데 일하는 것이 즐거우시다는 말씀에 감히 좀 쉬시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어쨌든 하루 하루를 최선을 다해 너무나도 열심히 사시는 그들의 모습이 가끔 나태해지는 내게는 좋은 약이 된다.

조사원으로 통계청과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6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타성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껄도 나고, 지치기도 하지만 매주 그들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솟는다. 그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올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데 난 너무도 소박하고 정겨운 많은 분들을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넉넉한 재산을 얻었다. 나만이 아닌 그들도 나와서 인연이 소중하게 생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들과 함께 삶을 이야기 하며 일하고 싶다.



노력하는 만큼 대가는 돌아오더라 ~



경기도지방통계청 / 경제조사과 / 조 세 형

나는 신규 사업체를 맡게 되거나 분담 지역이 바뀌어 처음 응답자를 대면할 때, 명함을 내밀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혹시 제 이름 많이 들어 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면 40대 중반 정도의 응답자라면 얼굴에 웃음이 돌면서 ‘많이 들어봤지요’ 라고 한다, 그러면 ‘신문을 보니까 한자(趙世衡)도 똑 같습니다.’ 라고 덧붙이면 미소를 지으면서 자리를 권한다.

20~30대들은 ‘글쎄요’ 라며 고개를 가웃거리는데 “지금은 좀도둑이 되었지만 옛날 유명했던 도둑놈 ‘대도’ 라고 기억나시죠?” 하면 “아! 알겠네요!” 웃으면서 자리를 권한다.

부모님이 지어 주셨는지 누가 지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유명하긴

유명하여 통계조사 하는 데도 이름 덕을 보는구나.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농수산 분야 특히 농·어가경제조사 및 농·어업생산량조사 업무만 27년간 담당하다 2003년 처음 경제부문조사에 부딪쳐 보니 나름대로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니었다.

가구부문의 조사는 한번 정을 맺어 놓으면 5년간은 백지수표를 받아 놓았다 하여도 무리가 아니다. 사업체의 개인사업자도 가구부문과 같은 여건이지만 상당수가 법인인 사업체부문 대상처는 정들만 하면 응답자가 바뀌기 일쑤다.

처음 사업체를 담당하면서 품목연구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자료 받기와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또한 영세한 서비스동태(도소매 포함)조사 사업체는 폐업하기가 비일비재하다. 조사를 하고 다음달 방문하면 처음 보는 간판이 있어 이웃 가게에 물어보면 장사가 안 되어 폐업했단다. 그러다 보니 내 사업체가 언제 유고가 생길지 항상 불안하여 유고가 심한 업종의 사업체는 예비 사업체를 미리 유고 전에 물색해 놓을 정도였고, 거리를 지나다 현재 조사 하는 산업, 업종의 상호만 눈에 띄면 이 사업체도 잘 봐줬다가 대체 해야지 하는 마음뿐이었다.

담배를 피우니 담배도 팔아주고, 야채가게는 수시로 야채도 팔아 주고, 단골식당을 만들어 음식도 팔아주곤 했다가 대상 사업체가 유고 되면 대체를 하였다. 어차피 사먹어야 하고 필요한거니까...

하여튼 어떻게 설득 하여야 양질의 자료를 마감일 안에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앉아 신문을 보면서, 통계 관련 기사가 있지 않은가, 1면부터 경제면은 물론 사설, 기고문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훑어보고 통계 관련 기사를 스크랩 하였다. 1면에 크게 실린 기사는 신문을 통째로 스크랩을 하였는데, 사업체 방문 시 기록부와 함께 붙여다니는 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그 바람에 가족에게 핀잔도 많이 들었는데 화장실이 하나인데 당신이 나와야 다른 가족도 볼 일을 볼 것 아니냐고, ‘다른 가족도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치질 걸리면 속옷 더러워지는데 당신이 세탁하려고 그러냐’고...

내 가족의 핀잔 덕분인지 노력의 대가 때문인지 몰라도 그 후 악발을 받아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방문 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무 응답자에게나 모든 스크랩을 설명 할 수 없는 것, 대화를 하다보면 성별로 연령별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그 후 조사구역을 달리하여 다른 구역으로 바뀌었는데, 후임자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응답자가 바뀌지 않는 한, 조세형의 안부를 묻더라고 할 때 보람을 느꼈다.

통계조사관인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갈 때에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설득 하느냐, 설득 당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응답자가 불응이나 비협조적이면 먹히는 것이고, 응답자를 설득 하면

내가 잡아먹는 것이므로, 이것이 ‘면접기법’에 의하여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통계인으로 33년 노하우, 동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답자와 대화 사례를 몇 자 적어본다.

실업률이 왜! 이것 밖에?

응답자와 대화를 하다보면 왜 실업률이 현실과 다르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국민들은 통계청에서 발표된 실업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로 느끼는 것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과는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의 차이가 많은 모양이다. 통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가 작성하여 서로 공유하는데 목적은 같아도 조사하는 방법이 다르면 동서남북처럼 엉뚱한 자료가 나온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조사기준을 정하여 작성하는 것이라고 이해시키고, 실업률의 연령을 15세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 고개를 끄덕인다.

통계청 물가 엉터리 아니냐!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데 독방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상무인지... 전무인지...? 응답자에게 다가오더니 “어디서 오셨어”라고 묻는다. 응답자,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니 대뜸

통계청 통계 엉터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사를 드리면서 왜 엉터리냐며 반문하니 몇 일전 방송에 물가조사 발표를 보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잠시 이해를 시키기로 하고 시간을 내 달라 부탁을 드리 상무님, 응답자와 물가조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소비자물가는 약 500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크게 공산품목, 서비스품목, 농축수산물품목으로 분류 됩니다. 공산품은 내구재로 가전제품 등 사용기간이 길고 고가제품인 반면, 농축수산물은 소비재이면서 생활 필수품인 저가제품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먹지 않고 살 수 없으니 금방 피부에 와 닿고, 내구재는 몇 년에 한번 구입하니 덜 민감하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 처음 출시 때에는 가격이 높지만 일년이 못가 신제품이 나오니 가격이 하락한다. 농수축산물은 보관상에 어려움이 많다.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인상되어도 내구재인 공산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물가인상율의 폭이 적어져, 그래서 소비자물가조사 발표 시 생활물가를 별도로 함께 발표한다고 설명을 하니 이해가 가는 모양이다.

일어서려는 상무님께 상무님! 매년 국민연금을 인상하는데 어떤 자료를 이용하시는지 아세요, 질문하니 모르신다나, 알려 드리죠, 조금 전 설명 드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참고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상무님 아! 그러세요, 소비자물가에 대해 응답자 잘 이해 시켜 드렸죠.

군대는 왜 가고 세금은 왜 내니! 통계법도 법이다.

A사업체

김 모 부장의 말씀 왈 내가 왜 통계 응답을 하여야 하느냐고 항의성 말투로 못 해 준다나.

조세형 왈 부장님 군대는 갖다 오셨나요?

김 부장 : 갖다 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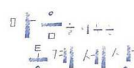
조세형 : 왜 갖다 오셨나요?

김 부장 : 병역법에 의해서 안가면 처벌 받으니까 갖다왔지.

조세형 : 부장님! 부장님 부모님께서 열 달 동안 뱃속에 넣어 고생 하시다 낳아, 먹여 주고, 학교 보내 길러 주셨는데 왜 군대는 갑니까, 국가에서 뭐 도와준 것 있습니까?

김 부장 : 묵묵부답

조세형 : 김 부장에게 왈 우리 스스로 군대를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누가 지키지요, 병역법이 없으면 누가 군대를 가나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신체부자유자 등 특별 사유가 아니면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갖다와야 하지 않습니까! 부장님과 저 역시 그래서 3년간 국방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B사업체

여성인 윤 모 과장의 말씀. A사업체 김모 부장과 똑 같이 내가 왜 통계에 응답을 하여야 하느냐고.

조세형 : 과장님 회사는 법인세를 내시나요?

윤과장 : 내지요.

조세형 : 과장님 보수에서 매월 소득세를 공제 하시나요?

윤과장 : 공제 하지요.

조세형 : 사업주는 내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시는데 왜 법인세를 내야 하지요. 과장님께서서는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왜 소득세를 내시나요, 국가에서 뭐 도와준 것 있습니까?

윤과장 : 묵묵부답

조세형 : 윤과장에게 왈 국가에서 예산이 없으면 무슨 돈으로 나라 살림을 하나요. 빚을 얻어 국민을 위한 복지, 사회사업을 하나요. 국민 모두를 위하여 수입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어 국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하여 국세법을 만들어 세금을 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 부장, 윤 과장은 계속 묵묵부답이다.

이때다 싶어 통계법에 대하여 한마디만 더 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계속 이어 나갔다. 이익도 없는 귀찮은 통계 자료를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통계를 왜 작성 하겠습니까! 국가 살림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기에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계법을 만들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법이나 조세법과 같은 맥락에서 협조를 당부 하였고 자료 제공 약속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내가 당신의 자녀나 형제라면...? 심금을 울려서라도

수원시 매탄동 소재 안경점인 자영업 C사업체의 경우 막무가내다. 방문하면 심지어 약속이 있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나가버리기가 일쑤다. 한번은 방문하니 내외분이 같이 있어 5분간의 시간을 약속하고 대화중 제가 사장님이나 사모님의 자녀나 동기간이라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 우리 집 양반은 원래 성질이 그래요, 오시지 말고 제 휴대폰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라는 약속을 받았다.

지성이면 감천! 사업체 정문에 진을 쳐라!

화성시 양감면에서 자동차보호용 접착테이프를 생산하는 D사업체 최모 과장의 경우.

사업주의 인척인 최모 여과장은 출·퇴근 날자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방문을 하고자 통화하면 금방 어디 간다고, 내일은 휴무일이

라고 약속을 해주지 않는다. 자료는 받아야 하고,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마음을 굳게 하고 새벽에 아침도 거른 채 도착하니 07시 30분, 정문에 신분증을 제시하니 경비원 말씀, 최과장 차량 지나가면 알려 주기로 하였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른 사업체로 발길을 옮기고 다음날, 그 다음날 4번째 같은 시간에 기다리니 경비원이 막 지나간 차량이 최과장이라 손짓하여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최과장을 쫓아가 붙잡아 세웠다.

최과장 깜짝 놀라며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왔겠습니까?

약 20분간의 대화 중 과장님, 여건이 어려우면 통계자료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직원을 선정해 달라고 하자 결국 최과장의 추천으로 다른 응답자로 재선정하여 통계자료를 받게 되었다.

미안했나 봐...

사장님을 만나서라도 응답자를 찾아라!

화성시 소재 변압기를 생산하는 신규인 H사업체는 총무부, 영업부, 회계팀, 생산부 등 이 부서 저 부서를 모두 찾아 다녀도 우리부서 소관이 아니란다, 기가 막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버텨야지! 2층 복도에서 서성이다 옆을 보니 사장실이란 문패가 있다. 몇 번 망설이다 노크를 하니 여직원이 누구세요 한다. 통계청에서 온 조세형이라 소개하니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묻는다. 이런저런 조사를 하는데 사장님께 인사나 드리고

조사를 하려 한다고 하니 기다리란다.

잠시 후 들어오라기에 금월부터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 어른이신 사장님께 말씀 드려야 도리일 것 같아 뵙고자 왔노라 인사 겸 통계청 소개를 하고 공문과 조사표를 내놓으며 이 조사를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다.

사장님, 인터폰으로 ○부장 들어오라고 해!

들어서는 ○부장을 보니 조금 전 생산부에서 대화를 나누던 부장이 아닌가, 사장님 하시는 말씀, ○부장이 통계청 자료 매월 해드려.

드디어 응답자를 찾았네!

세무자료는 통계자료로서는 죽은 자료다!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제약단지에 위치한 P제약 송모 부장의 경우, 매월 마감일 오후 늦게 자료를 주는데 검토 후 질의할 여유가 없어, 사유를 알아보니 서울 본사 영업부에서 자료가 늦는다니. 본사 영업부에 통화하니 대화를 받아줄 아무도 없어, 영업책임자를 찾으니 책임자인 회계 담당 전무님이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화성공장에 내려 가셨다는 답변.

과장님께 보고 후 규정 속도를 위반하면서 달렸다. 왜냐고요? 회장님 못 만나면 헛수고이니까.

P제약에 도착하니 공장안에 계시다고, 안면 있는 여직원에게 회장님

나오시면 면담을 부탁하고 휴게실에 대기 중 회장님이 오셨다기에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공장장실에 계시는 김모 회장님께 통계청에 근무하는 아무개라 인사드리고,

대화 중 회장님! 회장님께서서는 영업실적을 익월 언제쯤 보고 받으시나요? 라고 여쭙보니 익월 초에는 보고 받지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저희 통계청에 주시는 자료가 항상 늦어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 하시는 말씀, 나도 통계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 하면서 송부장에게 왜 통계청 자료가 늦는 거야! 하고 물으니 본사에서 회계처리 등으로 늦게 내려와서 그랬노라고 말하자, 나는 말을 가로 막으며 그대로 받아쳤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통계자료는 죽은 자료입니다. 현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료를 주셔야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자 회장님, 송부장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주라는 지시를 하였는바 다음달부터는 5일경이면 자료를 보내 준 사례.

통계청 일하는 만큼 내 업무를 줄여다오.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소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K사업체의 김모 대리는 내가 통계청 자료 제공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간 빼앗기고 있으니 윗선에 말씀드려 통계자료 제공 업무만큼 내 업무를 줄여 달란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담당부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면담 도중 김모 대리의 업무 중 일부를 제가 해 드리면 안 될까요? 하니 담당 부장은 응답자를 교체하여 원활히 조사가 이루어짐.

나 임시조사원(파트타임)이다.

신규로 조사하는 서비스업동태조사이며 영세한 H사업체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언뜻 떠오르는 생각!!!

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리고 조사표 한 장에 얼마씩 받고 통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어리고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사장님 도와주시죠! 사장님 말씀, 어찌다 그렇게 됐소. 매출액하나 못 알려 주겠소, 차비 없애며 오지 말고 전화로 물어봐. 어찌하든 조사만 잘 되면 되니까... 성공!

점심 얻어먹으며 조사를?

나는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흥도 되지 않고 하여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누구를 만나면 대화 중 상대방이 혹시 고향이 충청도 아니냐고 묻는다.

화성시 소재 I골프장 박모 과장의 경우. 전임자가 인계하면서 하는 부탁이 있으니 항상 자료가 늦어 고민이라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사업체를 방문, 응답자와 대화 중 다른 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취합을 한다는 애로와 같은 사업체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서 간 힘 겨루기가 있다는 점을 파악 하였는데

박모 과장이 묻는다. : 말씨가 충청도 같은데 고향이 어디지요?

조세형 : 부여인데요.

박 과장 : 저는 논산인데요.

조세형 : 논산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학교 다니셨나요?

박 과장 : 그런데요.

조세형 : 혹시 B종합병원을 아시나요?

박 과장 : 알지요.

조세형 : 그럼 ○○○를 아시나요.

박 과장 : 1년 선배인데요.

조세형 : 제 외사촌인데요.

박 과장 : 점심시간도 되었는데 같이 식사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배가 고파서였는지 그때 골프장 음식이 무척 맛이 있어! 그 후로 입맛이 없으면 점심시간을 맞추어 L사업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료를 익월 10일이면 보내 준 사례. 공짜로 얻어 먹었느냐고요, 아니죠, 일년 두어 번은 사례를 했으니까요.

윗분들 눈치 때문에

안양시 소재 S사업체의 정모주임은 외근을 많이 하는 응답자인데 사전방문을 신청하면 시간을 쪼갤 수 없단다.

사연을 들어보니 회사가 너무 어려워 손님이 와도 윗분 눈치 때문에 나갈 수 없다하여 점심 약속을 하고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조사에 관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주기로 약속한 사례.

식사는 좀 비싸고 맛있는 것으로, 비용은 내 활동비중에서 지출...

성공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화성시 향남면 소재 H사업체의 장모과장은 1년 여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조사를 하다 후임자에게 인계해준 사례

내 조사구역 초입에 위치해 있어 출장을 갈 때 마다 사전 면담을 신청해도 거부하고 사업체 경비실에서 전화를 하여도 이 핑계 저 핑계 만나주지를 않는다.

각종 통계 책자, 보도자료, 수첩 등을 전해 주려한다 하여도 맡겨 놓고 가란다. 할 수 없이 장문의 편지를 써 경비실에 맡기고 다음날 전화를 하였는데 자료는 제공 하겠노라, 만날 수 없는 여건이기에 이해해 달라 하여 면접 한번 하지 못하고 조사구역을 옮기고 말았다.

무조건 밀고 들어가기 작전

일부 응답자는 면담을 기피내지 꺼려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불시에 방문을 한다, 정문에서 전화를 하면 연락도 없이 어떻게 방문을 하느냐고!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한다. 옆에 있는 OO사업체도 조사 사업체인데, 일 보러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어 뺏고 가려 하노라고 답변하면 순순히 만나 주곤 한다. 사연이 어찌되었던 2년 6개월의 사업체조사 업무를 마치고 약 2년간 조사와 외도를 하다 다시 조사업무를 시작하려니 과거 응답자들과 한바탕 벌인 추억들이 스쳐 지나간다.

어떻게 하면 응답자에게서 스스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까, 잠이 오지를 않아! 집 옆에 공원이 있다. 늦은 밤 공원에 홀로 앉아 있는데 가족이 찾아 다녔다나, 왜 휴대폰도 안 받느냐며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인다. 남의 속도 모르고, 휴대폰을 두고 나왔거든요. 어디 가서 한잔 하는 줄 알았다나! 하면서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없다고, 그런데 왜 잠안 자고 나와서 돌아 다니냐고…….

하여튼 며칠 고민 속에 30여 년간 통계에 종사하면서 느낀 여러 경험을 응답자에게 설명하기로 하고 전임자에게 현장 인수를 받지 않고 혼자서 방문을 시작했다. 왜냐고요, 전임자가 미안 할까봐…

응답자에게 인사를 하면서 묻는 말이 있는데, 기존 사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통계청에 자료를 주시면서 어디에 이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글썄요? 하면서 머뭇거린다. 전임 조사관들이 설명해주지 않았나요. 질문하면 못 들어 봤는데요. 라고 답변을 한다. 이때다

싫어 메모지를 꺼내어 통계의 이용 목적과 부실한 통계가 작성되면 얼마나 국가적 큰 손실이 발생 하는지를 설명하여 이해를 시킨 사례를 들어 보면 통계는 크게 국내적 이용과 국제적 이용의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국내적 이용은 국가정책 수립, 연구목적, 국민의 알 권리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는데 매월 조사하여 발표하는 월간조사는 그때 그때 경기 흐름을 나타내어 국가 정책수립과 국민의 사업계획에 참고하라는 자료이며, 5년마다 조사하는 총조사 및 매년 조사하는 연간조사는 자료를 발표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이용하는데 여러 연구기관에서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분석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앞날의 설계에 참고하라고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린다.

인구주택총조사 이용 사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이용하는 분야가 광범위 한데요, 인구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앞으로 어느 지역에 인구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교육, 교통, 의료 등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종 연간 조사 중 인구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구 분	출산율	수 명	노동능력	무노동기간	노인1쌍당 월생활비
60년	5.0명	57세	50세	7년	20만
07년	1.4명	78세	65세	13년	71만
20년	1.0명 이하	82세	65세	17년	100만



위 표를 설명하면 60년에는 한 쌍의 부부가 5명의 자녀를 2007년에는 1.4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놓고 사는 무노동 기간이 60년에는 7년, 2007년에는 13년이라 하고 노인 1인당 생활비가 현재 가치로 월 100만원이라 할 때 60년에는 1인당 2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노인을 부양할 수 있었지만 2007년에는 71만원을 부담하여야 부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때 2020년에는 1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면 100만원의 부양비를 혼자서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노인들을 부양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월 평균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보수의 2~3/1을 세금으로 내야 되지 않겠는지요, 누가 2~3/1을 세금으로 바치고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라고 열변을 토하면 응답자 하시는 말씀,

아~ 그렇겠네요,

이때라 싫어 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지 아시나요? 하고 질문을 하면 응답자 “글쎄요” 계속 이어간다.

60년대 5명을 출산할 때에는 이리 똥굴 저리 똥굴 키워도 한 놈은 잘 되어 효도 하였는데 요즘 1명, 아니면 2명밖에 출산하지 않으니까, 1명인 부모는 그 1명이 잘 되면 100% 성공이요 잘 못되면 100% 실패이다 보니 이돈 저돈 생기는 대로 하나뿐인 자식을 위하여 이 학원 저 학원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집, 옆집, 뒷집, 윗집 자녀 두 명 둔 부모들이 볼 때

한명인 학생을 따라가지를 못해, 그러니 두 명인 가정도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학원비가 증가하는 거여! 내 앞집에는 아들만 세 명 두었는데 몸이 불편한 부인이 애들 학원비 대느라 낮에는 파출부 밤에는 야식 집에서 일하고 새벽에 들어와! 이거 세상 잘 못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면 응답자는 그러네요. 하고 이해를 한다.

나는 목소리를 조용히하며 이 모든 자료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 관련 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하면 정부는 정책 수립을 국민들은 현실을 깨달아 개인의 노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 응답자는 이해를 하며 조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모습이 보인다.

1980년도 쌀 수확량통계조사 시의 사례

신군부 시절 쌀 수확량 통계작성의 잘못으로 적정 수준 수입해야 할 쌀을 너무 많이 수입해 외화를 낭비한 사례를 말씀드리지요.

모든 사업의 회계 연도는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나 유독 양곡의 회계연도는 당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로 이는 예부터 10월 말이 되어야 모든 곡물의 수확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80년 초만 하더라도 주식인 쌀이 모자라 통일벼를 장려하던 시기 였는데 쌀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밟습니다. 전년재고량 + 금년생산량 - 향후 1년간 소비예정량 - 적정재고보관량 = ±가 되는데,

재고가 많으면 수출이나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적으면 수입 등 재고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당시 나타나는 통계자료로는 쌀이 모자라 수입을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해인 1981년 쌀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정도 쌀을 창고에 넣고 나니 저장할 공간이 없는 게 아닙니까, 할 수 없이 야적을 해 놓고 뽕죽한 방안이 없으니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나라 최초로 쌀 막걸리 제조를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통계가 정확히 작성되었더라면 외화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외화낭비는 응답자와 제가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쌀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 소비되는 모든 제품의 재고가 많거나 과잉 생산되면 생산을 줄이든지 수출이나 다른 소비촉진을 찾아야 하고 적으면 생산을 늘리든지 수입을 하든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광공업동태조사 시 생산, 출하, 재고를 왜 조사하는지 이해 가지지요?
응답자 하시는 말씀, 이해합니다!

한 말씀 덧붙인다. 통계는 국제적으로는 UN의 권고사항이며 OECD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각종 통계 자료를 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간 각종 협상 시 협상의 자료로 이용되고, 외자유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1990년대 중반 한일 어업협정 시의 사례

통계자료가 없으면 국가간 각종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잘못된 응답으로 응답자가 직접 피해를 본 사례로서 1990년대 중반 한·일 어업협정 시 쌍끌이어업에 대한 사례를 설명한다.

쌍끌이 어업이란 작은 치어까지 어획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어법인데도, 어민들이 살기가 어려우니 불법으로 어획하여 왔고 각국에서도 어느 정도 눈감아 주는 상태에서 일정부분 어획을 인정을 해주자는 협상이었습니다.

한일간 협상장소에서 일본 측은 불법 어업이지만 쌍끌이어업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 하였습니다, 몇 톤짜리, 몇 척이, 어느 구역에서, 어떤 어종, 몇 톤을 어획했는지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불법어업이기에 통계생산은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없으니 어떡하나요, 자료를 만들어야죠. 부랴부랴 부산 인근의 수협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수협에는 위판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전표에 어선명, 어획구역, 어획어종, 어획량, 위판금액, 위판수수료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판 수수료를 공제하기 위해서죠, 집계하여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협상을 마무리 하였으나 주로 동남 해에서 조업하는 부산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여 그 지역에서, 정부청사에서 쫓기가 이어졌던 사실을 기억 하실 겁니다.

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구역은 일본에 넘겨주고 잡히지 않는 구역을

가져 왔느냐며 밤낮없이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해양수산부에서는 전표를 집계해 보니 어민들께서 제일 어획을 많이 한다고 적어낸

■ 구역을 1순위로 확보 하였다고 설명하자, 어민들은 무슨 말이나

◆ 구역이 제일 많이 잡히고 상당수의 어민들이 그곳에서 조업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는 말 하지도 말라고...

해양수산부측에서는 그러면 조업한 구역을 사실대로 적어내지 엉뚱한 구역을 적어 냈느냐 반문하자, 어민들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잡히는 구역을 적어내면 모든 어민들이 모두 그 구역으로 몰릴 텐데 그리하면 내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고...

위 사례를 보면 당장 필요치 않다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여건에서 협상 시 통계자료가 없으면 상대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종 통계를 개발하여 향후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점과 응답자 자신의 잘못된 응답으로 피해 대가가 응답자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큰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응답자는 통계가 그렇게 필요하고 무서운지 몰랐네요,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 통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못 해 주겠노라고 잡아떼지 못 하더라고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통계조사 사례

농어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농어업법인체 통계조사 등 농수산조야의 특별 및 연간조사의 경험은 많았지만 사업체 부문의 연간조사 담당은 처음이었다.

4월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예산재배정, 임시조사원 채용, 본조사, 내검, 본청질의가 끝나면 6개월간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데 임시조사원을 관리하면서 어려웠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5월 임시조사원 채용공고를 기획과에 의뢰하고 매일 원서접수 현황을 체크하였으나 실업난으로 지원자가 많을 것이란 나의 생각은 오산이었다.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조바심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지자체의 통계관련자나 조사관리자에게 부탁하여 지원을 부탁하기에 이르렀으나 그곳에도 광업·제조업통계조사로 인하여 조사원 확보에 비상이었다.

지자체에서 하는 조사는 조사원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업무량도 같지만 조사구역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거주지이외의 지역이면서 이동거리가 멀어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감을 하고 나니 정원 46명(예비조사원 4명 포함)에 46명이 지원하여 탈락되는 자원이 없이 모두 합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합격자중 통계조사 무경험자가 절반수준 이었고, 만 60세인 분도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일 3일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 4명이 포기하여 예비

인력이 없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시점이 다가오면서 제일 걱정거리인 것은 용인시 처인구의 백암, 원삼, 양지면 등 원거리이면서 사업체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었다. 면접 시 파악했던 차량소유자를 재차 확인하여 이동거리와 사업체의 여건을 고려, 업무량을 다른 조사원의 60%수준으로 배정, 4명의 지원자를 받아 투입하였고 가급적 연고지 위주로 사업체를 분담하여 5월 26일 첫 발을 내딛었다. 예비조사원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 포기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다음날, 우려했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처인구 담당 4명의 조사원 모두가 포기를 하겠다고 조사표를 내 놓았다. 기름값이 최고 높았던 시기인지라 편도 50K에 이동거리, 점심식대를 지출하니 남는 것이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앞으로 통계청일 안 해도 좋으니 그만 둔단다. 설득을 하여도 막무가내다. 다행히 1명이 하겠노라고 하여 다른 지역에서 3명의 조사원을 대체 시도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이준마를 차출하고, 관리자가 수소문하여 다음날 교육 후 조사를 내보냈다.

무경험자가 많다보니 초기에는 오전마다 포기 의사를 내비치는 조사원들을 설득하느라 본연에 업무는 마비될 지경이다, 그 후로도 3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포기 하였는데 특히 처음부터 조사하기 어려운 산업의 사업체 즉 오락, 유흥업소, 변호사 등을 방문하고 오면 대부분 포기하는데 조사하는 요령, 면접하는 요령 등을 재교육 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제는 포기자가 없겠지! 했는데 웬 말, 조사 중 중복 취업자가 발견 되기 시작 했는데 무려 3명이나 되어 주위 분들의 추천을 받아 오전에 교육하고 오후부터 조사를 하게 되었다.

초반 중도포기자로 인하여 한바탕 전쟁을 치루고 나니 이제는 불응 사업체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경험 조사원이 많다보니 사업체에서 안 해준다, 왜 조사하느냐고 아우성이다. 조사목적도 항목에 대한 요령도 제대로 모르고 조사를 내보냈느냐며 전화가 빗발친다. 어떤 응답자는 조사를 하러 보낸 것이냐! 억지를 부리러 보낸 거냐 하면서... 사과의 말씀 올리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 목적과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면 한개 사업체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목이 아파 하루에 먹은 물의 양도 대단하였다.

전화로 대화가 되지 않는 사업체는 현지를 방문한다. 대부분이 음성적인 수입에 의존하거나 산업자체가 사양길로 들어선 사업체, 외국자본으로 설립된 사업체들이 주종을 이룬다.

또한 불응사업체중 공공기관 중에서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관들의 불응이 두드러졌는데, 용인시에 위치한 사법기관인 △△연수원의 사례를 예로 들면, 과거에도 계속 불응처리를 한 사업체란다. 조사원이 현지를 방문하니 우리는 국가기관으로 연수원은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준 일이 없다. 라고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는 조사 대상이므로 조사를 하라는 설명을 하였는데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다. 못해준다나, 담당자와 통화 중 윗선에서 해주지 말란 단다. 담당

사무관을 바꿔 달랬더니 과장님이 해 주지 달랬단다. 담당과장 바꾸라고 했더니 담당자 녀석 머뭇거린다. 잠시 후 담당사무관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통계청 교육원도 조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화 도중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민 누가 국가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하겠으며 법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협박조로 당부하니 기가 죽었는지 양심이 있는지 메일로 조사표를 보내라 하여 보냈더니 2시간 후 회신이 와서 처리한 사례. 진작 해 줄 것이지...

용인시에 위치한 음반제작을 하는 S사업체 역시 계속된 불응사업체로 금년 조사원 역시 조사를 하지 못하고 불응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본사조사 사업체인데 1개 사업체로 인하여 우리 지방청뿐만 아니라 타 지방청에도 불응처리가 되는 현실이다. 조사원에게서 인계받아 불응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 7월초 입력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담당인 조모부장과 통화 하였으나 오지 말라는 말 뿐이었다. 그렇다고 물러설 내가 아니잖아. 다음날 회사를 방문, 3층 건 물중 1층에 들어가니 공장인데 조모부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3층으로 올라가란다. 3층으로 올라가니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벨을 누르니 누구냐고 묻길래 통계청 조세형인데 조모부장 뵈러 왔다고 말했더니 잠시 후 안계시다나.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체 직원인 듯한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기에 쩍쨍하게 되쫓아 들어가니 부장인 듯한 사람이 있어 조부장님 뵈려고 왔다 하니 내가 조부장인데요. 하는데 깜작 놀랐다. 웬 할머니가 부장이라나...

하여튼 명함을 내밀고 인사를 하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 제 이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고 물으니 머뭇거린다. 내 참 기가

막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조세형이를 몰라본단 말인가!
그래서 웃으면서 지금은 줌도둑이 되었지만 옛날 그 유명한 도둑놈 조세형
이를 모르세요? 했더니 웃으면서 아 그래요, 한문도 똑 같아요 라고 하니
자리에 앉으라나, 차 한 잔을 주기에 마시면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내가 응답자라도 협조할 맛이 나지 않겠더라 이 말이죠!

조부장 여자이면서 나이가 64세인데 처녀 때 입사하여 40여 년간 근속했다. 초창기는 음반이 호황기라 너무너무 만족하여 당시 인생을 모두 바쳤는데 인터넷이 확산되다 보니 조부장 회사의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매년 적자폭이 누적되면서 종사자도 몇 명 안 되고...

조부장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

우리 회사가 관련 기관에 주는 조사가 몇 가지인지 아느냐, 통계청만 하더라도 광공업동태조사,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매일 주고 있다. 그것 뿐이냐 용인시청, 노동부, 소방서, 협회,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까지 직원 한사람을 전담 시켜야 될 정도로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많다. 회사는 망해 가는데 우리가 왜 직원 한사람을 전담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하면서 하소연을 한다.

정말 할 말이 나오지 않는다.

부장님! 송구스럽습니다. 부장님 말씀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내 자신이 살아 있어야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통계자료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장님 말씀 천번 만번 되새겨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 33년 재직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합니다. 저 편히 대충대충 일하면서 시련 겪지 않고 편히 일하다가 정년퇴직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으로 살아가는데 더는 못해도 월급 받는 만큼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임무는 이것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조부장님 하시는 말씀, 뭣, 뭣 필요하지죠. 예, 결산서는 금융감독원에 공시하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면적, 종사자수, 매출액 등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라며 자료를 요구하니 건너편에 있는 직원한테 이대리 자료드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조사를 마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내년에 다시 뵈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자 하시는 인사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당신 같으면...

총 119개 사업체를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여 무사히 마무리 하였으나 아쉬움은 남아 있으니, 수원시 인계동 소재 S병원과 용인시 소재 K사업체 2개 사업체를 불응으로 해결하지 못 하였는데 모두 외국지분을 보유한 사업체였다.

나는 모든 조사가 시작되기 전 메일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청 홍보 자료를 보냈는데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여 필요하고 끝까지 읽어볼 홍보자료를 미리 준비 하였다가 발송한다.

경상조사가 끝나면 대부분의 사업체에 인사를 한다. 자료를 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질의도 하고, 연간조사 사업체도 홍보를 하는데 이 사업체도 언젠가는 경상사업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어서면서

인사를 한다, 통계를 작성 하시는 목적을 아시니까 앞으로 통계청에서
나오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자께서도 알겠노라고 인사를 한다.

나의 확고한 신념은 한가지뿐이다,

노력하는 만큼 대가는 돌아오더라. ~

주어진 여건 속에서 불응과 비협조를 최소화하여 정확한 통계,
신속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백만분의 일이라도 기여한다면 보람으로
여기며, 만족한다고...

마법사가 살고 있는 오즈의 세계로



충북통계사무소 / 사회조사과 / 김진경

오즈는 오즈는 어떤 나랄까?

하얀 눈 나라일까? 파란 호수의 나라일까?

허수아비 친구야 함께 가보자

오즈의 마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코가 빨간 코일까? 회고 노란 곱슬머릴까?

겉이 많은 사자야 우리 함께 가보자

멀고도 험한 모험의 길

우리는 끝까지 헤쳐 나간다.

아름다운 나라 오즈로 꿈의 세계 오즈로~~~~~

회오리바람을 타고 도로시가 떨어진 곳은 오즈의 나라 중에서도 동쪽마녀가 다스리는 곳, 도로시와 토토는 자기 집인 캔자스 초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란 벽돌 길을 따라 마법사 오즈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 에메랄드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뇌를 가지고 싶어 하는 허수아비와,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용기가 필요한 사자를 만나 함께 모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오즈에는 마법사가 있을까요? 어릴 적 누구나 한편의 동화를 기억하며 그 동화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도 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처럼 마법사의 도움을 얻기 위해 열심히 모험과 마법의 주문을 외어 봅니다.

5년간 농가경제조사를 하고 처음으로 가계조사의 일원이 되어 한동안은 3지구 60여 가구와 업무에 대한 파악은 시간이 흐르면서 배워나가면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2개 가계 조사 중 1개조사구 연동 시작이었습니다.

농가 경제조사는 내가 결혼해서 아이 셋 키울 동안의 정이든 곳이기도 하고 통계조사의 첫 출발점이어서 인지 지금까지도 조사대상가구와의 끈끈한 정을 유지하며, 길가에 가로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 즈음이면 그들의 까맣게 그을린 삶의 모습들이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가계조사도 또 하나의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며 나의 추억의 보따리에 담기위해 처음부터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응답도 사람이 하는 표현이고, 불운 또한 사람이기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마법의 주문을 외워봅니다.

처음으로 연동이 시작되면 가구파악과 경제활동조사 2개월 후에
가계설득이 이루어 지는데 첫 면접에서 거의 80%를 예상한다고 하면
건방진 표현일진 모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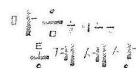
이곳은 전형적인 도시 스타일 32평의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는 중상층의 맞벌이 부부로 만나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첫날 우편
함에 통계청 전단지, 인사장, 명함 그리고 퇴근 이후에 찾아뵙겠다는
메모를 남겨두고, 그 다음날 퇴근시간 이후 살며시 초인종을 눌러봅니다.
마음속의 나의 마법 술법을 중얼거리면서...불응. 불응..응..응..응.응답.

첫 번째 가구설득 하는 날...

80세 할머니와 개 두 마리만 반길 뿐, 가구주에 늦은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하려고하니 대뜸 “저 번에 와서 꼬치꼬치 다 묻고 잤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전화하지 마시요.”하며 냉담한 목소리만이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연락하지 않을
제가 아니죠... 수소문 끝에 배우자가 경영하는 음식점을 알아내어
점심을 먹고 나의 신분을 밝혀 기본사항만 파악하고,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답례품을 드리고 며칠 뒤 다시 좀 한가한 시간을 틈타
배우자에게 가계부 설득을 하니 아저씨가 살림을 하고 있어서 아저씨
허락 없이는 곤란하다고 그럼 아저씨를 한번만 만날 수 있는 시간, 가계
끝날 시간이 9시 30분이라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이를 뒤 가구주를 만나
게 되었습니다.

가구주는 처음에는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고 수저 닦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계셔서 나도 같이 앉아 묵묵히 아저씨 눈치만 보면서 수저 닦는 일을 도와 드리고 있으니 보다가 답답하였는지 가구주가 “왜 이런 조사를 내가해야 되느냐?”

“헛수고 하지 말고 다른 집을 찾아 보시요” 하면서 불응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애기와 정부에 대한 불신 및 마치 자신이 공부하지 못한 것이 국가가 책임이 있듯이 나에게 얘기하는 아저씨를 보면서 아 이제 아저씨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에게 아니 통계조사라는 부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아저씨! 따님이나 동생 있으시죠? 따님이나 동생이 저와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신적 있으세요? 아저씨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고 직업과 사람들 만나는 게 싫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저씨의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아저씨의 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저씨 오늘 저녁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와 아저씨와의 옥신각신 주고받는 말이 1시간 넘게 오고가면서 아저씨의 말씨가 처음과 다르진 않았지만 나 스스로 온화하게 변했다고 단정지으며 가게부를 내려놓고 가게부 기입지도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며 아저씨만 믿겠다고 인사 나누며 돌아서 나오는 저녁 밤하늘의 별들이 나를 향해 기립 박수라도 치는 듯 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가구 설득 날.....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며 나에게 마법을 걸기 시작한다. 계속 이어질 가계부설득에 대한 나에게는 마법 불응, 불응, 응, 응, 응, 응답~~~

이 집은 두 부부가 공무원이고 초등학교 여자아이, 가족 세 명이 살고 있는 가구였습니다. 처음 가구주와의 가구 부문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집은 가계부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나의 생각에 커다란 대 못을 박아 버리는 사건,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어느 토요일 핸드폰에 가계가구의 전화 번호가 울려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설득하고 온 그 가구여서 기분 좋게 “네. 안녕 하세요 000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무적인 말투로 집사람이 바쁘고 솔직하게 사생활을 노출 시키는 것 같아 못 쓸 것 같으니 가계부 가제가는라는 통보…….

머리가 “땡” 전화상으로든 곤란한 내용이라 이틀 정도 마음을 다스리고 가계를 찾아갔으나 가구주의 반응이 더 냉담해지고 혹여 나로 인해 부부싸움 날 것 같은 상황 이럴 땐 또 물러나야지……. 다음날 저녁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괜히 저로 인해 두 분이 다툼이라고 하셨을 까봐 고민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는 표현을 앞세우며 요즘은 대통령이 바뀌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같이 직장생활의 섭리를 잘 알고 있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 가계부에 대한 필요성 및 국가 정책에 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처음 맡은 업무이자, 신규 시작이 이곳이여서 나 나름대로의 심적 부담이 있다는 솔직한 표현에 같이 동감을 느끼며 얘기는 하였지만 가계부만은 시간이 없어 힘들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시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초등5학년 딸아이가 나를 응원해 주러 온 것 같이 “엄마는 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세요? 저보고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엄마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응원가에 힘입어 따님 말처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마시고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가계부를 기록하신다면 지출의 규모도 파악할 수 있으며 저축 및 소비에 대한 절제의 계기도 될 수 있고, 국가통계조사의 도움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딸에게 실천하는 엄마의 모습 또한 아름다운 모습과 저와의 인연이 또 다른 생활하는데 좋은 모습이 되고 싶다는 말과 굳이 집으로 올 필요없이 인터넷 상으로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 전자가계부의 홍보까지 짝~악 마치고 이제 3년간 좋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추억으로 그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날이 된 것 같았습니다.

10개 가계 가구 중 4가구는 줄다리기를 연속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나의 마법의 성으로 들어와 주었고 5가구는 처음만남부터 3년간 통계청과의 인연의 끈을 묶어 나갈 것이고 1가구는 면접조차 불가능하여 “불응”이라는 타이틀을 5개월간 이름표를 달고 있다가 11월에 불응 대체가구라는 제도로 인하여 3구역 대체 가구에서 멋진 가계부를 내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도 가계부 회수율이 86%가 된다는 사실은 불응하는 가구보다 협조 해주는 가구가 많다는 사실에 도시의 인심이 각막해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농가 못지않은 끈끈한 정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기대는 내가 처음 맞이하는 도시가계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조사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것 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오즈가 마법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도로시는 마법사가 준 왕겨로 만든 뇌를 받은 허수아비도 지혜를 발휘하여 에머랄드시의 왕이 되었고, 비단으로 만든 심장을 받은 양철 나무꾼과, 용기를 주는 약을 받은 호랑이는 숲속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도로시는 착한마녀를 만나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마법사의 힘이 아니라 이세상의 살아가는 모든 경험들이 우리들을 용기와 사람들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랑과 배려하는 힘이 마음속의 마법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마법의 주문을 외울 것입니다.



아~

『Chicken hip Jam house』



경남지방통계청 / 진주출장소 / 방대홍

작년 이맘 때 나는 이제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6월이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농업통계업무 특성상 성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축 통계조사를 위해 한층 몸을 다듬고 전선에 투입되어야 하는 바쁜 시기 임에 틀림없었다.

내가 조사해야 할 곳은 삼천포 향촌동 표본조사구로 처음 가보는 곳이라 ‘조금 쉬울까? 가축은 많을까? 어쩔이 아저씨라도 만나면 어찌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때보다 일찍 출발하였다.

유난히 더위가 심하여 아침부터 땀방울이 자꾸만 얼굴을 타고 흘러 내려 조금이라도 빨리 마치겠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현장에서 소, 돼지, 닭을 조사하던 중 어느 할머니 집에 이르렀다. 나는 할머니에게

“할매, 집에 닭 몇 마리 있습니까?”

“2마리뿐이다”

“봄에 병아리 좀 들러놓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젠 늙어서 그것도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하시면서 나에게 갑자기

“젊은이는 지금 자식이 몇인고?”

“아~예 저는 머슴애 1명, 딸애 1명”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래도 젊은이는 자식 복이 있는지 보기 좋게 낳았구먼.”하시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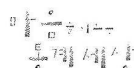
할머니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쫓~쫓 하시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나에게 젊은이는 닭 몇 마리를 조사해서 뭐가 돈이 된다고 이 더운 날씨에 고생을 하느냐? 닭을 다 팔아도 돈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 가지고 어디 처자식은 굶지 않고 밥이라도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몸 덩치를 보니 밥도 많이 먹겠는데 배는 안 굶고 조사를 하러 다니느냐. 우리 집에 아침 먹고 남은 밥이 조금 있는데 챙겨 줄 테니 좀 먹고 하라고 하셨다. 할머니에게 아무리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도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젊은 사람이 배가 불러야 일을 할 수 있지 하시면서 챙겨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밥을 먹는데 나를 측은하다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웬 말인고..... 내 모습이 할머니 눈에 그렇게도 초라해

보인다 말인가? 계속해서 할머니는 우리 집 큰아들이 저~ 부산 큰 건설 공사현장에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잘 번다며 이번 추석 집에 오면 꼭 취직자리 하나 부탁해 볼 테니 그곳 공사현장에서 일하면 닭 몇 마리 조사하는 것보다 처자식 먹여 살리는 데는 훨씬 괜찮을 것이라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화번호 있으면 마루 벽에다 큼직하게 적어 놓고 가라고 하셨다. 나를 걱정해 주시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할머니의 간곡한 청인 취직자리를 뿌리 칠 수가 없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할머니 집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웬지 힘이 빠지고 남의 눈에 내 직장은 이렇게 보잘 것 없이 비친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그래도 젊은 시절 나도 여러 부처에서 love Call이 있었지만 산 넘고 강 건너 통계조사 하면서 자연과 함께 흠을 맑는 것이 좋아 이제껏 이 직장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다음에 와서 조사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곳까지 오려면 기름값이 얼마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힘을 내어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 이번에는 돼지를 많이 키우는 집. 그 집 주인이 바로 초등학교 때 여자 동창생이 아닌가? 니가 여기에 무슨 일로 왔노? 너는 어디 공무원 높은 자리에 있다던데. 돼지 암놈, 수놈 조사하러 다니냐? 공무원한지 한 30년쯤은 됐으니 고참 과장은 되겠네. 그러면 과장이 돼지 조사를 다하나? 하는 등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야! 사실대로 말해라. 내 남들한테 이야기 안 할 테니 혹시 너 회사에서 잘리고 어디 인력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고



농림부 소속 공무원인데 가축조사를 해서 국가의 축산정책을 수립하고 가축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한다고 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끝내고 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오면 답변이나 잘 해주라고 부탁하였다. 원래 장난이 심하고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동창생이라 자꾸 말을 걸면 덕 될 것이 없다 싶어 시원한 물이나 한잔 얻어 마시고 바쁘다면서 황급히 다른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뒤를 돌아다보니 그 여자 동창생이 측은하다는 듯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는 계속적으로 달갑지 않은 일들의 생겨 쩡그린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현장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마지막 닭전수 농가를 찾았다. 주인아저씨는 복날도 다가오고 해서 닭 몇 마리를 삶아 몸보신 한다고 동네 아저씨들과 마루에 앉아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다. 아저씨들은 나를 보고 고생도 많은데 닭똥집하고 소주나 한잔 하라고 권했다. 마음은 고맙지만 그래도 국가공무원이 조사를 한다고 민폐를 끼쳐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싱싱한 닭똥집이나 한점 하라고 자꾸 권하는 것이 아닌가. 아~ 저 맛있는 닭똥집 치킨 힙-잼 하우스라!!!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인가. 논에서 벼나 보리를 베고 돼지조사를 하는 주제에 무슨 체면을 따지고 그렇잖아도 오늘 일진이 너무 좋지 않아 우울한 마음인데 아저씨들의 권유를 못 이기는 척하고 소주 한잔하였다. 나무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먹는 순간 하루의 피로와 배고픔을 달래주는 닭똥집의 오묘한 맛. 오! 땡~큐 치킨 힙-잼 하우스! 바로 이 맛이 오늘 가축통계조사의 피로감과 씹쓸한 내 마음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현장조사를 모두 끝내고 차에 몸을 실어 신록의 푸름이
그 자태를 맘껏 뽐내고 싱그러운 공기가 내 차창가로 스칠 때 쑥스러웠던
그날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머지않아 6월 가축조사가
다가오면 향촌동의 『Chicken hip-Jam house』의 추억이 아련히 생각나게
하는구나.



마음을 나누는

|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통계조사

응

답

자

농·축산업인을 위한 조사항목이 신설되기를



가축통계조사 대상가구 /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 이승석

올해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겨울이 지나가고 농사짓기에 바쁜 새싹의 봄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봄도 가고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가 했더니 가을의 문턱인 9월로 접어드는 화창한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가축 사료 값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통계청직원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반갑지 않고 이야기하기 싫은데 직원은 내게로 다가와 “요즘 닭 사육 하시는데 사료 값 인상으로 상당히 힘이 드시지요?” 라고 말을 건네 왔습니다.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닭을 폐기해야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또 말을 건네 왔습니다. 저는 처갓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시장에 팔아 봤자 비료 값 교통비 빼면 남는 것이 없다면서 푸념어린 식으로 말을 건넸더니, 또다시 “요즘 가축 사료 값 인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으시지요?” 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농촌의 현실을 어느 정도 아나 싶어 조금이나마 나의 굳은 표정은 차츰 열리면서 가축조사로 왔는지 잘 알면서도 어떤 일로 나왔냐고 통명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먼저 가축조사는 뒤로하고 축산농가의 어려움부터 이야기를 시작 하더군요. 전년에 비해 턱없이 올라간 것에 대해 몸 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저는 주업으로는 닭을 사육하고 있으며, 발농사도 일부정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농업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는 정부정책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진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하기 가 상당히 곱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통계청직원은 나의 정부정책에 불만투성이인 나에게 어려운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편하게 해주면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자기위치에서 농업인과의 어려운 대화를 상대하는 것을 보고 타 공무원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찡한 것을 느끼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직장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니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닌가한다. 나도 축산업이 내 직장이나 다름없다면 공직에 있는 분들도 자신의 직업생존을 위해서는 발버둥을 쳐야한다고 생각하며, 그 발버둥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통계청이 아닌가한다.

내가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닭 사육인데, 한우는 그나마 본인들이 부지런하면 사료작물을 재배하며 여름과 가을을 이겨낼 수 있고, 돼지는

군부대의 잔반을 사료로 이용하지만, 그 중에서 닭 사육농가는 100% 사료가 아니면 사육할 수 없어 사료 값 인상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는 농산물비료, 면세유류 인상 등이 정말로 어려운 현실이므로 통계청이 정부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주는 역할창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실태로 계속가면 2년 내지 3년 안에 중·소규모 축산 농가는 사료 값 부담 등으로 부채를 안고 폐업으로 인해 자진 실업자가 되는 어려운 처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통계청이 TV등을 통해 물가, 산업, 인구, 출생통계 등 광범위하게 발표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청 직원의 노고에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하고 타 공무원들 같지 않게 항상 낮은 자세로 정부에서 저버리는 농업인을 따뜻하게 대해 줄 때마다 모든 공직자가 본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아니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장 농업의 통계를 내어 농업인의 어려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현실 속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할 때 농업인의 시름은 잠재워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다소나마 진정이 될 것입니다.

국가경제 기초산업인 농업인에 대한 미래가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어려운 궁지로 몰아서는 되겠는지요?

통계란 국민을 위한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농업인들도 국민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 현재와 같은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의 자산인 농업인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직원 여러분! 우리 농업인들은 통계청 여러분들이 정부정책의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되는 통계를 조사하느라 고생이 많고 타 공무원에 비해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자세를 가진 통계청 직원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농업인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밝은 미래, 희망이 보이게끔 통계청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세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이며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사료 값, 면세 유류, 비료 값 인상 3가지의 통계조사 항목 신설로 전 국민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항목 신설에 대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



가계조사 대상가구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 박정미

“아냐, 내 말이 맞아. 진짜 안 받았거든. 지금 가계부 보고 있는데 받은 게 없어.” “어~ 그래? 그럼, 언니 말이 맞겠지 뭐. 내가, 언니 기억력은 못 믿는데, 가계부는 믿는다. 하하”

최근, 이웃집 애기엄마와 내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이다. 그 집 바디로션을 내가 대신 사다주고 그 로션 값을 받지 않았는데, 그 애기엄마는 나에게 주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아무런 메모도 기록도 없는 상황이니 ‘그런가보다. 그럼 내가 언제 받았나보지 뭐.’ 하고 넘어갔을 일인데, 그때그때 꼼꼼히 기록해 둔 일기장 같은 전자가계부 덕분에 못 받을 뻔한 돈을 받은 거다.

처음 통계청 직원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가 기억난다. 차분하고 친절하 태도와 눈빛의 여성분이 통계청에서 왔노라고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고 하셨다. 안으로 모셔 얘길 들어보니, 가계부를 작성해 주면 격월로 답례품을 주신다는 내용이었다.

안 그래도 매해마다 보험설계사이신 친정엄마가 챙겨주시는 가계부 노트를 꼬박꼬박 받아서 책꽂이에 꽂아만 두기를 반복하고 있었기에 나로선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약간의 강제성이 있으니 억지로라도 쓰면 습관이 들 테고, 그러면 생활비도 규모 있게 쓸 수 있을 거고, 선물로 생필품도 준다니 정말 처음부터 대환영이었다.

하지만,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위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찾아오셨다. 집에 통계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었는데, 사기인 것 같으니 나보고 조심하라는 거였다. 집안의 사정을 알아보고, 후에 무슨 짓을 하려는 속셈인 것 같으니 뭐 준다고 하면 절대로 받지 말라고도 하셨다.

위낙, 요즘 세상이 험악하니 그런 염려도 하실만 했지만, 그 통계청 직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없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지금은 그분도 통계청 가계부를 작성하고, 답례품도 받고 계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경우엔, 처음부터 가계부 작성하는 일이 정말 정말 재미있었다. 가계부에 적을 것이 없는 날은 그저 적고 싶어서 껌이라도 사고 싶을 정도로 참 흥미로웠다. 물론, 그렇게 일부러 지출을 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가계부 작성 첫 달 마무리를하며, 통장과 가계부를 보고는 난 정말 가슴이 멎는 줄 알았다.

난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지출하고 사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그래도 매달 같은 돈 쪼개서 쓰는데 정신 없이 지출해봤자 월급 안에서 썼을 텐데 뭘’ 할 테지만 그 당시 우리 통장엔 상당액의 여분의 돈이 있었는데, ‘나의 개념 없는 가게운영으로 그 돈이 거의 반이나 사라져있었다. 몇 달에 걸쳐,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었다는 얘기다.

으악~~ 정말 끔찍했다. 가슴이 벌렁거렸다. 나만 믿고 돈의 지출에 대해 전혀 간섭 않는 남편에게 매우 미안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름, 알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싼 옷 안 사입고, 비싼 화장품 안 쓰며, 세일하는 상품만 골라 쓰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대체 내가 돈을 어디다 그렇게 많이 썼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그 달 가게부 마감 후, 당장 내 소비 경향을 분석해 봤다. 외식과 아이들 간식이나 군것질을 위한 지출이 상당히 많았다. 싸다고 잔뜩 사왔던 식재료들이 냉장고 안에서 그대로 쓰레기로 나가는 일도 많았고, 외출해서 길거리에서 파는 군것질거리도 많이 사먹고 있었으며, ‘오늘은 기분이다.’ 하고 친구들에게 한턱 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싱크대 앞에 다음의 3가지 항목을 써 붙였다. ‘음식물쓰레기 줄일 것’, ‘외식 줄일 것’, ‘애들 간식 미리 만들어 놓고 군것질 줄일 것’ 그 결과 정말 신기하게도 매달 지출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지금은 아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지출을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통계청을 만난 것이

내겐 얼마나 행운인지~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수기로 가계부를 작성하다가 중간에 전자가계부로 시스템이 바뀌어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항목을 찾아 입력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생소해서 매우 불편했다. 그래서 전자가계부를 시작한 첫 달은 작성하는데 참 오래 걸렸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점차 익숙해지면서는 수기 가계부보다 훨씬 편리하고, 무엇보다 매달 5만원의 수입이 생기니 더없이 좋다. 나는 이 돈으로 큰아이 한글 방문 지도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큰 아이 친구 엄마는 그거 자기도 할 수 없느냐고 매우 부러워한다. 그러고 보면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

끝으로, 가계부 작성을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그래서 우리 가정경제에 도움을 준 강원지방통계청과 가족처럼 생일 선물까지 챙겨주시고 늘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가계부 작성에 재미를 붙여주시는 통계청 직원 분께도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나는 남자전업주부다.



가계조사 대상가구 /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 이 규 완

나는 현업에서 은퇴 한지 몇 년이 된 66세 남자이다. 은퇴 후 특별히 할 일이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아내가 방광암에 걸리는 우환이 찾아왔다. 때문에 집안일은 내가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집안 일 말고도 아내는 가계부를 써서 통계청에 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영 마땅치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도 많고 남자가 가계부를 쓰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또한 그리 넉넉하지도 않고 그동안 저축해 놓은 것과 자녀들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 나로서는 가계부를 작성한다는 것이 그리 썩 내키지도 않은 일이었다.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아내를 간병하는 것도 힘들고, 생사를 넘나드는 아내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아내는

통계청 직원과 가게부를 쓰기로 약속했으니 꼭 해 주어야 한다면서 가게부를 꼭 쓰라고 말하였다. 아내의 착한 마음씨에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수술은 잘 되어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다.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 빠른 회복으로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매달 방문하겠다는 통계청 직원의 전화가 오면 아내는 반사적으로 통계청 직원을 기다리곤 한다. 대화할 상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족문제, 아들 결혼문제 등을 허물없이 말하곤 한다.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안달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좋다. 아내가 견과류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콩을 먹기 좋게 볶아 오는 직원의 모습은 정말 딸이 부럽지 않다. 또 그럼 아내는 여러 가지 야채들을 챙겨 준다. 정말 인생살이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항상 밝은 웃음으로 우리 집을 방문하는 직원에게 아내는 요구르트 하나라도 먹여 보내려고 애쓰고, 또 언제 오느냐며 사람이 그리워 자꾸 되 묻는다. 통계조사라는 일로 서로 알게 되었지만 몸이 아파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아내는 그렇게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이를 반긴다.

나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다. 둘째 아들은 결혼하여 손자까지 보게 해 주었고 딸은 일본에 유학중이다.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꾸 중매 하라고 아내는 성화다. 통계청에 좋은 아가씨 없냐며…… 자꾸 조른다.

3년 동안 가게부를 쓰면서 나도 사고방식이 참 많이 바뀌었다.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물가의 오름도 피부로 느낀

다. 매달 공과금과 한 장의 영수증이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 집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파 한 단의 소중함도 알았다. 직접 종이 가계부를 작성해 보니, 불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매달 수입과 지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규모 있게 미리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점이 참 좋다. 그래서 가계부는 꼭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에게 내가 느낀 가계부의 소중함을 말해 주었다. 아직 며느리가 가계부 작성을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가계부를 작성해주길 마음속으로는 바라고 있다.

우리 집에 방문하는 통계청 직원이 자주 바뀌어 친분이 쌓이기 시작하면 헤어지게 되어 아쉬울 때가 있었지만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다. 대화가 하고 싶을 때 대화 상대자가 되어 소소한 생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매달 주시는 선물도 가정에 유용한 것이라 잘 쓰고 있다.

처음에 까마득하던 3년이 벌써 다 지나간다고 한다. 올 11월이면 통계조사가 끝난다고 하니깐, 시원섭섭한 마음과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교차하였다. 내가 작성한 가계부가 통계청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참 보람된 일이었다. 무엇보다 나에게도 무언가 책임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뿌듯하고, 또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기분 좋았다.

우리 집 행복의 발판



가계조사 대상가구 /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 이 상 자

10월 통계청 가계부 체험수기 공모전이 있다고 들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나, 머릿속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스쳐지나 갑니다. 혹시, 나와 같은 생각으로 무작정 통계 조사를 기피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로 그동안 나와 통계청 가계부에 관한 인연을 소개 하려 합니다.

살림이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스물일곱 어리다면 어리고 많다면 많은 나이에 결혼을 해, 한 가정을 닦선 수원에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없이 신혼 생활을 시작했던 나……. 그래도 신랑과 함께 알콩달콩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세요~”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녕하세요~ 통계청직원 마항복입니다.” 통계청 조사 때문에 방문하게 되었다며 잠시 문을 열어

달라고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 준다는 것은 나로서는 부담과 불쾌감이 교차했다. 택배 하나도 집이 아닌 회사로만 받는다. 그러니? 더 할 수밖에…….

잠시 공무원 분과 문 하나 사이로 신경전이 벌어 져야만 했고, 난 가끔씩 우리 집을 방문해 종교에 대해 아냐고 묻던 사람들에게 늘 했던 말로 내 의사를 통보했다. 별다른 대꾸 없이 “그냥 가세요.”란 말만 반복했고 통계 조사 공무원은 밖에서 통계 조사란 꼭 필요한 거라며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미 마음에 문을 닫고 있었던 나는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내 할 일에만 전념 했고, 그 무렵 현관 앞도 조용해 졌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고, 난 짜증 섞인 말투로 “누구세요”를 크게 외쳤다. 이번엔 아래층 살고 계시는 수진이 엄마의 목소리다. 같은 유석주택에 살고 있고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는 터라 흔쾌히 문을 열었다. 수진이 엄마는 나에게 예전부터 화서동 통계 조사를 하고 계신 통계청직원이라며 나에게 소개했고, 그제야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통계청 직원 분은 하얀 이를 드러내 웃으시며, 통계조사에 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통계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조차 없었던 나는 통계조사에 대한 중요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통계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그분께 죄송스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 후 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계조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나와 같은 생각으로 통계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통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도 올라와 있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글이 있다. '통계청에서 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이다. 통계청에서는 국가 경제에 필요한 각종 통계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통계청의 정확한 통계조사로 나라 정책에 반영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통계가 엉터리로 작성되게 되면 그 통계를 근거로 나오는 정책 또한 엉망이 되고, 이는 국가 경제에 타격이 되는 셈이다. 정부에서 정책을 세운다거나, 기업체에서 전략을 세우는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통계조사는 꼭 필요한 거라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나라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니? 뿌듯한 마음이 든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게 된 후 우리나라 통계청 가계조사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고충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 가구에 지나지 않지만 그 분들은 각 가구를 방문하여 같은 설명을 여러 번하고, 또 나처럼 문전박대를 하는 가구 또한 부지기수로 많았을 테지만 '항상 웃으며 밝게 일을 해야 한다.' 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나의 퇴근시간에 맞춰 통계청 공무원이 집에 방문 하시어 너무도 친절하게 가계부의 쓰이는 목적과 사용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며 한편의 가계부를 건네주셨다. 받아든 가계부를 살펴보면, 처음 기록해 보는 가계부 작성을 통해 우리 집의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아끼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가계부를 작성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게 작성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자 가계부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후 난 가계부를 다운받아 전자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종이 가계부보다 불편한 점이 있지만 지출과 수입이 한 눈에 들어오고, 그래프를 통해 또 한번 돈의 흐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가계부를 쓰며, 나도 모르게 쓰이던 돈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는 가장 큰 소득이다.

이러한 장점들을 유석주택으로 이사를 오는 분들께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유석주택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서먹했던 이웃 간에 인사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땐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미덕이 생긴 거다.

어느덧 가계부를 작성한 지 2년이란 기간이 흘렀다. 그동안 나의 삶도 경제인에서 비경제인으로, 또 새댁에서 한 아이의 엄마로 바뀌어 있었다. 이렇게 가계부를 쓰면서 얻어지는 노하우로 장차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펼칠 우리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시킬 것이다.

경제 교육이란 꼭 필요한 가계부와 같은 것이다.

화서동 153번지 태민맘이...

가계부를 통해 느낀 부모님의 사랑 ^^



가계조사 대상가구 / 서귀포시 영천동 / 서연미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내용이 가계부를 통해 남에게 공개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10년이 훌쩍 넘는 해를 제주도를 떠나 생활하다가 결혼 전 잠시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때마침 우리 동네가 통계조사 구역에 포함된다고 하여 부모님을 도와 내가 대신 통계조사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썩 내키지는 않았다. 대학 때는 매달 올라오는 용돈에 맞게 지출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는 매월 정해진 월급으로, 비록 혼자 사는 살림이지만 규모 있게 지출하는 게 습관이 되어 다이어리에 적어두곤 했었기 때문에 지출 항목을 적는 것이야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일일이 그것도 통계조사를 위해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여간 귀찮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저것 많은 질문을

통해 우리 집 사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내 기록이 통계조사 때 표본이 된다 하니 그 부담감이란 적지 않았다. 혹시라도 잘못된 통계가 나오면? 통계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지 의심도 해보았고 거절도 해보고 싶었고, 이런 내 마음을 실어 닮은 내색도 무척이나 많이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2,000원 음료비 지출이 내 가족을 위해 소비를 한 것인지 교제비의 명목인지, 항공요금이 왜 편도요금 만큼 밖에 안 되는지, 일일이 물어오는 전화가 너무 짜증이 날 때도 있었다. 물론 가계부 작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항목별 분석 그래프가 있어서 지출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했지만 부모님과 같이 쓰는 가계부라 정작 나 자신이 소비의 흐름을 파악 할 수도 없었고 매일 일과를 마치고 난 후에 적어둘 수 없어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하는 것도 나의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 힘들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생각들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계청 가계부 작성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내가 대신 작성하는 부모님의 수입과 지출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식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1남 3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부모님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해 오신 지난 세월과 아직 막내 동생이 대학 공부가 몇 년 더 남아 있어서 부모님께서 고생하며 겪으실 앞으로의 생활도 눈에 선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학자금이 지원되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식이 많지 않은 다른 부모님들처럼 “다 키워 놓고 이제 노후만 준비하면

된다.”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많지 않은 수입으로 우리들이 돈 걱정 없이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멋지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라 당신들이 사고 싶고 입고 싶어도 참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어도 그 모든 마음을 참아 오셨다는 깨달음도 고마움과 함께 아스라이 이품으로 다가온다. 매월 그 달치 마감을 하면서 월간 수입 / 지출 현황의 오락, 의복, 미용에 관련된 항목에서 부모님이 당신들을 위해 지출하신 건 지난 1년간 거의 없고, 자식들이 드린 용돈도 고스란히 또 자식들을 위해 쓰고 계신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참 이렇게 맹목적일 수 있는지, 이렇게 클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요즘 모 방송국 인기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서 엄마가 가출을 했단다. 같은 처지에서 우리 부모님이셨다면 지난 세월 동안 수 없이 가출을 하고 싶었을 게다.

통계청 가계부 작성은 귀찮고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으나 감사할 부분이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그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지금의 당당하고 멋진 내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 글을 통해서 전해 드리고 싶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가질 기회를 주시고 이런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통계청과 그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통계청 일을 하면서...



어가경제조사 대상가구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 고 태 원

통계청과 인연을 맺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75살이라는 나이가 부담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벌고 쓰는 돈의 드나듦을 다 적어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배운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일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꺼려하였습니다. 위낙에 농사일이라는 것이 돈 버는 것은 없는데 쓰는 것은 많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였나 봅니다. 자꾸 하기 싫다는데 통계청 직원은 꾹꾹하게 저희 집에 와서 통계조사의 이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통계청직원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가계부를 적는 일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깜빡하고 그냥 지나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허락해서 이 고생을 하나 하면서 지금이라도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위낙에 뭔가를 적는 일도 없었고, 적는 것이라고는 농사일지와 제사 때 쓰는 지방 밖에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적응되면서 내가 핸드폰 요금을 얼마나 쓰고, 먹는 데는 얼마나 쓰고, 농약 값에는 얼마나 쓰고, 농번기 때 와서 일해 주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의 품삯은 얼마나 하고, 양파와 마늘, 꾀알 같은 것을 농사지어서 얼마나 버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성격이 꼼꼼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결과겠지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지나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재미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통계청직원과 농담도 나누고 싸우기도 하다 보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와서 나에게 선물을 주고 가는 직원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힌 지식이나 통계청 직원들이 알고 있던 것을 말하고 듣다보니 아는 것도 많아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우리 집의 가계부만 작성했는데 어찌다 보니 얻는 것이 많아 졌네요.

3년 동안 내 일상과도 같던 가계부와 이제는 작별이라니 참 아쉬운 거 같습니다. 왜 재미있는 것들은 항상 일찍 끝나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다음에는 컴퓨터를 배워서 한번 전자가계부도 적어보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 매일 적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배워보고는 싶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아들 집에 가서 제가 자리하나 꿰차고 앉아 인터넷도하고 손자들에게 메일도 쓰고 있겠지요. (메일작성 같은 것은 이미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직원들의 가정에 좋은 기운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GOOD LUCK TO YOU

농가경제와의 동거



농가경제조사 응답자 / 전북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 정희봉

동진 만경 두강물이 흐르는 한 모퉁이 동편에 살짝 높은 아산을 끼고 이루어진 효정마을에 사는 정희봉이라고 합니다. 통계 조사원과의 첫 만남은 태양이 불빛 같고 몹시 덥던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부민노소 20여 명은 마련된 모종에 누워 오전 일을 마치고 더위를 피해 휴식중인데 검은 색 승용차 한 대가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딱 내려선 여인은 레슬링 선수처럼 덩치가 큰 여인이었습니다. 썩웃고 미소 지으며 모종으로 올라와 무릎을 꿇은 채 인사가 시작되더군요.

“저는 통계청 김제출장소 000입니다.”

처음에 우리 모두는 요즈음 흔한 약장수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장수는 아니었습니다. 공손한 어조로 시작되는 이야기 첫마디 통계조사에 대한 설교가 시작되더군요. 통계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단어였습니다. 농가의 살림살이를 파악하여 농업문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은 먹어야 하며, 먹기 위해서는 먹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이를 만들기 위해 씨앗을 뿌려 정성스럽게 가꾸 수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을 먹었으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농가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선 생산량과 소비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 톱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 경제문제가 먼저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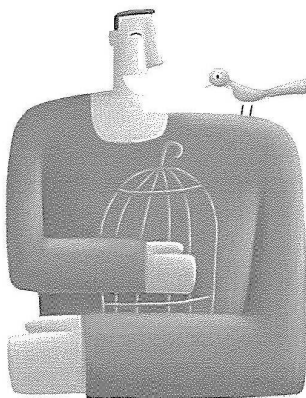
앞으로는 농업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당장은 귀찮고 힘들더라도 통계조사원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통계조사원을 위해 농민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 통계조사원이 있는 것이니까요.

어느덧 농가경제조사에 응답을 해준지도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귀찮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조사가 지금에 와서는 나에게 생활의 한 일부분이 되었네요.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딸처럼 지내온 시간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동·식물은 오면 가고 가면은 다시 오는 게 철칙이지요.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새로운 000조사원이 농가경제 조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또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 같더군요. 논과 밭의 지면 및 부채현황, 가족사항, 대농구 종류 등을 아주 꼼꼼히 물어보았어요. 그렇게 2개월이 지난 지금은 000조사원이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 막내 딸처럼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조사원이 전답을 현지에서 보폭

으로 재어가며 세밀하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
저도 최선을 다해 협조할 생각입니다.

통계청에 근무하고 계신 모든 통계조사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가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오늘도 파이팅!! 국가경제의 탄탄한 초석이 될 거라 믿어봅니다.



추억이 되는 가계부



가계조사 대상가구 / 부산시 서구 동대신1동 / 정미옥



찬바람이 불면 나는 종종 신훈
시절의 그 추웠던 때가 떠오른다.

친정집에서의 극심한 반대로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만 신고 도망치
듯 시택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렸다.

시택도 어려운 형편이라 달리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친정엄마는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며 친정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하시었다. 그래서
나는 친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방을 얻어야만 했으며, 전세로 내놓은
집이지만 전세 돈이 없는 우리는 모두 월세로 선불을 내었다. 그때 남편의
월급은 백오십만 원 정도였다 나는 그 돈으로 월세, 침대,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 할부금을 내었고 재래시장에서 수저, 밥그릇, 냄비 등을 구입

하였다. 얼마나 임담했던지, 얼마나 초라했던지, 내가 왜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지……. 많은 자책과 후회와 눈물로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을 보냈다.

내가 좋아하는 생선은 사먹을 엄두도 못 내고 겨울 초 천원어치를 사다가 반은 된장을 풀어 국을 끓여먹고 반은 걸절이로 무쳐먹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지금도 이 대목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월급을 받아오면 그 다음 달 월급 며칠 전에 돈은 이미 바닥이 났었다. 계획을 세울 필요도 가계부를 쓸 필요도 없었다. 한 푼 남김없이 고스란히 다 쓰였다.

일 년이 그렇게 지나고 난 후에 할부금도 하나씩 끝이 보이기 시작
했다. 지난해에는 돈이 없어 조금씩 비싸게 사먹었던 고춧가루도 추수가
막 끝난 후에는 값이 제일로 싸다는 것, 김장도 남들보다 한 달 일찍 하면
배추, 무가 싸다는 것도 말일이 가까울 때는 고등어가 비싸다는 것과 주로
냉동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의 월급날인 17일, 25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내지 닷 세전에는 시장에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자연히 싸게 덤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등을 메모하게 되었다.

나는 그런 메모들을 정리하여 이달 언제쯤에는 무엇을 사야하는지, 언제쯤 사야 싸게 살 수 있는지를 꼼꼼히 메모해두었다. 하루에 몇 번씩 이고 가게부를 들추어보며 지난달과 비교하여보고 어디에서 더 아껴 쓸 수 있는지 분석하여 지난달보다 생활비가 단돈 얼마라도 적게 쓸 수 있도록 머리를 쥐어짰다. 이러한 내 생활에 통계청에서 나왔다면 예쁘고 상냥한 아가씨가 방문하였다. 통계자료로만 활용할 뿐 철저한 비밀에 부치겠다며, 가게부를 작성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였다. 하지만 째수이

처럼 생활하는 나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에 또 사생활이 남에게 공개된다는 생각에 선뜻 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방문한 조사원 아가씨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투에 어딘지 믿음이 가게 되었다. 그때 나는 혼기가 짙은 조카가 있는지라 아가씨들을 무심히 보아 넘기지 않을 때였고 결혼 안한 아가씨인지 물어보고 조사에 응하겠노라고 하였다. 통계청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례품까지 준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시작된 통계청과의 인연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그동안 직원이 두 번이나 바뀌어 꺼림칙하기도 했지만 예쁜 종이에 인쇄된 우리 집 분기별 통계자료를 가져다주어 수입과 지출을 비교분석 하여 절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남들보다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많은지 등을 알아내어 계획성 있고 규모 있는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오히려 내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 집에는 내가 제일로 아끼는 물건이 세 개가 있다. 첫째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쓴 일기장, 둘째는 이제까지 받아온 상장, 셋째는 내가 결혼생활 16년 중 15년간 쓴 나의 가계부다. 우리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가 이 세 가지는 꼭 챙겨 줄 것이라고 자주 말 하곤 한다. 그러면 아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싸게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한다. 그럴 때면 난 헛헛한 웃음을 짓는다. 나의 경험과 애환과 지혜가 담겨있는 손때 묻은 나의 가계부만 하려고…….

지난 가계부를 들춰보고 있노라면 옛일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난 오늘도 추억이 될 가계부를 꼼꼼히 써내려간다. 나에게 가계부의 소중한 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준 통계청 조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또 다른 책임감



가계조사 대상가구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 백은희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2년째...

남편과 딸아이 이렇게 세 식구가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가계부작성을 생활화한 전 결혼 후에도 가계부와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자가계부를 병행하며 나름대로 알뜰히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들었을 때 통계청 직원이 방문하여 통계자료에 필요한 전자가계부 작성가구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던 저는 누군가에게 저의 가계부를 보여준다는게 별로 반갑지 않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나라 통계자료에 저의 조그만 노력이 큰 도움이 된다는 말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월 오만 원의 사례비와 두 달마다 지급되는 답례품도 마음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보다 저에게 직장생활은 아니지만 집에서 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둘째를 임신 중이던 안타깝게도 태중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다른 누군가와 대면하는 게 싫었던 저는 이 일은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기에 저로 인해 혹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고 결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살던 저에게, 아니 심신이 힘든 이 시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청 가계부 작성은 기존에 제가 해온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조목조목 작성해야 하는 진짜 가계부 작성이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해온 방식은 형식상의 가계부 작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오면 전 “콩나물 외 얼마” 로 작성했으며 선물 받은 것 친정 또는 시댁에서 가지고 온 물품은 작성하지도 안왔습니다. 남편의 용돈도 그냥 얼마 지급 등등 이렇게 전 대충 가계부를 작성했던 겁니다. 그냥 현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이달은 돈이 남았느냐 적자인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무엇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청 가계부를 하나하나 꼼꼼히 작성하면서 불필요하게 구입하고 낭비한 부분도 다시 한번 알게 되어 저의 살림살이가 더 알차고 경제적

으로 한달, 한달 만들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달 가계부 작성이 끝나면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월간, 연간 등의 가계 살림살이 결과를 다양한 통계표, 그래프로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어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한달 용돈 사용 내역을 저에게 얘기하면서부터 규모있게 알차게 용돈을 사용한다며 좋아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통계청 전자 가계부에 대하여 얘기하고 이것을 이용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저의 살림살이 변화도 얘기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하고 신랑 따라 울산으로 올라와 이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들과 별로 많이 알고 지내지 못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많이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TV를 시청하다 뉴스시간에 통계청자료에 의한 뉴스 내용이 방송 되면 귀가 솔깃해지고 웬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더욱 관심 있게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엔 아무생각 없이 통계청관련 뉴스를 시청하곤 했는데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이렇게 도움 준 자료들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조금만 도움”으로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 일을 잘 했다는 생각과 자부심이 들었고,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가계부 작성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합니다.

결혼 후 “나” 라는 존재를 나 자신도 모르게 잊고 살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다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나도 또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어 행복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 기쁩니다.

아침, 사례비로 받는 오만원 말이죠, 남편 모르게 적금을 넣었습니다.
저만의 비자금 말이죠. 목돈으로 만들어지면 저만을 위한 무언가를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신 통계청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가계부 작성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 말고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뜰한 생활의 시작은 가계부



가계조사 대상가구 / 부산시 동래구 명장2동 / 박말수

‘땡 땡~ 땡 땡~’

“누구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나는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에 약간 어색한 감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맞이하였다. 처음 예상하길 광고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예상과는 달리 통계청 직원으로서 통계청에서 필요한 가계부를 작성하길 원한다는 것이었다.

‘가계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순간 내가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니 당황스럽기만 하였다. 오십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가계부를 써오지 않았던 나로서는 통계청직원의 요청에 흔쾌히 승낙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직원의 부탁에 매정하게 뿌리친다는 것도 내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직원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였다. 통계청 직원의 꼼꼼한 설명에 나는 가계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고, 또한 이 기회에 가계부를 작성해 보는 것도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통계청 직원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다음 날인가? 그때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였다. 처음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하루하루 가계부를 쓴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넉넉지 못한 형편의 생활상을 어느 누군가에게 공개된다는 자체가 너무도 부끄러웠다. 보통 가계부는 자기 혼자 작성하여 간직하며 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것인데 말이다. 하지만 통계청 직원의 말대로 우리 집이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가계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절감하기를 여러 차례. 매일 작성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 가정의 생활상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록 한다는 것이었다. 보통 기억이 나지 않는 지출은 생략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계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지는 생각으로 꼼꼼히 따지다 보니 이러한 어려운 점이 발생한 것 같다.

맞벌이 가구가 우리 아파트에는 많은 관계로 현정씨(조사원)가 낮에는 물론 밤에도 가계부홍보를 위해 다니는 모습이 눈에 자주 띄었다.

우리아파트가 5층 건물이고 계단을 이용하다보니 1층에 사는 나와 지주 마주 친 것 같다. ‘그래도 한 가정의 주부이고, 애들 엄마라고 들었는데, 이 밤에 고생이 많구나.’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깝게 지내는 3층과 5층에 통계청에 협조해 주라고 몇 번 권유를 해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조금씩 힘든 부분을 나누기 위해 가까운 이웃들의 도움을 얻어 볼까하고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신 적이 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런 것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귀찮지 않는가?”와 같이 가계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 비추어질 뿐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얻지 못하였다.

처음 가계부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였다. 집안에서 가사 일을 맡아 가정을 일구고 있는 나로서는 하루하루 그렇게 큰 활동이나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지출이라는 것이 매일 매일 꾸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계기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하튼 부족한 실력이지만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기 위한 나의 노력에 나 역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가계부를 작성한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었고 이제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데 노하우까지 생겨 달인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또한 처음 가계부를 작성한다는 의미를 통계청이라는 외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외재적인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나 스스로 가계부를 작성해야겠다는 굳은 다짐과 같은 내재적인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낀다.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하라면, ‘알뜰한 생활의 시작은 가계부’ 라는 말을 하고 싶다.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단순히 하루에 발생한 경제적자원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울삼아 우리 가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매력 덩어리로 다가온다.

요즘은 이웃에게 가계부를 작성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그 동안 많은 이웃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가계부작성을 간과하고 지내 왔지만 나 스스로 가계부의 위력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좋은 정보는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이웃이며 서로 도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웃이니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 역시 ‘에이~ 가계부 하나쯤 안 쓰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가계부는 하나쯤~”이라고 표현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에서 큰 반성의 거울이 되어 주는 하나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라고 말이다.

뒤돌아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유수वाद 같이 빠르게 흘러가 버렸다. 난감하기만 했던 가계부쓰기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컴퓨터를 잘 못하는 나를 위해 딸들과 남편까지 동원, 내가 적어둔 가계부를 일일이 늦은 시간 컴퓨터에 앉혀 전자가계부를 작성하게 하여 매일 소중한 가계부를 완성하면 뿌듯함도 느껴진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앞으로도 알뜰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가계부를 통해 완성해 갈 것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시는 통계청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통계청이 하루속히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비록,
 조사는 끝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